

보광 스님 동국대 교수
학문 · 수행 · 전법 모두
'정토가꾸기' 의 한 길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부지런함은 깨달음의 길이요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월 2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80호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수행 결사, 불자 신행 트렌드로 '부상'

 # 권수형(62 · 여)씨는 매일 새벽 2시에 〈보리방편문〉 288자를 108번 이상 독송하고 나무아미타불을 1080회 이상 염불한다. 인터넷 카페 '금강(金剛)' 에서 인터넷 사경을 한다. 또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도반들과 모여 경전공부를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는 안거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1년부터 재가신도들이 동 · 하안거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사찰 정기법회나 49재, 초하루기도 등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방식에서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신행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행을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재가불자들은 이른바 '결사(結社)' 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 하면서 도반들과 수행담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한다. 결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찰과 재가단체들은 일반적으로 100일, 1000일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정진을 하고 있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정토회 만일결사' 를 통해 1만일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정토행자들은 매일 아침 참회문 독송-108배기도-10분명상-경전읽기를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1일 1선행 1000원 이상의 보시를 통해 세상의 나눔을 실천한다.

금강선원(원장 혜거)도 2012년 1월 1일부터 보살사상 실천을 위한 만일수행결사를 이어오고 있다. 개별적으로 금강경독송을 하면서, 5명이 한 팀이 돼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수행을 함께 하며 수행담을 공유한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만초)는 안거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1년부터 재가신도들이 동 · 하안거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홍법사, 미황사, 봉은사 등 10여개 사찰이 대중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거에 동참한 인원만 6000명이 넘는다. 재가자들은 안거 기간 동안 매일 삼귀의-수행서원문 염송-칠보 선행하기 등 기본수행에 동참하며, 수행록에 일지를 적으며 하루 수행을 점검한다. 각 사찰에서는 매월 보름날 마다 포살일을 두고 수행대중이 모여 함께 수행선언문을 염송하고 그간의 수행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는 안거 해제시 수행을 마친 재가자들에게 안거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사찰에서 수행했던 재가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대중결사 결집대회' 를 열고 있다.

이 밖에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회장 이인자)는 '승만보살 10대원 정진' 을 진행하고 있다. 수계법회를 통해 회원이 된 여성불자들은 승만보살 10대원 카드를 받아 매일 10대원을 독송하고 수행일지를 체크한다. 또한 매주 1회 모임을 만들어 수행담을 공유하고 100일마다 회향법회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진다.

재가불자, 결사 구성 통해
수행 정보 공유 · 독려 '활발'
"변화의 첫 걸음" 한 목소리

한 경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곳도 있다. **일산 덕양선원**(주지 법상)은 2004년부터 신도들과 천수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다라니 정근을 해오고 있다. 신도들은 49일 기도입재에 들어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49독 이상 하고 게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다라니 독송으로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회원들이 쓴 일지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독송철야정진에 참여하며 서로 힘을 얻는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은 지난 1월 5일부터 갑오년 저녁 특별기도 '여시아문' 을 진행하고 있다. '명훈가피' '지혜증득' '지혜실천' 을 주제로 매일 오후 6시 30여일씩 진행되고 있다. 재가자들은 명훈가피 수행기간에는 〈금강경〉을, 지혜증득 기간에는 문수보살 예찬문 독송을, 지혜실천 기간에는 보현보살 예찬문을 독송 · 정진한다.

조계사 측은 "〈금강경〉 같은 경우는 강의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반복적인 독송과 기도를 하다보면 불자들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며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퇴근시간에 맞춰 특별기도를 시행하니 주변의 직장인들을 비롯해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신도들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다. 인터넷 '금강 카페' 를 통해 전법을 펼치는 배광식 서울대 교수는 "혼자 수행을 하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결심이 흔들려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도반들과 일정기간 한 가지 수행을 함께 하고 공유하면 지속하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덕양선원 다라니 100만독을 성취한 선정행 보살은 "5년 여 만에 다라니 100만독을 성취한 뒤로 내 몸과 마음은 변했고 차츰 삶의 방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도 줄어들었고, 요즘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불자라고 하면서도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불자들에게 결사와 같은 신행활동은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의장 만초 스님은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개인들은 자기만의 수행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결사는 수행을 일반화 · 생활화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재가자들은 불교를 일상 속으로 가져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萬行에 오르는 길 겨우내 석달의 안거가 끝났다. 쌍계사 금당선원에는 벌써 때 이른 춘풍(春風)의 느껴진다. 안거기간 중 은산철벽을 부수기 위한 정진을 거듭했을 수좌들이 자신들의 걸망을 꾸리고 이제는 만행에 나선다. 금당선원 서방장에는 아직도 칼날 같은 수좌들의 선기가 남아 있다. 전국 선원의 안거는 2월 14일 해제됐으며, 98개 선원에서 2천여 수좌가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신중일 기자

관련 기사 · 법어 3, 8면

제한구역 내 사찰 증축 쉬워진다

정부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대지 조성 제한 해소

개발제한구역에 묶에 있는 전통사찰들의 불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2월 12일 "지난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증축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대지조성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전통사찰의 증축을 위해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하며, 1만㎡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때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조성 가능 면적은 처마까지 포함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까지로 확대됐으며 1만㎡(약 3,000평)를 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져 대지조성에 대한 제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이번 개정은 전통사찰의 전통적인 가람배치의 특수성과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전체적인 규모의 가람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통사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원로 불교학자 목정배 교수 입적

8일 향년 78세로… 희귀암 투병에도 강의 '귀감'



불교계 원로학자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2월 8일 향년 78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별세했다. 목정배 교수는 희귀암인 '신경내분비종양' 으로 투병하던 지난해에도 불교평론 열린논단을 비롯한 강단에 서는 등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목 교수는 당시 자신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심력(心力)' 때문이며 2012년 투병 중에도 부산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도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후학들이 반드시 해야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각자의 길에 매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1937년 출생한 고 목정배 교수는 196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불교신문 기자에서 출발해 1987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1987년 불교대 학장, 1990년 불교문화연구원장, 1996년 성철선사상연구원장, 1999년 한국불교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2년 퇴임 후에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와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 2004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불교학 발전과 재가신행운동 전개 등으로 끊임없는 활동을 해왔다. 중앙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범훈 교수를 비롯해 동국대 불교학과 신성현 교수, 원광대 서예학과 선주선 교수, 제주교대 고대만 교수 등 불교계의 중진 학자들을 길러냈다.

2012년 10월 발병한 이래 투병중이던 지난해 2월에는 병원에서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받던 고 목정배 박사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4일 만에 특별외출을 허락받아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발제에 나서 후학들의 박수를 받았다. 5월에는 '우리 동네 소풍가요' 라는 제목의 자택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초기불교교단의 형성에 대하여〉(한국불교학 3, 1977), 〈계율론〉(동국역경원, 1988), 〈대승보살계사상〉(동국역경원, 1988), 〈삼국시대의 불교〉(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범망경술기 외〉(동국역경원, 1994), 〈한국문화와 불교〉(불교시대사, 1995), 〈불교와 예술〉(대한불교법사회, 1996),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계율학〉(장경각, 2001)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추모 칼럼 31면

조계종 197차 중앙종회 3월18일 개원

종무기관 결산 감사 · 종헌개정안 등 심의 예정

불기 2557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결산검사 등을 다루기 위한 제197차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18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2월 11일 제11차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197차 임시중앙종회를 3월18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기는 5일 간이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3월11일까지 의안을 접수받기로 했으며, 종책질의는 13일까지 받는다.

이번 임시회에는 무진장 스님 입적에 따른 원로의원 추천을 비롯해 △소청심사위원(법준 스님 임기 만료), 종립학교관리위원(장명 스님 · 종호 스님 임기만료), 호법분과위원장, 총림실사위원장, 진흥원 제자리찾기특별위원장 선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96차 정기회에서 이월된 종법제 · 개정안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도 논의되며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 발의한 종헌종법개정안을 심의된다.

이와 함께 종헌 특위는 1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197차 임시회에 상정할 종헌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지금 우리 절에서는 – 국제포교 중심 사찰 화계사



화계사는 매년 숭산장학회를 통해 인근 학교와 신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장학금 전달식 장면

세계일화대회로 숭산 스님 유훈 기린다

도심사찰 화계사는 국제선원과 계룡산 무상사와 영주 현정사는 물론 세계 곳곳에 120여 개의 선원에서 외국인 수행자들이 정진하고 있는 국제포교 중심사찰이다.

대적광전에서는 매일 오전 10시~12시 기도,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제일선원 참선정진, 일요일은 9시 30분 일요법회 · 참선법회, 토요일 국제선원 철야 용맹정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초보 불자를 위한 3개월 기본교육과 교양과정, 2년 과정의 불교대학은 주간과 주말반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불교대학원 역시 1년 과정으로 올해는 3월 8일 입학식을 앞두고 있다. 국제선원은 매주 일요일 영어 회화 강습과 영어 참선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

자비보시기금회 나눔 포교 '훈훈'

숭산 스님 열반 10주년 추모재 준비

올해 화계사의 가장 큰 행사는 10회를 맞은 세계일화대회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숭산 스님의 유훈과 가르침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미국 폴란드 등 화계사 해외 선원이 위치한 나라에서 3년 마다 열리고 있다. 숭산 스님 열반 10주년을 맞아 화계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세생생 보살도' 를 주제로 10월 16일~28일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숭산 스님이 창건한 국제관음선종의 수행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다. 일정은 화계사, 수덕사, 계룡산에 위치한 국제선원 무상사를 참방하고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박 3일 동안 본대회를 연다. 이후 무상사에서 숭산 스님 10주기 추모재를 치루고 전국 주요 사찰을 순례한다.

이밖에도 화계사에는 신도회,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등의 신행단체와 신도회 안에 거사회, 합창단 각종 봉사단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특히 화계사는 신도회를 중심으로 자비보시기금회를 마련 1인 1불자 성금을 모아 해외 포교 지원,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이웃 지원, 법보시 등을 하고 있다.

승산장학회 역시 주목할 만하다. 사찰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과 신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에는 신행단체 자녀들에게 장학금 1050만원이 지급됐다.

정혜숙 기자

화계사 3월 캘린더

3월 8일	불교대학 입학식 연등축제 연희단 구성
3월 14~16일	봄산신 3일 기도 회향 기념으로 충북 진천 보탑사 순례
3월 20일	문수나한 33일 기도 입재

"법인법 쟁점 사항 조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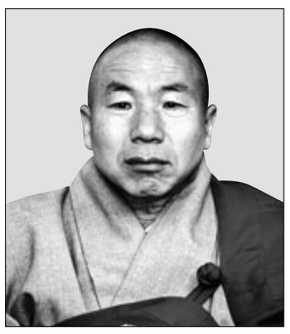
조계종 종회의장 향적스님

12일 신년간담회서 밝혀

법인법, 종도들 공감대 낮아

집행부와 협의 마무리 노력

"종정 스님 도움도 필요해"



조계종 종회의장 향적스님

조계종 현안 중 하나인 법인법에 대해 조계종 종회의장 향적 스님〈사진〉이 원만한 조율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오는 3월 종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과 법계위원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종헌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16대 종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2월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종회 종무 방향을 비롯해 그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법인법에 대해 향적 스님은 "법인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시행이 미비하고 종도들의 공감대도 낮다"면서 "법인법 논란은 총무원이 선학원, 대각회 등과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스님은 "선학원 법인 이사 3분의 1 이상을 조계종 스님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쟁점인 만큼 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선학원 특위가 아직 해체되지 않은 만큼 15대 종회에서도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정 진제 스님의 주석처인 부산 해운정사는 선학원 등록 사찰인 만큼 선학원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종정 스님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선학원 특위원장 성직 스님에게도 이 같은 부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5대 종회의 가장 큰 성과로 스님은 출가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단기출가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향적 스님은 "출가자 감소는 현대 불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면서 "종단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출가 종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올해 종회에서는 출가 종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종회 활동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종도들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후반기 종회의 경우 차기 종회의원 선거가 있어 의정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는 16대 종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오는 3월 18일 5일 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97회 종회에서의 쟁점 사안인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종헌 개정안은 통과를 기대했다. 향적 스님은 "비구니 갈마는 비구니가 해야 한다는데 종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3월 종회 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종회의원들의 잇단 승풍실추에 대해서는 윤리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스님은 "현재 호법분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위가 3월 종회 전 의장단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학원-수덕사 '정혜사' 운영권 갈등

선학원 "재무 인수인계" VS 수덕사 "협조 수용 불가"

예산 정혜사의 사찰운영권을 놓고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과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지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선학원은 정혜사에 2월 3일 시행문을 통해 동안거 해제일인 14일 정혜사의 사찰운영권을 인수인계 받겠다는 요지의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학원은 지난해 1월 수덕사 측에 "조계종 덕숭총림 임회가 가지고 있는 정혜사와 간월암의 창건주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9월에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덕숭총림 임회의 정혜사와 간월암 창건주 권한을 취소하고 사고사찰로 지정했다.

이에 수덕사는 선학원의 예산 정혜사와 서산 간월암에 대한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수덕사는 "향후 더 이상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한 선학원의 부당한 분원장 임명이나 분담금 부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찰에 대해 선학원이 인수인계를 통보하고 나서는 것은 근본정신을 잃고 재산에만 관심을 가진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학원은 협조 공문이 '사찰 접수 기도' 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선학원 관계자는 "단순히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하려 한 것이고, 등록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이 공문의 요지"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물리력을 동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만공 스님이 창건한 정혜사는 수덕사 말사이자 선학원의 분원으로 중첩 등록돼 있다. 현재 설정스님이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발전위 출범, "중흥 계기로"

2월 10일 각계인사 70여명 망라해 구성

"종교를 초월해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불교 속에서 태고종 만의 특색을 널리 알리는데 데 앞장서겠습니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2월 10일 태고종 총무원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태고종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종단쇄신과 불교문화 창달의 뜻을 모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금실 前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정찬용 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장,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 강용수 창원대 명예교수, 최행식 원광대 교수 등 70여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문희상 민주당 국회의원, 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 외 정관계 인사들이 고문 및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산 스님은 "사회교화와 불법홍포의 새 도약의 계기로 원융살림을 살리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태고종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태고종이 우리 사회의 종교적 소명의식에 앞장서고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더 높이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한명 한명이 태고종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다짐해달라"고 말했다.

부의장을 맡은 최행식 교수는 "태고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오늘 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투쟁 노동자 위한 전용 법당 만든다

조계종 노동위 신년계획 발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노동자들의 쉼터가 될 전용 법당을 마련한다. 또한 불교계의 뇌관과 같은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도 나선다.

노동위는 2월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날 노동위는 노사분규 지원을 비롯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법회 및 천도재 △노동문제 불교적 해법 연구 △노동자 법당 추진 △일반회원 가입 유도 등을 올해 중점 사업 계획으로 내놨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전용 법당 추진이다. 위원장 종호 스님은 "전용 법당에 대한 의견이 불교계 안팎으로 높게 나왔다"면서 "법당에서 노동자 심리 상담, 명상, 경전 공부 등을 상시 진행할 수 있는 노동자 상설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는 올 하반기 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법당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불교계 내부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공양주, 부목 등 불교계 내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급여와 고용형태, 4대 보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종호 스님은 "사찰마다 워낙 여건이 달라 사회의 노동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표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회원 가입을 통한 조직 확장도 나선다. 종호 스님은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노동위와 일반 노동자들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올해 일반회원 100명 이상 확충으로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의 의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 종무원 교육 기부금 예규 변경 보고

조계종, 첫 교구본사주지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의 2014년 첫 회의가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1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 △기획재정부의 49재 등 기도비 기부금 포함 예규변경 △사찰 종무원 교육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중점 종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3월 결산종회를 앞두고 종단에 여러 가지 현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안건을 주의깊게 보시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양성전문강원

2014(불기 2558)학년도 상원사 부설 삼학불교강원 학인모집 안내

사정상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에 뜻을 두고 있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 강원 과정의 교육을 개설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과과정안내

과정	교육기간	교과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고
		1학기 (5개월)	2학기 (5개월)			
치문반	1년	초발심자경문 승가율의	치문	매주 월, 화	*1교시 : 오후 6:00 ~ 오후 7:30 *2교시 : 오후 7:40 ~ 오후 9:10	2014년도 개강
사집반	1년	도서, 선요	서장	목, 금	2015년도 개 강	
사교반	2년	금강경오가해	대승백법명문론 / 원각경	목, 금		
		대승기신론	능엄경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3일(목요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수 강 료 : 1학기당 40만원
◆ 접수문의 : ☎ 02)833-0374, 833-0375
Fax. 02)834-0789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 찾아오는 길 ① 전철 2호선 8번 출구 → 대동초등교 → 관악농협 맞은편
② 전철 7호선 11번 출구 → 대동초등교 → 관악농협 맞은편
◆ 한문이 익숙하지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본 강원은 초종파 강원으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상원사 주지 강법정
삼학강원 강주 박도종 합장

1700년 한국불교문화 디자인 날개를 달다

6회 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자 발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제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의 수상자 37명을 2월 12일 발표했다.

대상 중 전문가 부문에는 성외순의 '연화등잔' 이, 일반 부분에는 정기란의 '마음을 열다– 사천왕 페이퍼 토이' 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전문가 부분 수상자에는 1000만원이, 일반 부문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화등잔' 은 연꽃형태의 등잔에 불교적 감성이 잘 어우러진 공예작품으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으며, '마음을 열다– 사천왕 페이퍼 토이' 는 사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천왕을 페이퍼 토이로 제작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문화를 재미있게 재탄생시켰다는 데 큰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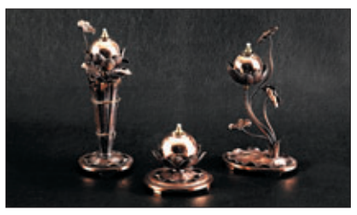
이 밖에도 우수상에는 연꽃을 테마로 한 '연봉매듭 브로치(이선주)' , 목탁 모티브의 자물쇠 '똑!똑!똑(이석진)' 이 각각수상했다.

또한 최현철의 단청무늬를 응용한 우산 '비오는 날의 풍경' 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200만원), 양정욱의 촛대꽂이 '기와 그리고 빛' 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00만원), 방상미의 다도용 보자기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는 한국디자인기업협회상(100만원)에 선정됐다.

불교 문화유산을 재조명한 다양한 상품 발굴과 내 ·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총 580개 작품이 접수돼 단일공모전으로는 최대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3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제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전문가부문) 수상작 성외순의 '연화등잔' <사진 위>과 대상(일반부문) 수상작 정기란의 '사천왕 페이퍼토이' .

수좌들 '不息寸陰' 원력 안고 세상속으로

쌍계총림 쌍계사 금당선원 동안거 해제 현장을 가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성조)는 진감 스님이 육조 혜능 선사의 남종 돈오선을 신라에 처음 전법한 도량이자 차의 발상지이며, 해동 범패의 연원이다. 선(禪)과 차(茶), 음(音)의 성지인 쌍계사가 지난해 총림으로 신규 지정된 것은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총림으로서 면모를 달리하고 있는 쌍계사에는 오랜 선원이 있다. 바로 금당선원이다. 722년(신라 성덕왕 21)에 대비, 삼법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육조 혜능의 정상(頂相)을 가져와 모신 자리에 세워졌다. '육조정상 해동 봉안설' 의 근원지가 쌍계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웅전 오른쪽으로 돌아 옥천교라는 다리를 건너면 곧 금당선원의 권역에 이른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오르면 곧 금당을 만날 수 있다.

'금당(金堂)' 이라는 편액을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가 쓴 '세계일화 조종육엽(世界一花 祖宗六葉)' 이란 편액이 함께 걸려있다. 편액만으로도 금당선원이 가진 정진의 무게가 남다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당을 좌우로 동방장(東方丈)과 서방장(西方丈)으로 나뉘어 있는 선원에서는 이번 안거 한철 17명의 스님들이 은산철벽을 부수기 위한 정진을 거듭했다.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도 틈틈이 수좌들과 함께 정진하며 이들을 독려했다.

고산 스님은 안거 기간동안 수좌들에게 주문한 것은 계 · 정 · 혜 삼학을 기본으로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산 스님은 2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행이 청정하고 선정을 가지면 지혜가 나오는 것"이라며 "계 · 정 · 혜 삼학은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근본 도리"라고 강조했다.

동 · 서방장 나뉜 선원서
17명 수좌들 용맹정진

방장 고산 스님 손수 지도
'쉼 없이 정진' 이 고산 가풍
"계 · 정 · 혜 기본으로 정진"

쌍계사를 지금의 사격으로 올려놓은 것은 모두 고산 스님의 원력이다. 금당 선원의 동 · 서방장을 복원한 것도 고산 스님이다. 그만큼 선원의 가풍도 스님의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고산 스님의 수행가풍은 어떤 것일까. 스님은 '불식촌음(不息寸陰)' 이라고 단박에 답했다.



쌍계사 금당선원에 방부를 든 수좌들이 산문을 나서고 있다.



2월 13일 해제를 하루 앞두고 방장 고산 스님과 대중들이 마지막 정진을 하고 있다.

"촌음이 무엇이냐. 잠깐의 시간을 말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고산 가풍' 입니다. 수좌도 기도하는 사람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됩니다. 한철 깨달음을 위해서는 정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고산 가풍' 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방장이다. 서방장은 24시간 용맹정진을 하는 곳이다. 이번 안거에도 한 명의 수좌가 석달 열흘을 장좌불와(長坐不臥) 정진을 했다. 반면 동방장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방장과 서방장의 인원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고산 스님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동결제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운수납자들에 대한 고산 스님의 당부도 한결 같다. 계 · 정 · 혜 삼학을 기본으로 방심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다.

"산철이라고 해서 특별히 당부할 것은 없어요. 석달 동안 공부하고 난 뒤 들은 의문을 전국의 선지식에게 물어보십시오. 선지식들이 알아서 그 길을 일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은 계 · 정 · 혜 삼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파에 휩쓸리지 말고 계 · 정 · 혜 삼학을 기본으로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일까. 금당선원에 방부를 들었던 수좌들의 표정은 한결같다. 해제 이후 계획을 물어보니 "선지식을 찾아가겠다", "달라질 것 없이 정진하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내 걸망을 짊어 맨 수좌들이 다시 만행(萬行)에 오르기 위해 금당에 모셔진 '육조정상탑' 에 참배를 올렸다. 육조 혜능 스님의 오도송이 적힌 금당의 주련이 만행에 오르는 수좌들에게 또 다른 해제 법문으로 다가온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니요/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라네/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 /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나랴.(菩提本無樹 明鏡亦非帶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하동 쌍계사=신중일 기자

남북통일 위해 불교NGO 손잡다

통일불교기획단 창립총회
남북철도 연결 사업 매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불교계 모임이 출범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인권위원회, 정희평화불교연대 등 불교단체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하 불교실천기획단)은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와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불교실천기획단은 상임단장에 진관 스님, 공동단장으로 법응 스님, 이수덕(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 조영건(경남대 명예교수)씨를 선임했다.

진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절박한 것은 평화"라며 "불교도가 나서 분단 조국을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는 서원을 세워 평화 염원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지난해 종단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불교실천기획단이 경색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창립을 축하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은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와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실천기획단은 향후 통일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륙재를 봉행한다. 또한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계획중이다.

불교실천기획단 자문위원으로는 우송(신흥사 주지), 정념(월정사 주지), 범각(대흥사 주지), 종훈(총무부장), 원명(호법부장), 보화(사회부장), 지원(문수사 주지) 스님이 위촉됐으며 기획의원으로는 웅산(화암사 주지), 혜만(자제암 주지), 마가(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스님과 이원영 수원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진철문 동국대 교수가 동참했다.

한편 창립식에 이어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법응 스님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과 과제' 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템플스테이 이젠 교양 과목으로 수강

불교문화사업단 · 동국대, 2월 10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에서도 템플스테이를 교양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은 2월 10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력으로 양 기관은 불교문화사업을 통한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불교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계획이다.

특히 불교문화사업단과 동국대학교는 불교문화 관련 강의 및 프로그램 개발, 재학생과 외국인 학생 대상 전통불교문화 강좌 개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약속했으며, 동국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템플스테이 관련 교양강좌를 정규편성해 현장실습과 이론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동국대학교는 한국불교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후대에 전하는 일선에 있는 만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불교문화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2월 10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약' 을 체결했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에 한국불교문화를 전하는 총아로써,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사업단과 동국대의 역량이 결집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교육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일 주 문



법화산림대법회 법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3월 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리는 법화산림대법회에서 법사로 법문한다.



마곡사 3월 성지순례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3월 16일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월드머시코리아 2014정기총회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은 2월 27일 여의도 포교원에서 2014월드머시코리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784-9136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선임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12일 임기 2년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선임됐다.



불교포럼 창립 2주년 기념법회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는 2월 12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창립2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여성불교연합회 제8대 회장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 회장은 2월 8일 서울 여불련법당에서 열린 제1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관장에 덕운 스님



조계종 첫 해외복지 시설인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 관장에 덕운 스님이 임명됐다. 스리랑카 조계종복지재단 이사장 자승 스님은 신임 관장 덕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관장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은 조계종 최초의 해외복지시설로 지난 2008년 7월 완공됐으며 서울 도선사가 위탁사찰로 매달 운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운 스님은 선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5년 보성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12년 고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고 2012년 2월 통도사 강원,2014년 2월 해인사 해인율원을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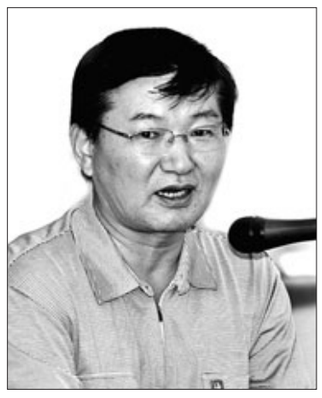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인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원 보직 발령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사회대학장 박병식 △의과대학 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남경수 △의과대학 부학장 권범선 △의과대학 부학장(연구) 문일수

"불교 가르침, 방송으로도 펼칠 것"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 신임 회장(KBS 편집위원)



주요일간지 연합회 참여 과제 제시
중앙·지역 네트워 활성화, 신행 배가
신임집행부 정기오찬으로 교류 진행

최근 조계종 언론사불자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일태 KBS보도본부 편집위원은 "불교인으로서 불자언론인 회장 된 것이 영광스럽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임 강상구 회장에 이어 맡게 된 정일태 회장(법명 보광)은 경북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KBS 공채 14기 기자로 입사했다. 정 회장은 KBS 대구방송총국 보도국에서 기자, 팀장, 보도국장으로 일했으며, KBS본사 시청자권익보호국 시청자사업본부장, 포항방송국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업무 중에도 언론사불자연합회 총무를 맡는 등 언론인들의 신행생활을 챙겨왔다.

정 회장은 언론사불자연합회의 새로운 과제로 주요 일간지의 연합회 참여를 꼽았다.

정 회장은 "언론사불자연합회의 구성을 보면 KBS 100명 정도, MBC가 90명, SBS가 30명, BBS불교방송이 20명 정도로 방송 분야에는 불자조직이 어느정도 구성된 상태"라며 "하지만 일간지는 경향신문 만이 40명 규모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언론인들의 신행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주요일간지 또한 연합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임기 동안 일간지와의 소통으로 회원사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KBS 또한 150명 규모로 회원을 확보하겠다"며 "KBS불자회의 경우 기술 파트와 행정 파트가 주축인데 이 파트 외에도 다양한 파트의 사람들을 영입해 활발한 신행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언론사불자연합회의 활동은 지역불자회와 중앙 간의 네트워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소통을 위해서 여의도 포교원에서 하는 정기법회 외에도 신임집행부들이 매월 첫째 목요일 오찬을 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가질 계획"이라며 "사회 각 사안에 대해 봉사활동을 비롯한 자비구현의 모습을 언론인들이 힘을 합쳐 보여줌으로서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끝으로 "조직활성화를 꽤한 뒤에 총무원의 지원을 받아 일반 불자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종단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한편, 언론사불자연합회는 오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포교원(원장 현진)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언론사불자연합회는 지난 2004년 10월 KBS·MBC불교연구회, SBS법우회, 경향신문 불자회 회원 등이 모여 창립했다. 지상파 3사와 불교방송, 경향신문 등에서 근무하는 언론인 불자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KBS연구동 안에 있다. 지난해 말 조계종 신도단체로 등록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소외 계층 살피고 사찰을 힐링 공간으로"

동두천불교연합회, 12일 회장 혜만 스님 취임 법회



동두천불교연합회장에 취임한 혜만 스님(자재암 주지)이 동두천시장에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동두천불교연합회는 2월 12일 동두천 유림관광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신임회장 혜만 스님 취임식 및 자비나눔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회장 혜만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사부대중 모두의 힘이 합해져야만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모든 역량을 다해 동두천불교연합회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동두천불교연합회가 자비를 실천해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시민들이 사찰에서 편하게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시와 협조해 '다문화가정 품에 안기' 사업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축사에서 "동두천불교연합회가 동두천발전에 큰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도 앞장서 실천해주시고 있다"면서 "새롭게 회장 스님을 모신 만큼 동두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기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영산 법화사 주지 도유 스님, 오세창 동두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의장, 김성옥 자재암 신도회장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혜만 스님은 동두천시장에게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혜만 스님은 철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율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과 상임감찰, 사회부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법부 호법국장, 자재암 주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동두천경찰서 경승실장, 의정부교도소 교화위원 등 불교계 안팎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신중일 기자

"통일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

조계종 민추본 월례 정기강좌 개최



정창현 교수 초청 첫 강의 열어
매월 통일문제 주제로 특강 진행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조계종 민추본)가 첫 통일 월례 정기강좌를 개최했다. 민추본은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추본 정책기획위원·사진)를 초청 2월 12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첫 강좌를 진행했다.

'남의 통일대박, 북의 중대제안 그리고...'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이면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 관계를 전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통일'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취임 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급진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필두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DMZ평화공원 조성은 물론 실크로드횡단철도 등 대북 관련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한편, 민추본은 앞으로 매월 남북 간 정세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월례 정기강좌를 연다. 강좌는 매 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및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내용들이 다뤄진다.

민추본은 "월례 정기강좌를 통해 불자들에게 남북 간 정세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탑골공원 어르신 떡국 보시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이 1월 27일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200여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학명 스님은 "우연히 원각사 앞을 지나가다 어르신들이 빵으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노인 대중공양에 발심이 생겨 시작한 것이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성불사 신도회 봉사단과 함께 떡국 대중공양과 양말선물을 준비한 학명 스님은 "이런 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은 1976년 성불사 창건 후 지금까지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5000명 성불사 불자들은 군법당 위문품 전달은 물론, 소외 이웃을 위해 겨울맞이 연탄나눔, 쌀과 라면 나눔 등 다양한 보시행을 전개해 왔다. 2001년 성불사에 벽담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돕기운동, 구치소 교화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힘쓰고 있다.

노덕현 기자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학인모집

누군가는 가야할 길을 새롭게 열어 가는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은 분들을 모십니다.

- 佛典(불교경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漢文이 필수라고 깊이 인식하는 사부대중
- 공부에 즐거움과 보람이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부대중
- 앎과 삶, 지식과 신행의 일치를 지향하는 사부대중
- 漢文을 제대로 익힌 바탕 위에 불교 이해의 틀을 세우고자 하는 사부대중
-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부대중
- 수행 공동체에는 양보와 타협, 조화가 필수임을 깊이 공감하는 사부대중

❖ **지원자격**
- 본방생(2년) : 기본교육기관 이수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비구·비구니 (2014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포함)
- 청강생(2년) : 통학이 가능한 비구 비구니 신심이 돈독한 불자

❖ **모집인원** : 본방생 00명. 청강생 00명

❖ **모집일정** : - 전형 및 면접감마일 : 2014년 3월 6일 오후 2시
- 면 접 장 소 :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보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승려증(승적증명서) 사본
-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소개서 - 사진(3×4) 5매

❖ **문 의 처** : 휴대폰 010-3718-8090 (학감스님) / ☎ 054)429-1700 (직지사종무소)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원장 지안 합장



혁신적 포교 콘텐츠 개발…“사찰·단체 폭넓게 이용하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에게 듣는 성과와 과제
“3000여 자비 나눔 공동체 설립 임기 중 목표”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포교 종책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포교원이다. 현재 포교원을 이끌고 있는 제6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신도단체 관리 지원, 전법단 지원, 신도교육, 신도조직화, 계층포교, 포교콘텐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포교사업의 성격상 투자를 열심히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머리를 풀었다. 그만큼 디테일한 아젠다가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단시간 사업 성과로 부서의 장단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포교원은 지난해에만 계층별 명상 관련 치침서 · 워크북을 비롯해 가족법회 매뉴얼 2종, 사찰지역친화 포교방안 연구보고서와 유아 · 청소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했으며, 한반도 정전 60주년 평화 행사를 종단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포교연구실에서 발간한 여러 지침서와 매뉴얼들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포교 콘텐츠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만나 지난해 포교원의 성과와 과제, 올해 계획들을 상세하게 들어봤다.

지난해 포교원은 여러 사업들을 전개했다. 주요성과를 정리한다면.

포교원은 두드러진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포교신도단체와 전법단의 관리 지원을 비롯해 신도 교육과 조직화, 계층포교, 포교 콘텐츠 연구 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교원은 일상 업무를 축적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일반 포교사 713명과 전문포교사 61명이 자격고시를 통해 최종 선발됐으며, 불교상담심리사는 12명(1급 2명, 2급 10명), 국제포교사 37명이 합격했다.

전법단은 기존 활동 중인 7개 전법분야(병원, 경찰, 군, 대학생, 교정교화, 장애인, 체육)에 이어 국제, 어린이 · 청소년분야 2개가 새롭게 구성돼 활동 중이다.

청년 · 대학생 포교활성화를 위해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콘서트를 진행하고 대학교 동아리 법당 보수와 새내기 모집 포스터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변화하는 포교 환경에 대한 종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찬회도 시행했다.

한반도 정전 60주년 평화행사를 종단적으로 시행한 것도 성과다. 범어사 새해맞이 법회를 시작으로 위령수륙재, 한국주재 UN외국대사 초청 만찬, KBS열린음악회,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 등을 개최하여 포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다양한 포교 콘텐츠들도 개발한 점도 눈길을 끈다.

포교원 산하 포교연구실의 성과다. ‘사찰의 지역친화 포교방안 수립 연구보고서, 한글의례의식집(CD)을 완료해 보급했으며, ‘응답하라 아바로’ 어린이 유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포교원 M-Library’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포교원 M-Library’는 포교원 소식과 행사, 법회, 포교관련 자료, 경전 자료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도서관을 의미하며,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눠 활용할 수 있다.

‘응답하라 아바로’는 동자승이 제한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관세음보살의 42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이다. 초기 화면에 만화를 삽입해 관세음보살 이야기에 몰입도를 높여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상담이 있는 명상〉 등의 지침서와 〈명상과 함께하는 분노조절 프로그램〉 지침서와 워크북을 개발했으며, 한

포교 DB ‘M-라이브러리’
‘108이야기’ 등 개발 성과
‘지역 전법 활성화’ 올해 기조

마음과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꽃을 피우는 나무-초등용, 중등용〉 보급에 주력했다. ‘가족법회 활성화 프로그램(2개 유형/PPT 5종)’과 ‘가정에서의 가족법회 활성화 프로그램(7개 유형/PPT 1종)’을 개발한 것도 주요한 성과다.

또한 사찰의 지역친화 포교방안 수립 연구서도 남다른 가치를 가진다. 도-농 사찰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포교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 연구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포교원은 포교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포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일선 사찰과 단체가 폭넓게 이용하길 바란다.

올해 포교원은 ‘지역 전법 토대 구축’을 천명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무엇인가?

지역은 구체적인 포교의 장으로 중앙과 지역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은 명약관하하다. 올해는 인천지역, 울산지역, 충남 서부지역 등 3~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현황을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교역량으로 볼 수 있는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인력을 정리하려 한다.

먼저 지역현황 공유와 간담회 의제를 도출하는 사전간담회를 진행한 후 지역현황에 대한 공유와 각각의 역할 속에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시작한 국민 힐링 투어 사업은 금년 지역 전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포교원이 시작한 ‘국민 힐링 투어’는 자존감을 회복해 지역 주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하려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단체들이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포교원에서 직접 주최하기 보다는 2월 11일 소방방재청 직원 교육에 불교계 명사 초청 강의처럼 필요한 곳에 요청이 있거나 지역전법네트워크가 성과가 있어 지역 단위에서 요청이 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도품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신도품계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2011년 신도품계 제도가 제정됐지만 아직 정착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언론 매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를 알려왔으나 아직은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찰의 역량이나 현실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품계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사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과 신행, 봉사 활동이 활성화돼야 하며 신도회 구성 및 활동 독려 등 주지스님의 원력이 요구되며 신도 스스로 신행 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포교원은 총무원, 중앙신도회와 함께 TFT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신도 종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포교원의 장기적 종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달라.

올해 포교원은 ‘사찰과 교구, 지역전법 중심 토대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반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포교원장으로서 최종적인 목표는 자비 나눔 공동체를 3000개가량 만드는 것이다. 굳이 큰 공동체가 아니라 5명 이하의 소규모 공동체라도 좋다.

불교의 기본은 ‘자비 나눔’이다. 불자들이 스스로 자비 나눔 공동체를 구성해 포교하고 봉사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면 그곳이 바로 불국토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포교종책 개발과 관리 · 지원에 매진하겠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 전법 토대 구축’을 올해 기치로 세운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최종목표로 “자비나눔 공동체 3천 개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이 만든 다양한 포교 콘텐츠들. 일선 사찰과 포교단체에게 유용한 콘텐츠다.

2013년 포교원 부서별 주요성과

포교팀
포교 지평 넓혀

2013년에는 일반포교사 713명, 전문포교사 61명, 불교상담심리사 12명, 국제포교사 37명 등 다수의 포교사가 배출되는 한해였다. 또한 종단에서 지원하는 국제불교 학교 1기 졸업생들이 면접을 통해 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를 탄생시킨 원년이기도 했다.

전법지원팀
다양한 현장 지원 성과

전법단은 병원, 경찰, 군, 대학생, 교정교화, 장애인, 직능 · 체육 등 기존 활동 중인 7개 전법분야에 국제, 어린이 · 청소년분야를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장애인전법단에서 제작한 수화동영상은 장애인 포교에 지평을 넓혔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 14곳을 선정해 장학결연사업 및 포교물품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했으며, 서울 광림사와 화계사를 장애인 전법 중심도량으로 추가 지정해 특수계층 분야의 포교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신도팀
종단 신도증 일원화 추진

포교원 신도지원팀은 현재 사찰신도증과 종단 신도증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봉은사와 통합신도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서울지역 주요 사찰을 우선으로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지난 해 언론사불자연합회 및 메트로불자회의 등록과 함께 올 1월 예비역장성불자회가 등록하면서 현재 13개 신도단체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포교연구실
전문 콘텐츠 양산의 산실

포교연구실은 201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포교종책 생산’ ‘신도교재 개발 연구’ ‘포교프로그램연구 개발’ 등의 주요 사업을 전개했다.

청소년 심성계발 프로그램에도 주력, 적경 스님의 〈상담이 있는 명상〉 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했고, 〈명상과 함께하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지침서와 워크북을 개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에 대해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4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운영 완료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연등시공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사찰명 인쇄 접수중 마감임박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팔각주름등



연꽃만월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 화 연 등



정품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볼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 화 031)526-2201 / 031)526-2202

전국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한창'

올해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중 111곳 개강


전국 불교대학들이 2014년 강좌를 개설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료사진=현대불교〉

전국의 불교대학들이 2014년을 맞아 재가불자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인가받은 111곳의 불교대학이 3월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대학은 주간반을 비롯해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과 주말반 등을 함께 운영해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에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은 1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간 96시간 이상을 들어야 한다. 필수과목으로는 〈불교개론〉과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하며, 선택과목으로 〈금강경〉과 〈천수경〉〈법화경〉〈금강경〉 등의 불교경전 강의와 함께 포교방법론과 현대사회와 불교, 초기불교, 대승불교, 한국불교사, 지역문화의 연구, 비교종교학 등 각 불교대학마다 특화된 과목을 추가해 강의하고 있다.

불교대학을 졸업하려면 강의를 80%이상 수강하고 4시간 분량의 종단 필수 연수를 수료하고 종단 신도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하면 조계종 일반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어 조계종 포교사로서 포교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도교육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대학 111개 대학 가운데 72개 대학이 졸업보고를 완료했고, 3352명이 졸업과 함께 부동품계를 품수 받았다. 이 가운데 713명이 일반포교사로, 61명이 전문포교사로 최종 선발돼 활동 중이다. 불교대학 졸업 후에는 '불교대학원'에 입학해 불교를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까운 사찰 및 신도 단체에서 1·2학기 과정으로 나누어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고 있어 기초교리와 함께 다도·명상, 불교문화 등을 들을 수도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포교원은 사이버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조계종 디지털대학(http://www.edubuddha.net/)' 이나, 삼보사이버불교대학(http://cyber.sambobuddha.org/) 등 사이버불교대학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대학현황

불교대학명	전화번호	주 소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09	서울 신정6동 국제선센터 內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서울 망우동 극락사 內
길상사불교대학	02-3672-0036	서울 성북2동 길상사 內
봉은불교대학	02-3218-4823	서울 삼성동 봉은사 內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서울 석촌동 불광사 교육관 內
삼보불교대학	02-352-6406	서울 역촌1동 삼보사 內
서울정각원 불교대학	02-2260-3018	서울 필동 동국대학교 內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서울 갈현동 수국사 內
연화불교대학	02-962-6186	서울 회기동 연화사 內
조계사불교대학	02-768-8600	서울 견지동 조계사 內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서울 진관동 진관사 內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서울 시흥2동 호압사 內
화계불교대학	02-997-6469	서울 수유1동 화계사 內
고양 길상사불교대학	031-966-98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구름산불교대학	02-899-0408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 內
김포불교대학	031-980-7753	경기도 김포시 중앙승가대학교 內
대덕사불교대학	031-283-3655	경기도 용인시 대덕사 內
묘적사불교대학	031-576-0784	경기도 남양주시 묘적사 內
보문선원불교대학	031-401-2540	경기도 안산시 보문선원 內
봉녕사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경기도 수원시 봉녕사 內
봉선사불교대학	070-8802-1953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內
봉영사불교대학	031-571-0555	경기도 남양주시 봉영사 內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	경기도 안양시 지장선원 內
용주사불교대학	031-221-2324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內
자재암불교대학	031-865-4045	경기도 동두천시 자재암 內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48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 內
강화불교대학	032-937-0025	인천 강화군 전등사 內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인천 남구 수미정사 內
나란다불교대학	032-434-993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불교회관 內
인천불교대학	032-576-9741	인천 서구 가좌동 법명사 內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강원 강릉시 금학동 관음사 內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강원 동해시 삼화동 삼화사 內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강원 속초시 영랑동 원각사 內
원주불교대학	033-732-4800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구룡사 內
월인불교대학	033-436-6624	강원 홍천군 동면 수타사로 수타사 內
각원사불교대학	033-339-6623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 內
마곡불교대학	041-841-6221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內
보문사불교대학	041-545-6531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보문사 內
서광불교대학	041-664-2002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광사 內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충남 보령시 주교면 세원사 內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10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內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대전 중구 선화동 만불선원 內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대전 서구 둔산동 웅진빌딩 3층
수덕사대전불교대학	042-222-1159	대전 중구 대흥동 정수사 內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대전 서구 갈마동 통도사대전포교원 內
법주사불교대학	043-542-4200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포교당 內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충북 충주시 직동 석종사 內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직지불교대학	070-7675-10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청주불교문화대학	043-256-6254	충북 청주시 상당구 관음사 內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용화사 內
고심정사불교대학	051-464-8450	부산 중구 중앙동 고심정사 內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부산 서구 서대신동 내원정사 內
로터스불교대학	051-853-8539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불교신도회관 內
범어사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안국선원교육관 內
불지불교대학	051-816-2241	부산 부산진구 통도사부산포교원 불지사 內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부산 동구 수정1동 대성빌딩 3층
여여불교대학	051-853-5486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여여선원 內
영주암불교대학	051-754-2210	부산 수영구 망미동 950번지
원각불교교육대학	051-752-6624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민프라자 6층
인과불교대학	051-704-0332	부산 해운대구 좌동 처님마을 內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부산 금정구 두구동 홍법사 內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울산 남구 옥동 정토사 內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울산 남구 신정2동 성수빌딩 6층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49	울산 중구 학산동 황룡사 內
여여불교문화대학	052-267-0108	울산 남구 신정동 여여선원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대구 수성구 욱수동 불광사 內
관오불교대학	053-472-0108	대구 남구 이천동 관오사 內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대구 중구 남산2동 보현사 內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대구 남구 대명2동 불교대구회관 5층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 內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대구 남구 봉덕3동 대관음사 內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경북 구미시 봉곡동 화엄탑사 內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2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직지사 內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경북 구미시 남통동 남화사 內
문경불교대학	054-552-7006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김룡사 內
불국사불교대학	054-746-2211	경북 경주시 성건동 불국사문화회관 內
안동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경북 안동시 목성동 대원사 內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경북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內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8,9	경북 봉화군 물야면 축서사 內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경북 포항시 북구 죽림사 內
경남불교대학	055-266-8150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하이페르 14층
구룡사불교대학	055-294-3279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구룡사 內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광사 內
도성암불교대학	055-533-2073	경남 창녕군 창녕읍 도성암 內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경남 밀양시 가곡동 용궁사 內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사 內
불지수다라불교대학	055-262-666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불지사 內
비사벌불교대학	055-533-2295	경남 창녕군 창녕읍 통도사창녕포교당 內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정법사 內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055-275-322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진불선원 內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8-4 3층
통도사불교대학	055-382-7182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內
통도사전법회관불교대학	055-387-0108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71-5
강진불교대학	061-434-778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룸비니유치원內
목포불교대학	061-285-0576	전남 목포시 상동 1141-1 대성빌딩 3층
삼호불교대학	061-461-121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축성암 內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 內
완도불교문화대학	061-554-263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신흥사 內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內
광주불교대학	062-375-7633	광주 서구 치평동 향림사 內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광주 동구 중앙로 202 현대예식장 3층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8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內
남원불교대학	070 8881 0108	전북 남원시 도통동 선원사 內
이리불교대학	063-842-6652	전북 익산시 갈산동 관음사 內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참좋은우리절 內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불교회관 內
서귀포불교대학	064-733-8882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696-2번지
제주불교문화대학	064-724-6830	제주 제주시 아라1동 387 관음사 內

취약계층 심신건강 지원 확대 및 1학기 강좌

풍경소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해 새로운 도약 준비"


풍경소리는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명상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명상문화강좌를 진행해온 풍경소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의 심신건강을 지원하고 장터를 개설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0일 조합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한 풍경소리는 현재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명상을 통한 취약계층 심신건강 지원 사업과 풍경소리 학교 운영 및 장터 개설 등 상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풍경소리는 "자기치유와 성장을 도모하는 여러 명상 강좌들과 학습코칭·대화법 등 부모를 위한 강좌, 영어회화·글쓰기·스피치·동양화·팔괘장 등 취미를 통한 자기계발 강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발판 삼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명상을 통해 현대인들의 심신건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문화소외계층에게 공공복리적 혜택을 제공하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최적의 조직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성북구 동소문동으로 자리를 옮긴 풍경소리는 2014년 3월 1학기 강좌를 개강, 명상과 심신치유를 기본으로 접목시킨 다채로운 강의들을 새롭게 선보인다.

풍경소리학교 대표 강좌인 '명상심리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비롯해 '마음챙김(sati)명상교실' 입문·전문반의 코스가 진행된다.

지도사 과정은 1·2급으로 나누어져 해당 급 당 400시간의 교육 및 수련 시간을 이수 한 뒤 자격검정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격을 취득한 지도사는 조합과 제휴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전국임대아파트 임차인연합회 등과 풍경소리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밖에 풍경소리는 △쉼표 하나 마인드힐링 교실(이한상) △송탁스님의 마음 배우기 △알아차림과 자기치유(곽은구) △성격탐험 에니어그램(이윤정) △학습코칭, 마음을 여는 대화법(이윤정) △방송작가와 함께하는 마음 글쓰기(조혜영) △소울잉글리쉬(임수연) △마인드업! 힐링스피치(손화신) △몸과 마음 반반씩 치유요가(김성은) 등 나를 찾는 강좌를 심도 있게 진행한다. (02)736-5583

이나은 기자

원네스 치유명상으로 가족문제 해결

원네스 명상센터,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

세계적 명상 프로그램인 '원네스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원네스 명상센터가 가족 간 갈등을 겪는 이들을 지도·상담해주는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원네스 명상센터(센터장 혜산)는 2월 22~23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을 진행한다.

가족세우기는 독일의 헬링거 심리학 박사가 정신분석, 게슈탈트 이론, 가족치료 등을 통합해 계발한 가족심리치료로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가족 형태치유 프로그램이다.

가족세우기 과정은 가족, 직장, 금전,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경우 가족세우기 가족치료 자격증이 수여된다.

혜산 스님은 "가족세우기란 개인 심리, 신체적 문제 얽힘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갈등과 그 원인을 가족체 또는 근본에서 찾아 치유하는 방식이다. 가족세우기를 통해 자기자신이 명료한 명상 상태를 경험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풍요와 번영 및 관계치유의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네스 명상센터는 매월 14일 '원네스 깨어남코스' 무료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코스에서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삶의 각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법칙에 대해 배우게 된다. (010)4114-6600

이나은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노인권익 · 문화활동 · 취업훈련에 진력”

서울노인복지센터, 2014 신년사업계획 발표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 ‘플라이 대디(Fly Daddy)’가 2월 11일 노인복지센터서 열린 탑골미술관 기획전 ‘시간의 둘레길’ 개막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있다.

민생상담 · 정책참여 등 권익 ↑
‘탑골 미술관’ 연중 전시 계속
바리스타 · 펫시터 등 취업훈련 多

어르신들의 즐겨찾기 리스트에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추가될 듯하다. 지난 해 사회복지시설 최초로 관내미술관을 개관한 데 이어 노인영화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2월 11일 관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중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간만들기’를 목표로△노인권익옹호 △만발공양 가치실천 △문화가 살아있는 공동체 공간 △노인사회참여 △건강예방 △세대통합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취업훈련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들의 권익 강화 사업이 강화된다. 희유 스님은 “어르신들을 단순히 봉양 대상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담과 캠페인, 만발공양 사업등을 통해 노인들의 권리찾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에게 민생침해, 생활, 치매, 법률, 세무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서울시정책모니터링단에 참여해 노인정책자문역할을 하는가 하면 동년배상담가인 ‘또래지킴이’를 양성해 자살예방, 성인권, 민생상담가로 상담영역을 전문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 끼니 마다 백원을 기부할 수 있는 백원식당을 도입해 만발공양 가치실천을 통한 봉사와 나눔문화를 형성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노인영화제 출품작을 바탕으로 노인을 둘러싼 생각을 교류하는 문화의 장인 ‘탑골독립영화관’도 매월 진행한다.

예술체험 기회도 확대된다. 체험전, 디자인 공모전, 내셔널트러스트 강좌전, 기획전시 등을 매월 마련, 탑골미술관을 노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예술 공간으로 꾸릴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에는 불화전이 예정돼 있어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불교미술의 가치를 집중 조명한다. 세대통합 프로그램도 미술관에서 진행된다. ‘1 · 3세대 공작교실’은 재활용박스나 봉투 등을 이용한 공작활동을 통해 마련되는 세대간 공감의 장이다.

이제는 대표영화제로 자리잡은 서울노인영화제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작품 상영에서 벗어나 해외 영화 초청전을 기획중이며, ‘찾아가는 노인영화제’를 마련해 작품감상 요청이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찾아가 작품을 상영하며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내 옥상텃밭을 가꾸는 생태교실과 상담 교실이 열린다. 작년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 어르신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명상집단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챙기기’와 노인들의 분노조절 능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마련된 상담 프로그램 ‘화해하기’가 총 12회 개설되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관내 취업훈련센터 기능도 확대해 일자리 발굴에도 앞장선다. 작년에 이어 서울시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되어, 미술관해설사, 관내 라디오 방송 진행, 민생상담가, 사서 도우미 등 총 14개 분야 3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문화 · 교육분야 일자리가 확충된다.

젊어지는 노년층 인구의 노년설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노인 세대로의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위해 도슨트, 바리스타, 설문조사원, 반려동물관리사인 펫시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문화학교가 작년에 이어 계속 열린다. 악기연주부터 음식 · 영화 만들기, 인문학 공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희유 스님은 “올해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설립 이래로 지난 1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의 둘레길’을 기획, 2월 28일까지 전시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라오스 위한 ‘희망의 눈’ 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라오스 저소득층 20명에 개안수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백내장을 앓는 라오스 저소득층 20명에게 무료 개안수술을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지난 8일과 9일 라오스에서 백내장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진행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최빈국가 중 하나다. 이번 수술에는 라오스 ‘국립안과센터’ 의료진들이 수술을 집도했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께오(Keo. 여. 35)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자녀 4명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환자로,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말을 못하는 것이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들었다”는 께오 씨는 치료 받을 돈이 없어 애를 태우던 상황이었지만 수술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복지재단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께오 씨의 14살 난 아들은 출가해 스님이 됐다.

라오스의 농촌지역 의료시설에는 상비약조차 없어 질병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안과 질환들은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급급한 빈곤층은 병을 방치하기 십상이다.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시력상실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실명위기에 처해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무료개안수술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하반기에도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볼 수 없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라고 강조한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 앞을 못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개안사업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라오스 정부와 국립안과센터장과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기획된 것으로, 2012년 저소득층 안과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개안수술을 진행했다.

배현진 기자

화상 흉터 치료 위한 피부이식 필요

생명나눔, 2월 치료비 환자로 백수빈 양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백수빈(여, 11세)양을 선정했다.

백 양은 4살 때 입은 화상으로 생긴 피부 흉터 및 섬유증으로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싱크대도 없는 부엌에서 일회용 버너로 밥을 해먹다 엎질러진 솥에 화상을 입었지만 백양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성장하면서 피부가 당기고 궤사되는 등 통증이 상당했지만 그때마다 울면서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월 150만원의 소득으로는 6인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또래에 비해 의젓하고 밝은 백 양은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친구들과도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다.

피부이식술을 받으면 목욕탕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백양. 친구들처럼 예쁜 치마를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백 양의 수술비는 700만원이다. 후원 농협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 환자로 선정된 백수빈 양. 온 몸에는 화상 자국들이 가득하다.

배현진 기자

‘부럼 깨고 윷 던지고’…어르신들 민속놀이

대보름 맞아 교계 복지관 행사 ‘풍성’

정월대보름을 맞아 어르신들의 즐거운 놀이 자리가 마련됐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불광노인복지관에서는 2월 14일 ‘쾌지나칭칭나네’라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했다. 윷놀이와 새끼 꼬기 대회를 개최해 어르신들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결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사전에 우승팀을 예상해보는 이벤트도 마련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장을 마련했다. 대회에서 이긴팀과 우승팀을 알아맞힌 어르신에게는 별도로 푸짐한 선물이 제공됐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은 부럼을 함께 나누며 한해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다.

같은 날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갑오년 어르신 화합 정원대보름 민속잔치’를 실시했다. 복지관 풍물반 어르신들의 식전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각종 놀이를 통해 우리 고유 전통 풍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대보름을 맞아 복지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민속 놀이를 즐기는 행사들이 진행됐다.

배현진 기자

음악으로 지체 장애인 우울감 없애

홍천군장애인복지관, 3월부터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지체 ·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복지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체 · 뇌병변 장애인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집단음악치료(마음 속의 멜로디)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지체 · 뇌병변 장애인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통제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자존감이 위협받고 자율성이 손상되어 스트레스, 대인관계감소, 심리 · 사회적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에서 지체 · 뇌병변 장애인들의 심리적 고통과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관은 “집단음악치료는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활동 등을 같이 함으로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결속시키고 친숙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게 됨으로써 우울감이 감소되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접수할 수 있다. (033)435-7031

이나은 기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모집전공	수여학위	모집구분	개강일자	입학문의처	비 고
경영학	경영학사	주중반	2014.03.10(월)	02)2260-3729	총장명의 학위
		화요집중반	2014.03.11(화)		
		토요집중반	2014.03.08(토)		
아동학	아동학사	토요집중반	2014.03.08(토)		
음악 피아노 / 성 악 / 관현악	음악학사	주중반	2014.03.10(월)	02)2260-8802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교 양		주간, 야간, 주말	2014.03.08(토)	02)2260-3729	선택 수강
의 · 치 · 약학전문 대학원 선수과목		주중, 주말	2014.03.08(토)		

학위취득과정(독학사칼리지 : 독학학위시험면제과정)

모집전공	모집구분	개강일자	입학문의처	비 고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컴퓨터과학	주중반	2014. 03.10(월)	02)2260-8842	2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 및 학사편입 가능

평생교육과정(역량개발)

모집구분	과정구분
특별교육	현대인상학 최고위, SNPE바른자세 3P 최고위, APP(에스테틱)최고위, 산야초발효음식학교, PIA(탐정민간조사) 최고전문가, TESOL, PSA(상조마케터) 최고전문가
민간자격증	가요전문지도사, 명상심리지도사, 한문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FNT(사성제)와 자비명상, 색채심리지도사, 예술심리상담사, 마인드케어지도사,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음악교육	음악실기(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클래식기타), 가요강좌, 찬불가 힐링스쿨
마인드힐링 지도자	자비명상과 긍정심리 I, 명상심리와 자기힐링 I, 마인드힐링의 이론 I, 마인드힐링의 실제 I
불교전문반 (법사인증과정)	한국불교의 이해, 비교종교, 전법교화론, 아비달마불교
동양철학	김동완 사주명리학, 기문정명학, 인상과 개운, 육임, 성명학(감정 및 작명), 미래예측 사주명리, 풍수인테리어 지도사, 역리한자한문

▶ 평생교육과정 개강일 : 2014. 3. 3(월)
▶ 문의처 : 02)2260-3728

원서접수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edulife.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 평생교육원

승가학과 강원생 모집

■ 모집학과 : 승가학과 2년 과정 00명
■ 강론과목 : 아리야삿짜수행론. 능엄경. 초전법륜경. 원각경. 아함경. 능단금강경. 무아경. 화엄경입법계품.
■ 강의시간 : **– 매월 2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매월 4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단, 법회일과 중복시는 휴강함.
– 입학 오리엔테이션 및 첫 강의 :
3월 15일(토) 오후 3시 ~ 오후 7시까지
■ 강의장소 : 성남 동화사 설법전(성남시 수정구 태평 3동 3638번지)
■ 수강대상 : 종단 관계없이 수행자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료 무료)
● 입학 희망 수행자는 www.arahan.org에 접속하시어 공지사항 : 승가학과 모집안내 – 좌측상단의 입학원서를 작성 후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중앙승가강원 교학처 [팩스 031)753-3354]**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효원능인

“참나 속에 대자유가 있으니 정진 다해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동화사 방장)



진리의 대도는 돈점(頓漸)이 없음이요,
오직 사람들의 근기에 점수(漸修)와 돈오(頓悟)가 있음이로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가히 찾기가 어려움이로다.
찾으려 한 즉은 그대가 가히 보지 못함이로다.
무심(無心)히 앉아 있으니
마음도 무심히 앉아 있음이로다.

대중은 보고, 볼지어다. 금일은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모든 대중은 과연 지난 석 달 동안 부끄러움 없는 수행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간을 떠나 머리를 깍고 부처님 법에 귀의한 것은 마음을 깨달아 만인을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자기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더 이상 중생의 습기에 놀아남이 없어야 합니다.

이 공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일념삼매(話頭一念三昧)에 들어 죽었다 살아나야 성취되는 것이라, 보는 것 듣는 것을 다 잊고 깊은 삼매에 들어 화두가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야 되는 법인데, 그러지 못하고 문득 알았다하는 것은 정해정식(情解情識)에 떨어진 것이요, 사도(邪道)에 떨어진 것이니 알았다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선지식의 바른 지도하에 실답게 정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자세부터 갖추어야 되는 것이니, 대오견성(大悟見性)하여 선지식께 인가를 받는 날이 바로 해제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바깥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해제했다고 이 산중 저 산중 기웃거리고 이 스님 저 신도 만나고 다닌다면 이는 허송세월은커녕 중생의 습기만 더 키우는 일이요 죽음에 다다라서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오견성으로 해제를 삼고 이 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바랑을 짊어지고 산문 밖을 나서지 않으리라는 굳은 각오를 다져 정진에 정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참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산승의 법문을 듣고 있는 주인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 되어, 무애자재(無碍自在)하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종교와 정치제도,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난 절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니, 인류의 희망이 참나를 깨닫는데 있고, 미래가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나를 깨달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다 같이 영원토록 대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선, 먼저 참나를 깨달은 눈밝은 ‘참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대무변하고 심오한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 밝은 스승을 만나 대오견성의 발원을 확고히 하여 모든 분들이 각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러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선으로 일념(一念)이 지속되는 과정을 이루어야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어 일월(日月)과 같은 밝은 지혜가 열리는 동시에 큰 자비와 사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고, 온 세계, 유정무정(有情無情)이 다 나와 더불어 한 집이 되어 대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우선, 참선은 앉아서 익히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먼저 좌선을 익히도록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좌복 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허리를 곧게 하고 가슴을 편 다음 두 손은 모아서 배꼽 밑에다 붙입니다. 눈은 2미터 아래에다 화두생각을 두고 응시하되, 혼침과 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뜨고 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르익어지고 나면, 일상 생활속에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의심을 쭉 밀고 또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멋진 자유와 행복과 세계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제 결제 구별 말고 참구하라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동안 면벽(面壁)한 뜻은 무엇입니까?”
자명(慈明)선사가 대답했습니다.
“풍년인데 소득이 없었느니라.”
같은 질문에 양기(楊岐)선사는 말했습니다. “서천사람이 중국말을 몰랐느니라.”
똑같은 물음에 회당(晦堂)선사는 말했습니다. “추워도 덮을 이불이 없었느니라.”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9년을 석 달 삼아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벽관바라문으로 불렀습니다. 9년 만에 결제를 마친 것입니다. 이러한 소림굴 결제의 깊은 뜻에 대해 많은 선지식들과 납자들이 문답을 나눈 것이 ‘9년면벽’ 공안(公案)입니다.

황룡선사는 해제와 결제를 구별하지 않는 공부법을 말했습니다. 첫째, 베풀기가 쉽지 않다. 둘째, 교화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날 것을 익힌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넷째, 가만히 앉아서 공양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해제 후에는 베풀면서 다녀야 합니다. 해제 후에는 교화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해제를 해도 여전히 날 것인 화두를 푹 익힌 화두가 될 때까지 늘 정진해야 합니다. 해제 때에는 공양받기 보다는 공양시킬 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납자라야만 진정한 만행납자라고 할 것입니다.

해제대중은 달마대사의 9년면벽에 대한 자명, 양기, 회당선사의 답변 가운데 누가 과연 ‘돌로 만든 호랑이를 한 방의 화살로 제대로 뚫어버린’ 안목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가려보기 바랍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번뇌 꿈에서 깨어나자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엊그제까지 매섭던 북풍혹한 사라지고, 어느 덧 선암사 천년매화 꽃봉오리가 돋아나오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에서 사부대중 여러분은 우주 삼라만상 만물 모두가 무상한 것인데,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무지에서 번뇌와 괴로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념으로 무량겁을 널리 관하여(一念普觀無量劫)
오고 감과 머무름 또한 없음을 보고서(無去無來亦無住)
이와 같이 삼세를 모두 안다면(如是了知三世事)
모든 방편 뛰어넘어 십력을 이루리라(超諸方便成十力).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일념은 무상찰나(無常刹那)이고, 무량겁은 한없는 세월을 말하는 것으로 일찰나 순간에 한량없는 세월을 꿰뚫어 보는 것.

즉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주만물 인생 모든 일 만사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생겨서 오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정한 수행자라면 꿈속에서 소금은 짜고 불은 뜨겁게 느끼는데, 이것은 오직 꿈꾸는 사람의 생각이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엄연한 현실로 착각하는 것일 뿐인 것처럼 현실도 우리가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 금생에 닦지 않으면 백천만겁에 불법 만나기가 어려우니 허송세월만 보내지 말고 하루빨리 번뇌 망상의 꿈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하심하면 천하가 다 내것이라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지금 종단 내외는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부처님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복구하는데 뜻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승불교도 없고 소승불교도 없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가 불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떠나서 불교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외도 법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나무랄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중들은 오직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해야하겠습니다. 새 법을 내지 말고 오직 출가자들이 어떻게 부처되는가를 살펴서 정진하면 됩니다. 새로 내는 법은 다 위조 법입니다. 원효 스님도 말씀했습니다.

夫諸佛諸佛이 莊嚴寂滅宮은
於多劫海에 捨欲苦行이요
부제불제불이 장엄적멸궁은
어다겁해에 사욕고행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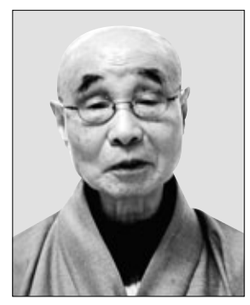
사상산이 점고하면 삼도해가 익심이라.
四相山이 漸高하면, 三途海가 益深이라.

내가 오직 바른 정진. 애써 노력하겠다는 것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욕심 버리란 말이오. 하심 하세요. 고개를 푹 숙이고 보면 천하가 다 내 것이라.

주장자를 세 번 치고 하좌하시다.

불성은 이미 이 몸 속에 있습니다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사로잡혀 삽니다. 자유롭고 싶지만 생각에 묶여 작용을 못보고 있습니다.

공부에 애를 쓰지만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상(집착)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생각을 내려놓고 방하착 해야 합니다.

과거 석가모니불이나 달마대사와 똑같이 되고 싶으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놈을 찾으면 됩니다. 빛을 보고 있고, 냄새를 맡고 있는, 바로 그놈이 과거의 석가모니불이고, 달마대사입니다. 석가모니불과 달마대사, 역대 조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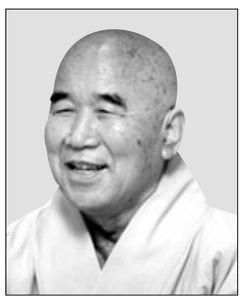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놈을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밖에 따로 진리가 있다고 여기면 항하수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몸만 수고롭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놈이 나이고, 보고 있는 놈이 나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생각입니다. 생각을 떨어트리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무엇을 아느냐? 예를들어 종소리를 듣고 있는 자기를 알게 됩니다. 상대를 보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중생은 날마다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물건을 모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성은 이미 이 몸에 있습니다.

오로지 화두지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 뿐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爲愛尋光紙上鑽이여
不能透處幾多般가
忽然撞着來時路하면
始覺平生被眼瞞하리라
밝은 빛을 좋아해 문종이를 두드림이여!
나갈 수 없는 곳을 향해 얼마나 부딪쳤던가? 그러다 문득 들어왔던 길을 만나고서야 평생 동안 눈속임 당한 줄 알게 되리라.

파리는 창문이 닫혀있는 줄 모르고 밝은 빛만 쫓아서 날아갑니다.

날아가 부딪치고 또 날아가 부딪치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명 중생의 어리석음이 이러합니다. 모두들 생사가 두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벗어나려는 마음 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잠깐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고통이 닥쳐온 뒤에서야 후회합니다.

‘왜 미쳐 용맹심을 내어 떨쳐내지 못 했던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저 미충인 파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두들 근본은 잊어버리고 외형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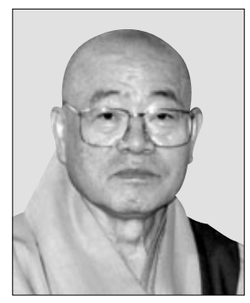
세상 어떤 일이 급하다 해도 생사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놈은 폭포처럼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헐떡임을 멈추고 스스로 눈속임 당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릴 때 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화두를 굳게 지니고 두려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맞서는 것 뿐입니다. 출렁이는 업식의 물결이 잠깐 고요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명안납자가 되어 산문을 나서기 바랍니다.

한번 사람몸 잃어버리면 어느 때 돌아오는가?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법상(法床)에 올라 주장자(拄杖子)를 세 번 치고 이르시되
시정(市井)과 산간(山間)에서 납자(衲子)들이 놀기만 하니 알아 얻은 심인(心印)을 누구에게 부쳐줄고? 만약에 한번 뼈에 사무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해골이 광야에 두루 가득히 흩어지리라.

대저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이는 이 무슨 사람인고? 만약 또한 알아 얻었으면 또 한마디 일러보라.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하고 이르시되, 한주먹으로 사천(四天)하늘 타파(打破) 옳다 나와 더불어 한 집이 되어 대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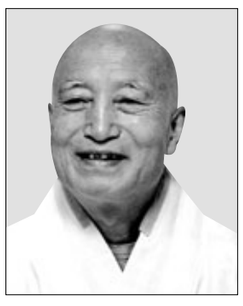
우선, 참선은 앉아서 익히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먼저 좌선을 익히도록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좌복 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허리를 곧게 하고 가슴을 편 다음 두 손은 모아서 배꼽 밑에다 붙입니다. 눈은 2미터 아래에다 화두생각을 두고 응시하되, 혼침과 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뜨고 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르익어지고 나면, 일상 생활속에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의심을 쭉 밀고 또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멋진 자유와 행복과 세계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법 일여, 원융무애의 자리까지 정진합시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벌써 해제를 맞게 됐습니다.

겨울동안 정진들 하시느라 고생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제와 해제를 통해서 연마(硏磨)를 거듭해 왔습니다. 물론 정진하여 得力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究竟)을 성취(成就)하여 생사명근(生死命根)이 끊어 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시겁(無始劫)으로 익혀온 탁습(濁習)이 정진을 할 때에는 잦아드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방심(放心)하면 또다시 오욕(五慾)의 불꽃이 일어나 정진력(精進力)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합시다. 자성(自性)이 드러나서 임운등등(任運騰騰)하고 등등임운(騰騰任運)하여 본래로부터 밝고, 본래로 부터 당당하고, 본래로부터 지혜로워 만법(萬法)이 일여(一如)하고 원융무애(圓融無碍)한 그 자리에 도달할 때 까지 정진하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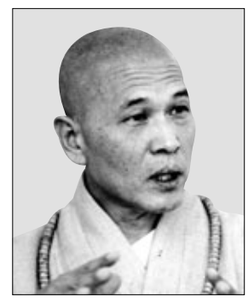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금생미명심(今生未明心)하면 적수야난소(滴水也難消)라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한량없는 부처와 祖師가 항상 나타나니 풀, 나무, 돌 그대로 화엄의 세계요 법화의 세계여라.

백천법문(百千法門)과 무량묘의(無量妙意)가 다 흡사 연꽃이 피는 듯 하니 이제(二際)와 三際를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이 세계가 그대로 우리의 스승, 진리의 도량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불교가 어떻고 참선이 어쩌고 하다가 청춘이 다 가버리고 깨달음이 어떻고 조사(선지식)가 어쩌고 하다가 백발만 무성하네. 어느 곳에서 부처와 조사의 깊은 뜻을 찾아볼 것인가?

머리 숙여 집집마다 봄을 활짝 피게 함이로다.

어느덧 진정으로 해제 아닌 해제날이 왔습니다.

수행자에게는 시시처처가 모두 결제요, 대장부 일대사가 해결되는 날이 진정 해제날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잠시 나가시면 따로 각기 무엇을 구하거나 찾으려 하지 말고 유정무정 두두물물이 꽉 찬 이 세계가 그대로 우리의 스승이요, 은혜요, 진리인 도량이니 서로서로 모시고 나누고 도와서 받들고 갚아야하는 깨달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땅 파고 기계 돌리고 땀 흘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소외되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며 그동안 닦고 노력한 몸과 마음의 됨됨이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실천이야말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기 확인이요, 살아있는 정진의 연장입니다.

앎과 실천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전체가 그 역시 불안한 갈등이 유발되니 사무치게 느끼고 반성해야합니다.

지면 구성상 법어의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 '다비' 의식, 전승 끊길 위기

조계종 첫 실태 조사보고서 펴내…"전통문화 가치 관심 저조"

2013년 5월~12월 6개 사찰 조사
설행 스님 "전수자 없어 인부 작업"
사찰별 양식 달라 맥 끊길 위험

불교 전통의 장례의식인 다비(茶毘)의 전승 가치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전승자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최근 '불교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 의 일환으로 현재 설행되고 있는 다비 현장을 기록하고 이를 설행하는 전승자들을 현지조사해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냈다.

다비는 사찰과 문중에 따른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이지만, 단발적이며 비정례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장례의식 특성 상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기록화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합천 해인사 · 순천 선암사 · 부산 범어사 · 장성 백양사 · 예산 수덕사 · 남양주 봉선사의 6개 사찰에서 참여관찰 및 설행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각 사찰마다 전수자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연화단 제작과정 등 각 사찰별로 다비 양상이 다양하기에 현재 설행자로부터 전승이 끊길 시 해당 사찰의 다비 전통이 끊길 위험이 발견됐다.

현재 대부분의 설행자들은 각 본사와 말사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이었으며 봉선사는 예외로 재가자가 설행하고 있었다. 저본인 의식집은 〈석문의범〉을 기본을 했지만 의식집은 다비 진행 순서에 국한 됐으며 연화단 제작 방식은 각 사찰마다 다른 모습으로 구전돼왔다.

설문조사에서 해인사 다비를 설행하고 있는 종성 스님은 "따로 전수받은 바 없어 처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초창기 부산 태종사 도성 스님의 다비를 보고 연구했다"며 "지금은 전수받는 스님이 없어 거의 인부들이 같이 작업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90년대부터 스님들이 다비를 배우지 않는다. 80년대까지는 염까지 스님들이 사중에서 다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범어사 다비를 설행하고 있는 석공 스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인부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지만 배번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순천 송광사에서 진행된 법정 스님 다비식 당시 모습.

전통방식 지키며 보급화하자는 제안 실어

설행 스님들은 승가의 다비가 전통방식으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한 보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어사 석공 스님은 일반신도들도 불교식 장례를 지낼 수 있게 신도를 위한 다비장이 개설돼야 한다고 했다. 백양사는 전통방식에 입각한 정형화된 다비장을 상설로 제작해 재료를 줄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행 스님들은 모두 전통방식을 추구하되 장엄을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조사 보고서는 각 사찰의 다비 양식과 재료, 석문의범 등 관련 서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사찰 환경이 점차 현대화 도시화 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히 전승되는 전통문화로서 다비의 가치는 크다"며 "이를 첫걸음으로 앞으로 다비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보수현장평가 미비

문화재청 2월 12일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 개선' 공청회… 체계 개편

현행 문화재 수리 입찰제도를 비롯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제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2월 12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에서는 현장의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공청회는 자격제도 개선, 문화재 보수 · 정비 입찰제, 수리품셈(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통기술에 기반한 인건비 산정해야

이날 전문가들은 전통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비롯해 이에 대한 인건비 산정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왕직 명지대 교수는 '수리품셈제도 개선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에서 "전통의 재료와 기술이 전해지지 않는 지금의 문화재 수리 현황에서 품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품셈은 특정 작업을 하는 데 드는 인력과 시간을 수량화한 것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교수는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문화재 수리는 공정이 매우 잘게 쪼개져 있어 작업에 따라 정밀한 품셈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품셈 제도는 아예 누락된 공정도 많고 직종별 인건비가 시중 노임단가와 30~5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노임을 조사해서 품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통기법에 의한 공정과 재료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며 "품셈은 문화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원칙으로 전통의 기법, 재료, 장인, 공정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증 따도 현장능력 없어…시험 개선

문화재 수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경험을 반영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명섭 경북대 교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개선' 발표에서 "경력과 실무능력 등을 검증하기 힘든 시험 체제"라며 "5년의 실무경력을 기본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문화재보수체계의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에 문화재 수리기술의 필수 이수과목과 학점 기준 마련, 시험과목의 비중 상향, 면접 강화 등을 제안했다.

수행능력 평가 미비, '운찰' 제도 고쳐야

전문가들은 현재 '운찰' 로 불리는 문화재 수리 입찰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수행능력 평가' 가 도입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봉희 서울대 교수는 "수행능력 20%, 입찰가격 80%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며 "한번 훼손되면 가치를 되돌릴 수 없는 문화유산을 다루는 공사에서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리 종사자 긍지가 중요해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의 긍지를 높여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다. 최기영 대목장은 "현재 문화재 종사자들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선이 팽배하다. 우리 문화재는 10만 종사자들의 굶주림과 피땀어린 고혈로 지켜낸 것"이라며 "우리 문화의 맥을 잇는다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우리 문화재를 지켜온 데에는 이날 모인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우리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를 관리하는 소임을 맡은 입장에서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 당국이 관련예산 확충과 함께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사찰 경판 일제조사 실시된다

110개 사찰의 조선시대 2만 7000여 점 대상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함께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전국 110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목판 2만 7000여 점에 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목판의 인문학적 조사, 판종별 목록화, 수종 분석, 실측, 소장처 보존관리 현황조사, 그리고 디지털 · 적외선 촬영 등이다. 사찰 소장 목판은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 불교 주요 경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대부의 문집과 족보 등을 판각했던 경판도 일부 포함된다. 현재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은 대부분 16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각 판본에는 고려대장경 이후 사찰로 전수되어 온 조선시대 인쇄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한편,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전국 2천 900여 사찰에 비장(秘藏)되어 온 불상, 불화, 전적, 공예 등의 불교문화재 16만 1000여 점이 조사 완료됐다.

문화재청은 "이 자료에 근거해 중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방안과 도난 방지 방안을 모색해,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을 보물 제1544호로 지정하는 등 80여 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하여 사찰 소장 목판의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결과물이 조선시대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이차돈 순교비 등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경주 이차돈 순교비(慶州異次頓 殉敎碑)' 등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경주 이차돈 순교비는 신라 법흥왕 14년(527)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을 추모하고자 건립한 비석으로 조성연대는 헌덕왕 9~10년(817~818)으로 추정된다.

불교 공인을 기록한 현존 최고의 사료이며 통일신라의 복식사와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비석은 받침돌과 6면의 몸돌로 구성돼 있는데 제1면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전하는 이차돈의 순교 모습을 선명하게 조각했다.

제2면에서 제6면은 가로와 세로로 교차하도록 평행 음각선을 그어 7행, 25칸의 정간(井間)을 치고 그 안에 한 글자씩 음각했다.



이번 지정 예고는 지난해 8월 체결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 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지정 추진 대상문화재는 '뚝섬 출토 금동여래좌상' , '황룡사구층탑지' , '삼화령미륵삼존상' , '고려나한도' 등이 속해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고판화학회, '고판화연구' 창간호 발간

한국고판화학회(회장 한선학)는 최근 〈고판화연구〉 창간호를 펴냈다.

이번 창간호에는 △주심혜 북경 수도도서관 연구관원의 '한국 고판화박물관에 대한 인상' △마문대 북경 수도도서관 연구관원의 '중국 고대 목각판화자료의 연구와 정리' △석혜영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강사의 '고려초조대장경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 판화의 일고찰'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고판화 박물관 소장 16세기 목판본 불서류의 서지와 삽화 연구' △이리구치 아츠시 국문학연구자료관의 '삽화 간행본의 양식에 대한 비교 검토' △박도화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의 '성화 13연간 불정심다라니경변상도의 도상과 의의' 등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법당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3년 만의 광주불교계 봉축 준비 살펴보니

광주불교연합회 2월 11일 '2014 빛고을 관등축제' 기획안 발표

광주지역 봉축행사가 전통과 가족을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2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봉축행사 '2014 빛고을 관등축제' 기본안을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빛과 생명이 함께하는 시민문화한마당' 주제로 열리는 이번 봉축행사는 4월 18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6~27일 2일간 운천저수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행사와 더불어 행사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봉축행사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로 압축된다. 봉축기획단(단장 시각, 만덕사 주지)에서 기획단 준비안에는 불교단체의 행사 공모제의 시행과 가족단위 행사개최가 눈길을 끈다.

행사 공모제는 광주지역에서 처음 실시하는 방식으로 봉축행사기간인 4월~5월 중 각 사찰과 단체에서 실시하는 불교행사를 공모해 일부 예산과 홍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각 단체별로 별도의 행사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 기획단에서는 이번 봉축행사기간에 약 20여 개의 행사를 선별해 지원과 함께 직접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우수 단체에는 추후 시상도 진행된다.

가족단위 행사도 적극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함께 있는 5월을 앞두고 가족 프로그램 함께 진행해 행사 홍보에 효과를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5월 광주제등행렬에서 한마음선원 연희단이 행진하는 모습. 광주불교계는 이번 봉축행사로 지역 불심이 융성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행사공모제로 지역주민 참여 높이고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홍보효과 배가

먼저 운천저수지에서 열리는 양일간의 행사기간에 어린이 글 · 그림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청소년 음악놀이대회, 외국인 문화축제, 전통茶시음 및 들茶시음 등 가족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마련된다. 여기에 연꽃등 만들기, 단청체험, 단주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설치해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까지 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행사의 핵심인 등 축제는 4월 18일 전통장엄물(익산 미륵사지 9층탑) 점등식과 광주시청 점등식으로 시작된다. 3월 중 열리는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 4월 26~27일 운천저수지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 소원등 터널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불교계는 빛의 도시 광주를 10만 전통등으로 장엄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4월 18일 오후 6시 관등법회(봉축법회), 점등식 및 탑돌이, 대동한마당(봉축음악회)이 운천저수지 일원에서 개최되어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은 "최근 몇 해 동안 광주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봉축행사를 계기로 승가의 화합과 불자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봉축행사에 광주지역 많은 대중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주 영평사, 화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눈길

3월부터 매주 월 · 일요일 진행…"인터넷으로 상담해요"



공주 영평사 행복명상원이 불교계 최초로 화상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행복명상원은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0~12시 화상 생활치유 프로그램 '그냥 그대로 행복하기'와 매주 일요일 오후 10~12시 화상 청년치유 프로그램 '삶의 좌표를 찾아서'를 개최한다.

행복명상원은 "이상과 꿈이 냉혹한 사회의 벽에 부딪쳐 깨어지고 일그러지는 현실 앞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화상을 통해 즉석에서 묻고 함께 답을 찾는 프로그램"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영평사는 21~23일 치유명상 템플스테이 '그냥 그대로 행복하기', 2월 28일~3월 2일은 심화명상 '깨어있는 삶, 깨달음의 길' 주제 템플스테이도 진행한다. (044)857-0202

노덕현 기자

일광사 승천 스님, 전주 교정협의회장 취임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이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백연기)는 2월 11일 전주 알펜시아 웨딩 대연회장에서 정기총회와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익산 태봉사 영산 스님을 비롯한 전북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과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등 200여 불자들이 참석해 승천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승천 스님은 취임사에서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정협의회를 이끌겠다"며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원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교정교화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승천 스님의 교정교화활동은 수용자들에게 올바른 참회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며 "교정협의회장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수용자들이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천 스님은 1997년 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7년 동안 수용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어 재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자재소자들이 수감 중에도 신행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펴왔다.

2010년에는 수용자들의 재범방지에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매년 일광사에서 경로잔치와 어린이 잔치를 개최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사찰 '자비의 쌀' 전달





광주 광산구 금선사(사진 왼쪽)와 동원사(사진 오른쪽)의 자비의쌀 전달식 모습.

봄을 맞아 불교계의 자비심이 이웃사랑으로 승화됐다. 광주지역 사찰들은 입춘을 맞아 법회를 갖고 '자비의 쌀'과 '동전'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광산구 금선사(주지 일명)는 2월 11일 대웅전에서 신도들이 입춘 기도를 통해 마련한 자비의 쌀 2000kg(10쌀 200포대)를 자비신행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광주외국인복지센터, 호국금강사(공군법당)를 비롯한 지역NGO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각 단체를 통해 무료급식소, 다문화가정, 환우가족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1년 동안 신도들이 모아온 동전통도 각 단체에 전달됐다.

일명 스님은 "가족들을 위하는 작은 마음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면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구 동원사(주지 지장)도 13일 자비의 쌀 2000kg 지원식을 갖고 불교계 및 사회단체에 신도들이 기부한 쌀을 전달했다.

회주 지각 스님은 법문에서 "십시일반 모은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식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구 연화사(주지 명신)와 광산구 비전사(주지 보혜)도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들이 기부한 쌀 2000kg을 불교단체 및 사회단체를 통해 전달했다.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처장은 "자비신행회는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찰에서 지원해 주는 '자비의 쌀'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불교와 민간신앙이 어우러진 대동 한마당


2월 13일 내소사에서 열린 석포리 당산제 입재식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식을 올리는 모습.

불교와 민간의 토속신앙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당산제가 부안 내소사에서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2월 13일 내소사 경내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나무)와 내소사 일주문 앞마을 입구의 날당산(일명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 '2014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풍물패를 앞세워 용줄을 메고 내소사에 당도한 700여명의 내소사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은 내소사 대중스님들의 독경과 범패 등 불교의식에 이어 용줄 줄다리기, 용줄감기, 민간주도의 제례를 당산나무에 올리며 사찰의 번영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진학 스님은 "내소사 당산제는 사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고증을 거쳐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신앙과 민간신앙의 결합이라는 보기 드문 복합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수령 1천년과 700년으로 추정되는 내소사 경내의 들당산과 입암마을의 날당산 느티나무에 내소사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개최돼 왔다.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의 원형은 내소사 주도 하에 전승돼져 왔으며 토속신앙을 받들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사찰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서 불교신앙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포교를 병행하는 형태로 계승돼 왔다. 원형적인 부문에서 기존의 당산제와 그 형식과 의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례의식과 굿의 형태는 불교적인 의식을 따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통한복 수공법 '손누비' 과정 개설

한복을 만드는 대표적 전통 수공방법인 손누비 과정이 개설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이 개최하는 '전통 손누비'는 손누비를 주제로 한 체험학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우리의 전통 손누비에 대한 문화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다양한 체험으로 진행한다.

특히 손누비는 사찰 스님들을 포함해 신도들이 입는 법복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전통기법으로 이번 강좌에는 '전통 손누비'와 관련한 강의, 솜 놓기, 실 초 먹이기부터 문양 넣기 등 다양한 전통 누비 기법 하나하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지도는 천연염색 및 손누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최숙정 공예가가 함께한다.

전통 손누비 강좌는 2월 2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으며 2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참가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4학년도 태고 전문강원 (2년제) 신입생 모집

불조의 혜명을 잇고 미래불교를 선도할 학인스님을 태고 전문강원에서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자격 :** 본 종단 승적보유자 및 타 종단 승려
■ **인 원 :** 1학년 – 30명 (입방자 10명)
■ **모집기간 : 2014년 2월 10일 – 2월 25일**
■ **구비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1부
· 승려증(또는 수계증)사본 ····· 1부
· 건강진단서(입장자에 한함) ·····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 반명함판 사진(가사장삼 복장) ····· 2매
■ **전형방법 :** 서류심사와 면접
■ **등 록 금 :** 50만원
■ **기숙사비(입방자에 한함) :** 30만원
■ **입 학 식 :** 2014년 2월 28일(금)
■ **개 강 일 :** 2014년 3월 4일(화)
■ **문 의 처 :** 제주교구 종무원
☎ 064)752-2710 제주시 전농로 97-1
강원 010-2896-8108 제주시 평화로 2018

◆ **강원 교수 소개**

수암스님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수 (금강경 저자)
중앙승가대학 불교학과 역경학 전공 학술박사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前제주대학교 철학과, 중어중문학과 강사

구암스님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식 예능보유자
前제주불교 문화예술원장
제주 범음범패보존회 총재
태고전문강원 교육원장

휴진스님
극락사 주지

안재철 교수
종립 동방불교대학 출강(치문 등 강의)
(치문경훈의 문법적 이해) 저자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한국불교태고종 태고 전문강원 교육원장 구암 성천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방생으로 생명존중"… 새해 서원

양산불교연합회 방생대법회

뭇 생명에 자비를 부여하고, 생명존중의 마음을 갖자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 불교계가 나섰다.

양산불교연합회의 생명존중 방생대법회가 2월 9일 경주 감포 대왕암에서 봉행됐다.

회원 사찰과 신도들을 태운 8대의 버스가 감포 앞바다 대왕암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전 대중은 바닷가에 마련된 불단 앞에서 생명존중의 마음을 모았고 저마다의 원(願)을 간절히 발원하는 모습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양산불교연합회 회장 반산 스님, 원효암 주지 남현 스님 전법도량 정도 스님을 비롯한 양산지역 대덕스님 10여명과 각 사찰 신도들이 대거 동참했다.

그간 양산불교연합회는 양산지역 소재 사찰 스님들이 모여 지역 차원의 행사와 법회를 봉행해 왔으나 이번 방생대법회는 2014년 신년을 맞아 연합회의 단합과 결집을 약속하는 마당이 되어 그 의미가 깊다.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생명의 무질서를 타파하고 살아 숨 쉬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새해 서원의 야단법석이 된 셈이다.

이번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회

2월 9일 경주 감포 대왕암서 지역 불교 화합 다짐도


양산불교연합회의 생명존중 방생대법회가 2월 9일 경주 감포 대왕암에서 봉행됐다.

장 반산 스님은 "불교의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살생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자들마다 생명존중의 사상을 더 공고히 하고 포교 공덕을 지어야 한다" 며 방생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원효암, 계원사, 통도사양산포교당, 원각사 등 총 8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하여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방생에는 바다장어 약 1천 마리가 문무대왕릉 바다로 놓여졌다.

한편, 양산지역에는 조계종 사찰을 포함한 약 200여 개 사찰이 분포돼 있는데 이들 사찰 가운데 조계종 소속 사찰로 구성된 양산불교연합회 회원사찰은 4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사찰들은 2012년 3월 새로운 출범과 함께 경승실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으며 양산 부산대병원에 매월 음력 초하루마다 떡 공양을 하며 불법홍포와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20여 사찰은 지역 내 포교와 전법을 위한 일에는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상생으로 지역불교 활성화에 기여

양산불교연합회장 반산 스님



양산불교연합회를 재출범시켰으며 초대회장 소임을 맡아 연합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진력하고 있는 반산 스님(원각사 주지 · 사진)을 만났다.

그간 크고 작은 법회와 행사를 주관해 온 스님은 "실천적인 불교활동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부터 계획해 온 행사였다"며 방생 법회의 취지를 전한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범종단 차원의 행사인 한반도평화대회가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지역규모의 활동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스님은 지역 내 포교와 전법을 위해 회원 사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반산 스님은 또 "연합회를 재출범시키면서 기존의 사암련 사찰들과 연계 화합의 양산불교연합회를 꾸리고자 했으나 좁혀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찰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양산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대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출가자로서, 신도들을 이끄는 승가로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 지역불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나영 객원기자

"생사의 바다에 '자비의 배' 가 되세요"

통도사, 율원 · 강원 졸업식

영축총림 통도사는 2월 12일 율원과 강원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번 졸업식을 거행한 영축율학승가대학원은 제 8회 졸업생을, 통도사 승가대학은 제 57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졸업식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지종 스님과 주지 원산 스님을 위시한 소임 스님들과 율주 중산혜남 스님, 강주 지형현진 스님, 율원장 덕문 스님 등 강사스님들이 졸업생들의 졸업을 지켜봤으며 율학승가대학원의 상원스님 외 9명과 강원의 무진 스님 외 18명의 스님이 정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율주 스님은 졸업생들을 위한 훈사에서 "오늘 졸업을 맞는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새기고 계 · 정 · 혜 삼학을 바로 이행하여 자비심으로 중생구제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 더불어 보살심을 베풀 때는 고루, 참되게 베풀 것이며 생사의 바다에 자비의 배를 띄우도록 원력을 세워 구경성불의 길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졸업생들에 당부를 했다. 강주 현진 스님도 훈사를 통해 " 마음속에 바른 지표를 세워 그 지표에 위배됨 없는 불제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2월 12일 율원과 강원 졸업식을 봉행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는 총무원장상, 교육원장상을 비롯한 종단 차원의 상이 수여되기도 했으며 방장스님상, 주지스님상, 전계사스님상, 율원장스님상, 승가대학장상 등 분야별 우수상이 수여되어 축하를 받았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연등축제기획위, 행사 일정 확정

4월 26일 구덕운동장서 봉축대법회 봉행


2014 부산광역시 연등축제가 주요 행사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본격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2014 부산광역시 연등축제가 주요 행사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본격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2014 부산광역시 연등축제가 주요 행사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본격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부산 연등축제기획위원회(위원장 심산)는 봉축대법회, 연등퍼레이드, 대회회향한마당 등으로 나누어 부산시민들과 불자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봉축대법회는 오후 4시 구덕종합운동장에서 △연등퍼레이드는 오후 8시~ 10시 부산대청동과 광복동 일원에서 △대동회향한마당은 오후 10시~ 10시 30분 용두산공원에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동제 형태로 꾸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광역시 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봉행하던 봉축연합대법회를 구덕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축제의 마당에는 부산지역 불자들과 스님, 부산시장을 비롯한 각 단체 기관장 등 2만여 시민이 동참하는 연등축제의 한 마당을 열게 된다. 봉축연합대법회를 끝낸 참석대중들은 구덕운동장을 출발해 국제시장, 근대역사기념관, 용두산공원, 광복로까지 이어지는 연등퍼레이드를 펼친다.

한편, 이날 거리를 밝힐 장엄물들은 불자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장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며 총 300여 점의 장엄등이 각 사찰, 신행단체들을 대변하게 된다.

또한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용두산공원에서 연등축제 개막 점등식을 개최하게 되며 이날 특설무대를 마련 축하공연과 함께 불꽃쇼를 선보이며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열흘간 광복로와 용두산공원 일원에서 부산연등문화제와 전통문화체험, 전래놀이한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부스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부산불교연합회는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부산 연등 축제 또한 서울과 같은 포스터와 표어를 사용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부산연등축제 기획위원회는 심산스님(홍법사 주지)을 위원장으로 지난 1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고 행사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시민대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만등축제를 참관하는 등 부산연등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초기불교의 정진 계속되어야"

대한불교대학 2013 학년도 졸업식



초기불교 전문 교육기관인 대한불교대학(학장 마성)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한불교대학은 초기불교 학문의 보급 전파를 위한 전법사 및 불교지도자 양성과 수행자의 신행실수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故원각 스님에 의해 설립됐다.

2013년 갑작스런 학장 원각 스님의 입적 후, 비상체제로 전환할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불교대학은 어려움 속에서도 출석생과 사이버생 총 42명으로 구성된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셈이다.

학장 마성스님은 "오늘의 이 졸업식이 초기불교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석가산 대종사 명예학장, 증명법사 뿐냐산또, 유계현 진주시의회 의장 등 1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거행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 법회

군종 교구장 정우 스님 법사로



조계종 갓바위 선본사(주지 선본)는 갑오년 정월 약사재일을 맞아 2월 7일 법회를 열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전 통도사 주지)을 법사로 한 이번 법회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우 스님은 "관념 속에 묻혀 살면서 내 인생은 어느 계절 속에 와서 지금 무엇으로 바쁘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 왔고 살아가야하는가를 생각해 봐야한다"며 "신심과 원력으로 바른 서원과 발원을 세워 정직하고 경고한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기도정진하여 마음으로 이웃에 나눔을 회향하기 바란다"고 설법했다.

이어 스님은 "정성어린 마음으로 도를 구하면 기쁨의 씨앗과 즐거움의 열매가 둘이 아닌 하나"라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고 덧붙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관세음보살님과 좌우보처 해수관음보살님 육관음보살님
밀적조역 84제대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관음성전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칭염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16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중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영산불교 현지사 부산분원 관음성전 전화 051)554-5150 팩스 051)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지구 중력과 장난하는 기암괴석들의 놀이터

찜질방이 있는 사찰 - ③ 합천 청강사

경남 합천에 위치한 청강사는 아담한 절이다. 특이하게도 사찰이 몇 개의 큰 바위사이에 터를 잡았다. 바위가 먼저고 절이 뒤에 오는 느낌이 든다. 창건주인 청강 거사 부도는 구형 돌 2개를 사이에 넣어 쌓았다. 정교하지 못한 것이 외려 정겹다. 절 입구 400~500백년 된 정자나무 10여그루는 사시사철 색의 잔치를 열어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한다.

2월 10일 찾은 청강사에는 남도인데도 눈발이 날렸다. 고지가 높아서다. 입구에 들어서자 오른쪽에 수십개의 장독이 보인다. 주지 혜광 스님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 간장들이다.

겨울이라 인적도 없고 을씨년 스러웠지만 청강사는 4월이 되면 국보급 풍광을 자랑할 정도로 아름답다. 특히 4월 둘째주 주말에는 주변에 벚꽃이 만개해 해마다 음악회를 연다.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 청강사(晴岡寺)의 역사도 오래됐다. 갑오경장이 일어난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대 국학자로 손꼽힌 변영만 선생이 짓고 글씨를 쓴 절 앞에 서 있는 청강사비를 보면, 이 곳의 불사를 시작한 인물은 유학자 정규락 선생이다. 일명 청강 거사라 불렸는데 선대로부터 집안이 부유했고 학문에 전념해 1891년에 약관의 나이로 진사과에 합격해 정진사로 불렸다. 정진사(鄭進士)는 나라가 기울어 일본에 잠식당해 가는 것을 보고 초야에 묻혀 불법을 따르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터를 잡은 허굴산은 황매산 첫가지로서, 기암괴석과 물, 골짜기와 구릉이 풍부해 고려 때에 지어진 허굴사가 있던 곳이다.


처마 밑 풍경 사이로 보이는 대웅전(왼쪽)과 지장전.

바로 그 아래에 정진사가 수행하며 말년을 보낼 암자를 1934년에 지어 만귀암이라 이름 짓는다. 하지만 정진사는 사찰 신축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착공한지 9년 되던 해 입적했다. 그러자 아들 정방해 선생이 이어 받아 수년간에 걸쳐 완공 했다. 당시의 건물은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로전, 첨영각 등 모두 12동에 걸쳐 80여 칸이 되었다. 정방해는 사찰 착공 당시의 절 이름인 만귀암을 부친의 아호를 따서 청강사라 고쳤다. 대웅전에는 거창 연수사서 모셔온 인도 전단향 목불이 있다. 대웅전과 현판 글씨는 독립운동가 오세창 선생, 로전과 산신각 현판은 서예가 오제봉 선생이, 칠성각 현판은 서예가 정현복씨가 각각 썼다.

동산 스님 등 근현대 선지식 주석
봄·가을 1년에 두차례 산사음악회 열어

청강사가 불사된 초기에는 동산 스님과 정강 스님께서 2년 여간 주석하시며 수행했을 정도로 유서깊은 수행처로 자리잡았다. 현재 청강사는 정진사의 증손자 혜광 스님이 뒤늦게 불가에 귀의해 주지로 있다. 스님이 취임한 이후 새로운 불사가 많이 진행됐다. 우선 절에서 10분 정도 산을 올라가면 최근에 지어진 약사선원이 보인다. 기도객들을 위해 마련된 방사와 편의시설이다. 대웅전 아래에는 철야정진 후 몸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찜질방도 있다. 7년 전에 지은 것인데 황토를 1천도 이상에서 구운 벽돌로 돼 있다. 청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또 하나 있다. 찻집인데 단순히 차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찬불가수로도 활동중인 주지 혜광 스님이 언제든지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악기 들을 세팅해 놨다. 명실공히 문화도량이다.

합천 청강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몇개의 큰 바위 사이에 터를 잡은 청강사. 바위 사이로 지장전이 눈에 들어온다.


1천℃이상에서 구운 황토로 만든 사찰내 찜질방.


실내 음악회도 열리는 청강사의 명소인 다실.

“찬불가 부르며 나눔 활동할터”

주지 혜광 스님 인터뷰



“청강사는 허굴산 중턱 인간이 가장 살기 좋다는 400고지에 위치한 청정도량입니다. 주변에는 산책로와 등산로가 잘 조성돼 있고 봄에는 꽃과,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1년에 봄과 가을 두차례씩 음악회도 개최합니다.”

청강사를 누구나 와서 기도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고 있는 주지 혜광 스님은 기타, 건반, 드럼 등 악기를 다루며 노래를 부르는 일명 ‘찬불가수’ 다.

그냥 음악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통해 나눔 운동도 펼친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인근에 있는 합천영상테마파크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모금활동을 한다. 합천군 교육발전 기금과 캄보디아 생명의 물 지원을 위해서다. 혜광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동체대비 사상을 강조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히 실천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시간날때마다 나눔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고 밝혔다.

여행수첩

▲가는길

–대중교통=서울 남부터미널에서 하루 여섯 차례(오전 7 · 9 · 11시/오후 1시, 3시30분, 5시) 있는 합천행 시외버스를 탄다. 총 4시간 10분 소요. 터미널에서 내려 대병면 방향 시외버스로 갈아타 장단리 청강사 정류장서 내려 도보로 15분 정도 걸으면 된다. (055)932-5706

–자가용=대전통영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내비게이션 주소로는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 3길 42-37을 찍으면 된다.

▲주변 관광지

–대장경 테마파크=팔만대장경 제작 과정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끝나고 주제관인 대장경천년관을 정비한 탐방 명소다. 실물과 똑같이 만든 대장경판은 물론 대장경 제작 과정 디오라마, 대장경을 제작한 뒤 강화도에서 해인사까지 옮기는 과정을 담은 이운길 영상을 볼 수 있다. 대장경빛소리관에서는 대장경을 테마로 제작된 5D 애니메이션 〈천년의 마음〉을 관람할 수 있는데, 일반 4D 상영관과 차별화된 파노라마형 실버스크린이라 더욱 실감 난다.

–합천영상테마파크〈사진아래〉=국내 최고의 촬영 세트장이라는 칭찬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실감 나게 재현된 건물과 거리 풍경이 인상적이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포화속으로〉 〈전우치〉, 드라마 〈에덴의 동쪽〉 〈빛과 그림자〉 등이 이곳에서 촬영되었고, 현재



도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거리 풍경이 재현되었으니 과거의 골목을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뉴스 앵커가 되어보고 성우 더빙을 해볼 수 있는 방송 체험 공간도 특별하다.

–황매산 공원=정상 바로 아래까지 자동차 도로가 있어 ‘영남의 소금강’ 이라 불린다. 일출 명소이자 봄이면 철쭉으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철새들이 한가로이 쉬어 가는 정양늪과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황강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함벽루도 겨울 여행의 묘미를 선사한다.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 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新 사찰 건축

3. 서울 삼선포교원

20세기에 탄생한 분황사탑형 법당

한국불교에서 안타까운 역사 중의 하나인 경주 황룡사가 사라지던 날, 그 허망한 순간을 함께 했던 절이 있다. 황룡사 옆 분황사이다. 분황사 역시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법당 하나와 무너진 석탑 하나가 겨우 옛날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무너진 흔적이 분명한 석탑은 언제부턴가 삼층만이 남아있다. 분황사 모전탑(模塼塔 · 국보 30호)이다. 그 옛날 신라의 기억을 간직한 석탑은 아득한 세월을 건너 20세기 서울 땅에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 1983년 3월 1일. 분황사 모전탑의 형태를 그대로 옮긴 법당이 서울 성북구 동선동 주택가에 섰다. '삼선포교원' 이다.

탑형식의 새로운 법당

지상 2층, 지하 1층의 삼선포교원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외형을 그대로 확대시킨(300평) 건축물로 불교건축사에서 혁신적인 불사로 기록되고 있다. 건물 상부에는 신라 석탑을 올려놓아 전탑과 석탑의 합성 건물처럼 보인다. 1층 법당에는 석굴암 현실과 동일한 돔을 만들고 16개의 감실을 벽면에 설치했으며 벽체에는 연화문의 전돌로 내장하여 백제 양식의 요소도 가미했다.

2층 법당에는 아미타삼존불을 모셨으며, 후불로는 전통적인 탱화 대신 3백 여 관세음보살이 거닐고 있는 관세음보살 부조를 조성했다. 그리고 2층 법당의 특징은 기둥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대중을 수용하고, 법사와 불자들의 사이를 좁힌다는 취지이다. 또한 기존 사찰과 다른 점은 단청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젊은 층과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기존의 사찰과 다른 신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공사(工事) 아닌 불사(佛事)

1979년 임대건물에서 삼선포교원을 연 지광 스님(현 회주)과 묘순 스님(현 주지,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원장)은 불사의 원을 세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지금의 포교원을 어떻게 지을 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경주 분황사를 찾게 되는데, 모전탑을 본 지광 스님이 포교원 건물을 분황사 모전탑 모양으로 짓기로 한 것이다.

지광 스님과 묘순 스님을 중심으로 대중이 불사를 위해 머리를 모았다. 신영훈 문화재위원이 큰 그림을 그렸고, 구체적인 설계는 은하건축의 손정호(67) 건축가가 맡았으며, 시공은 코오롱 건설이 맡았다.

"우선 분황사로 내려갔죠. 모전탑과 똑같이 지어야 했으니까요. 모전탑의 모습을 사진과 노트에 가득 담아왔죠. 하지만 사진과 노트에 담긴 모전탑만으론 무언가 허전했어요. 사진에 담긴 모습과 노트에 적힌 숫자를 토대로 도면을 그리고 공사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했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분황사 석탑의 겉모습만을 옮겨오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 공사(工事)와 불사(佛事)는 다른 것이었다. 또 하나의 분황사 탑을 올리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의 '공사' 가 아닌 '불사' 였던 것이다. 특히나 탑을 세우는 일은 불사 중의 불사다. 탑 중에서도 불탑은 그 의미가 다른 탑들과는 다른 것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일에서 시작된 불탑의 기원을 생각하면 삼선포교원 불사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단순한 '축조' 의 개념을 넘어선 찬탄과 예배의 발현인 것이다. 불자였던 그는 이러한 불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부터 사찰 관련 크고 작은 불사를 해오고 있었던 손정호 씨는 어떻게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 지 고민했다.

"산사와는 달리 도심의 좁은 주택가에 지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건물의 외형이 석탑의 형태이고, 그 안에는 법당을 앉혀야 하는 새로운 불사였습니다.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한 신라의 석탑을 옮겨오는 작업이니 시대를 오가며 세월을 허무는,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신라의 불교문화가 있었듯 20세기엔 20세기의 불교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 냈듯이 20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은 20세기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외형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으면서도 다른 한 시대의 독창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시말해 전통을 잊지 않으면서 진화된 불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면 위에서 탑을 쌓고 허물기를 며칠, 그는 마침내 생각했다. 다른 공법과 치장은 필요 없었다. 그 옛날 분황사 마당에 탑이 세워졌듯이 집을 짓는다는 생각보다는 '탑' 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라 시대로 돌아가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올리던 불사의 현장

모전탑 외형 그대로 옮긴 3백평 법당
2층 법당 후불탱 대신 관음보살 부조
신영훈 큰 그림 그리고 손정호 설계
흙 구운 '전' 7만장 쌓은 전탑 형식

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득한 세월을 건너와 서울 도심에 그 시절과 똑같이 탑을 세운다. 삼선포교원은 분황사 탑과는 다르게 석재가 아닌 전통 공예가 김영림 씨가 직접 디자인하고 구워낸 전통 벽돌 '전(塼)' 7만 장으로 쌓아 올렸다. 모전탑이 아닌 전탑인 것이다.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삼선포교원 대중의 서원이 담겨 있다.

후손이 연구하게 될 또 하나의 역사 분황사탑

신라의 탑 양식은 목탑-전탑-모전탑-석탑으로 발전했다. 전탑은 흙을 구워 만든 벽돌, '전' 을 쌓아 세운 탑을 말하며, 모전탑은 전탑을 모방한 것으로 흙을 구운 전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 모양으로 가공한 석재(벽돌)를 쌓아 세운 탑을 말한다. 신라 탑은 전탑 양식이 유행하여 백제의 미륵사지 목탑 구조를 모방한 전탑과 결합하여 통일신라 석탑의 정형을 이룬다.

선덕여왕 3년(634) 분황사 창건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분황사 모전석탑은 원형이 몇 층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넓은 토석 기단 위에 안산암을 전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옥개석 받침과 낙수면은 모두 층단을 이루는 전탑 특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1층 몸돌에는 네 면마다 문을 만들고, 그 양쪽에 불법을 수호하는 힘찬 인왕상을 조각해 놓았다. 지붕돌은 위아래 모두 계단 모양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3층 지붕돌만은 윗면이 네 모서리에 위쪽으로 둥글게 솟은 모양이며, 그 위로 화강암으로 만든 활짝 핀 연꽃 장식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석탑은 시대를 건너와 새로운 역사와 문화가 됐다. 먼 훗날의 후손은 같으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역사를 관찰하고 연구하게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1983년 3월 1일 준공된 삼선포교원은 경주 분황사 모전탑 외형을 그대로 확대시켜 옮긴 혁신적인 불사다. 연꽃이 활짝 핀 지붕의 석탑이 절을 상징한다.


많은 대중을 수용하기 위해 기둥을 없앤 2층 큰법당


큰법당엔 아미타삼존불과 후불탱화 대신 관세음보살 부조를 조성했다.


1층 작은 법당엔 석굴암 현실과 동일한 돔을 만들고 16개의 감실을 벽면에 설치했다.

건축가 손정호는



조선대학교 병설공업전문대 건축학과와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국보건설단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975년부터 공동으로 '은하건축' 을 개소해 불교 관련 불사를 맡기 시작했으며, 1980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은하건축을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전국의 사찰 복원과 건립 등 불교 관련 건축을 하고 있다. 주요 불사로 순천 송광사 대웅전 중창불사 설계와 김천 직지사의 만덕전 신축 설계, 서울 봉은사 법당 신축 설계, 화엄사 삼성각, 종각 증축 설계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불교 관련 건축과 중요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다.



경의로운 최면의 세계 !!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학 강의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A CHANNEL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각종 케이블 방송외 다수 출연

1회 무료수강 가능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 · 사 기업체 출장강의 환영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현재 접수중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등표사다리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한국의 구법승

4. 장흥 보림사 창건한 원표 스님

서역과 중국 거쳐 신라에 화엄사상 펼쳐

중국 동남쪽 복건성 동북단 지역에 자리한 영덕 지역은 불교가 가장 일찍 들어선 지역 중의 하나이다. 진나라 때 이미 불교가 전파되어 불법 구도 활동이나 매장 풍속이 있었다.

지제산은 영덕 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천관보살과 그 권속이 상주하는 불교 도장에서 유래됐다. 지제산은 오늘날 중국에서 범어로 산명을 삼은 유일한 곳으로 천관의 지제산은 문수의 오대산, 보현의 아미산, 관음의 보타산, 지장의 구화산과 더불어 중국 불교의 오대 명산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제산에 천관사상을 처음 전파한 고승이 신라 원표(元表) 스님이다. 원표 스님은 구도의 원력 하나로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들어갔다가 천축으로 들어갔다. 천축에서 〈화엄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와 지제산 나라암에 들어 온 원표 스님은 이곳에서 한동안 두타행을 행하다가 다시 신라로 귀국해 장흥 보림사를 세웠다.

오늘날 중국불교계에서는 원표 스님이 〈화엄경〉과 천관신앙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지제산이 불교 명산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스님을 매우 높이 숭앙하고 있다. 나라암 나라사에는 원표 조사상이 봉안돼 있고, 지제산 지제화엄사에는 원표 스님을 개산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표 스님이 창건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장흥 보림사. 원표 스님도 경덕왕 때 국가화합에 크게 기여했다.



원표 스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흥사 보조선사비

서역 위구르로 구법여행

가장 오래된 기록인 송나라 때 찬녕이 저술한 〈송고승전〉의 〈당 고려국 승 원표전(唐高麗國僧元表傳)〉에는 원표 스님에 대한 얘기가 전해진다.

'원표 스님은 본래 삼한 사람으로 천보년간에 중국을 유람하였고 이어서 서역으로 가서 성적(聖跡)들을 참배하였고 심왕보살이 지제산 영부를 가리켜 드디어 〈화엄경〉을 짊어지고 곽동(지금 복건성 곽동진 화엄사를 말함)을 찾아가 천관보살에게 예배하고 지제산 석실에 이르러 집을 짓고 살았다.'

지제산은 〈화엄경〉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심왕(心王)보살이 '동남방에 지제산(支提山)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천관(天冠)보살이 그의 권속 일천(一千)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고 있다' 고 전하는 등 성스러운 산으로 알려져 있다.

〈송고승전〉에는 원표 스님이 인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내용이 없다. '서역에 가서 불적에 예배했다' 라고 되어 기록돼 있을 뿐이다.

조선 태종 때 쓰인 〈보림사사적〉을 보면 '원표 대덕(元表 大德) 선사가 월지국에 있으면서 처음 창건한 것이 이른바 가지산(迦智山) 보림사(寶林寺)이다. 산과 골짜기가 깊숙하고 물은 돌아 흐르며, 구름은 꽉 끼었고 지세는 넓고 평탄하여 당료(堂寮)가 구비하고 법려(法侶)들이 무리를 이루니 아름답고 상서로운 빛을 놓아서 불림(佛林)의 별세계가 되었으며 금모래의 보배로운 땅이라 절을 보림으로 삼으니 그 이름이 진실로 옳다. 돌아와 중국을 다니다가 월지국의 산과 같은 것을 얻어 절을 세우니 규모와 일상의 분위가가 월지국의 생김새와 한결같이 같았다. 산 이름을 이로써 하고 절 이름도 이로써 하였으며 회중(會衆)과 경전을 마련함도 월지국의 보림사와 더불어 같지 않음이 없었다.' 고 전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보림사는 서역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우전국이 월지국이라고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본래 월지국이 지금의 현재의 중국 신강 위구르지방에서 출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서역을 대표해 표현됐다고 보면 될 것이다.

원표 스님이 〈화엄경〉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서역은 오늘날 신강 위구르 지방에 있는 호탄을 가리킨다. 지금은 이들이 모두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원표 스님 당시의 불교국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이 기록에서는 인도를 의미하는 천축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으며 월지국과 서역이 원표 스님의 구법여행지로 묘사되고 있다.

왜 원표 스님은 서역으로 갔을까?

그런데 왜 원표 스님은 이곳으로 갔을까? 〈한서(漢書)〉 '서역기' (西域記)에는 '우전국왕은 서성(西城)에서 다스리고 있다. 장안에서 9천 6배 70리, 호수는 3천 3백, 인구는 1만 9천 3백, 승병은 2천 4백 명이다' 고 전하고 있다. 우전국은 현재 중국에 속해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인도와 가깝다. 이 지역에서 대승불교가 꽃을 피우고 〈화엄경〉이 완성된 것은 지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인도와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우전국의 역경 승들은 적극적으로 대승경전들을 번역해 중국에 전했다. 〈화엄경〉의 경우, 60화엄과 80화엄이 모두 이곳 사람들의 번역에 의해 중국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구법여행의 대상지였던 것이다. 화엄신앙의 본 고장으로 크게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당시 우전국 사람들은 불심이 돈독하여 탑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

〈법현전〉을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

위구르 지역서 80화엄 입수
중국 복건 지제산에 절 세워
회창법난 피해 귀국, 보림사 창건
서역 · 중국 · 신라 화엄 통섭한 선지식

앞에 작은 탑을 세우 놓았는데, 그 중 제일 작은 것의 높이는 약 2장쯤 되어 보였고, 불상을 그 수레 안에 세워 두 보살로 하여금 모시게 하였고 여러 천신들을 만들어 모시게 했는데 모두 금과 은으로 조각해 공중에 매달았다" 고 전해진다.

이미 한역을 완성했는데 많은 구법승들이 우전국으로 가 〈화엄경〉을 구하려고 한 이유는 산스크리트어 원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또 인내와 고행을 통해 구도하려는 실천수행의 뜻도 강했다. 〈화엄경〉을 짊어지고 중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화엄경〉 자체가 마치 탑이나 불상과 같이 신이한 영험을 지닌 대승경전이라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지제산에서 화엄사상 펼쳐

서역의 우전국에서 원표 스님은 자신의 구법여행의 목표인 〈80화엄경〉을 입수하고 또 심왕보살을 친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심왕보살은 천관보살의 주처인 지제산에 〈화엄경〉을 가지고 가서 수행하라는 계시를 했다고 한다.

"나는 서역을 주유하며 심왕보살을 친견하였는데(보살이) 나에게 이 경을 주었다. 또한 중국의 지제산은 천관보살의 주처인데 그 장소를 찾아서 경을 짊어지고 이르렀다. 거기서 이십 리를 가니 나가용담(那伽龍潭)이 바로 내가 찾던 곳이다."

〈80화엄경〉에는 '동남방에 장소가 있는데 지제산이라고 부른다. 옛날로부터 여러 보살들이 그 가운에 머물고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의 보살은 천관(天冠)이며 그 권속과 더불어 1천명이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며 법을 설한다' 고 전한다.

원표 스님은 지제산에 있으며 여러 자연환경의 악조건들을 극복했다. 맹수와 독충 그리고 귀신 등의 도전을 극복했다고 한다.

지제산 전설에 의하면 원표 스님의 화엄경 독송소리를 듣고 어느 날 나무꾼이 도착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땅에 절이 세워졌다고 한다. 원표 스님은 화엄경을 독실한 불자들에게 주고 이후 '하늘을 올라가 떠났다' 고 묘사된다.

장흥 보림사 창건 신라 화엄사상 중흥

'하늘을 올라 떠난' 원표 스님의 기록은 중국에서는 사라졌지만 장흥 보림사의 창건주로 다시 등장한다.

유감스럽게도 원표 스님의 행장을 담은 기록은 많지 않다. 하지만 원표 스님이 보림사를 창건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기록은 미국 하버드대 연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기〉에 남아있다. 이 사적기는 조선 세조3년 1457년부터 세조10년 146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림사 사적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사적기에 따르면 중국 지제산에서 화엄수행을 하던 그가 귀국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 훼불(회창법난)에 따른 피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귀국한 원표 스님은 피난민의 신분이 아니라 경덕왕의 지원 하에 가지산 보림사를 창건하고 화엄사상을 펼친다. 가지산사는 화엄종 사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원표 스님은 경덕왕의 개혁정치에 법력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에 경덕왕은 특별한 왕명으로 가지선사에 장생표주를 세우게 하여, 사찰에 면세 · 면역의 혜택을 주었다.

화엄사상은 원융의 관점을 제시해 당시 국민통합을 이끈 사상이기도 했다.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해 중생들의 비원을 수행과 기도를 통해 성취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원표 스님이 경덕왕의 지원을 받고 당시 지방 세력의 후원을 받은 것도 이런 화엄사상의 국가적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림사가 원표 스님에 의해 창건된 내용은 884년에 세운 보조국사 체증의 탑에 기록돼 있다. 현재 보림사 경내에 세월을 딛고 서있는 이 탑에는 체증 스님이 왕명에 의해 보림사로 거처를 정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왕의 뜻을 전해 가지산사(迦智山寺)로 옮겨 거처할 것을 청하였다. 드디어 마지못해 석장을 날려 가지산문으로 옮겨 들어가니, 그 산은 곧 원표대덕(元表大德)이 옛날 거처하던 곳이었다. 원표대덕은 법력으로써 정치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경덕왕 18년(759) 왕이 특별히 명하여 장생표(長生標)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그 표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탑비의 내용은 보조선사 체징이 보림사를 동국선종의 총본산으로 만들고, 구산선문 가운데 첫째인 가지산파의 중심지임을 확인하는데 이 절이 원표대덕이 창건한 사찰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원표 스님이 서역과 중국의 보림사를 찾아보고 돌아와 신라에도 보림사를 창건하겠다는 원을 세웠었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 원은 바로 이땅에 불법을 전하는 것이었다.

'대저 산 이름과 절 이름이 이미 서역 중국과 같고 앞의 원표 대사와 다음 도의대사와 뒤의 체징 대사의 세분 큰 스님은 모두 선문의 대각조사이시니 생령을 사계에서 제도하고 성화를 삼한에서 베풀었으며 여래의 마음을 만리의 밖에서 얻어 여래의 도를 만세의 아래에 전하시어 이 산으로 하여금 옥을 온축하여 산은 빛나고 보배 구슬을 간직하여 물이 명미하며 숲 골짜기가 힘입어서 중첩하고 법교가 무궁토록 드리움이라. 이 절에 거주하는 이는 가히 힘쓰지 않으리오. 절 북쪽에 원표 대사가 초창하신 땅이 있으니 이에 절을 세운 옛 자취이므로 인하여 고가지(古迦智)라 일컫고 아울러 여기에 기록하여 써 뒷사람의 이어받아 기술한 밑천을 여노라.'

노덕현 기자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태어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어

철야정진법문 ⑥

사실로 여러분의 몸뚱어리 걷어잡고 얘기를 해봤든 얘기 안 됩니다. 그건 무정물이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어리가 무정물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면 자연히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흘 안에 된다고 했어요. 사흘 안에 견성한다 이래 했어요. 도를 이룬다. 또 조금 미하면 석 달, 그 다음에 삼 년. 천하 없는 바보라도 삼 년이면 된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불문에 들어온 지 오래지 않아요?

오늘 저녁을 계기로 해서 참말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그래서 이 몸뚱이는 작용을 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거 도굽니다. 여러분은 도구를 갖다가 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라디오에 비유하자면 라디오에서 틀림없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노래하는 가수는 서울 방송국에서 노래하거든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절대 내라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정물이 내일 수가 없어. 또 내가 죽는 법이 없어. 원래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말이죠. 날 것이 없어. 죽을 것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불문에 들어서 도를 통한다 할 것 같으면 영생불멸한다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죽을 것이 있어야 죽지. 보고 듣고 말하는 놈 죽을 것이 있어야 죽는다 말이여. 죽을 것이 없어. 또 났어. 날 것도 없어. 났다 하는 것은 전부 헛거, 거짓. 바다에 파도가 이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봉 스님 글씨 써 놓은 것, 생불생사불사. 나도 난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래 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하니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저녁에 문제 꼭 해결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면은 내일은 바로 일심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심송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그만 여러분들이 의심하던 거 환하게 알게 됩니다. 딱딱딱!(죽비 치는 소리)

참말로 미안합니다. 더욱 더 부산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 말 한마디 들을라고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닙니까? 한데 말을 다 못해 드리고 해서 미안한 생각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점 다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지나고 한 내일이나 모래부터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해도 괜찮을 성 싶습니다. 오늘 한 시간쯤 할까요?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선문염송에 있는 글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보기 전에 우선 제일 첫째 불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불문에 들어간 지가 수십 년도 되고 이랬지만 말이죠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으로부터 불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을 준비하는 것, 난 이번에 바탕을 준비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바탕은 뭣을 뜻하는 거냐. 제일 첫째로 이거 첫 문젭니다. 이 육신에는 자체지가 없다. 그런데 자체지라 하면 또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 지혜가 없다. 이렇게 합시다. 글을 쓸 때

> **소리도 빛깔도 없는**
> **원래의 이 자리는**
> **'영생불멸' 을 의미**
>
> **나도 난 것이 아니요**
>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는 자체지라 해도 좋고 또 지혜라 해도 괜찮고 한데 자, 어쨌든지 이 육신에는 지혜가 없다. 그럼 지혜는 뭣이냐. 이건 뭣을 뜻하는 거냐. 눈이 보는 것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보거든요. 지혜 없는데 어떻게 볼 겁니까?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 혀가 맛보는 것 아니다. 이걸 딱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이거 알아집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또 다릅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이러는데 사실로 이거 그릇된 전쟁들입니다. 사고방식들이 달라서 이런 것 아닙니까? 또 종교가 종교 아니라서 이렇습니다. 종교가 바른 종교 같으면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차차 알게 됩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전쟁하는 것은 순전히 무식한 사람들의 소행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불문에 들어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련의 헤겔 같은 사람, 헤겔 굉장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그런데 잘못 짚었거든. 만일 헤겔이 살아서 서로 맞춰본다면 내한테 항복합니다. 그 절대성 상대성, 그 누구고? 유명한 아인슈타인 그 이도 근사하게 갔는데 잘못 짚었어. 그리하니까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어. 한데 이건 내일쯤이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몸뚱이는 지혜가 없다. 이건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다. 왜 그러느냐. 눈이 보는 것 아니고 귀가 듣는 것 아니고 혀가 맛보는 것 아니다. 그러나 이 눈이라는 기관을 빌리고 귀라는 기관을 빌리고 혀라는 기관을 빌리고 있다. 이것쯤은 이것만 딱 들고 있으면 저절로 이거 알아집니다. 그러면 나는 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걸 초월한 자립니다. 뛰어넘은 자리에요. 지금 여러분 말이지 몸뚱이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서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서 내 얼굴을 보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이라. 거짓말이 아니라. 그 기관을 쓰니까.

그러나 실은 알고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린데 도저히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다른 데 비유를 할라면 허공에다 비유를 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허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공이 참말로 없다면 산하대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 없는 것도 아니라 말이지. 그럼 있다. 산하대지가 나와 있지 않나? 그럼 니 한 번 찾아봐라. 못 찾습니다. 허공 이것도 있다 없다 이걸 뛰어넘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있다 없다 이걸 뛰어넘은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겁니다. 좌우간 어떻든지 이것이 시시한 말 같습니다만 이걸 모르고는 불문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자 사도밖에는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나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으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혀로 맛깔을 보나 혀로 맛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기관은 설사 내가 빌려서 썼을지언정 보고 듣고 맛깔을 보는 것은 딴 데 있다. 딴 데 있으면 뭣이냐. 몰라도 좋아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육바라밀 수행은 불방일 … '보살'

4-5 귀경례

흔히들 선정(禪定)을 닦는다고 말을 하지만 선정이란 확고 부동한 정각(正覺)을 이루는 방법인데 단지 그것만을 한다고 멍청히 도사리고 앉았기만 한다면 이는 정(定)에 계합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를 닦으면서도 선정에만 머물러 있지를 말고 어떤 일이건 사리지 않고 모두 다 해나가는 거기에 스스로의 정신이 통일되어 확고 부동한 자세를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으로는 반야반라밀(般若婆羅蜜)을 만족케 하고, 따라서 모든 진리를 이러쿵 저러쿵 헐뜯어 희론(戱論)하지 않는다. 또 부질없이 논술(論述)하지도 않으며 헛되이 안다니처럼 씨석받은 소리를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는 육바라밀(六婆羅蜜)이라고 하여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선정(禪定), 반야(般若)가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실(實如)히 수행(修行)한다고 하며 이를 실천 궁행하는 것을 불방일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신불인 아미타불은 문수(文殊) 보현(普賢)의 두 보살과 관련이 있다. 문수보살의 성격은 아미타불의 반야의 일면, 즉 큰 지혜를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며, 또 보현보살은 그 실천궁행하는 방면을 특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살은 보디사뜨바 마하사뜨바인데 중국사람은 원래 보리살타(菩提薩唾)로 좀 줄여서 번역을 했다가 다시 그것도 길다고 하여 아주 보살로 줄여서 말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요즘 유나이 티드 네이션즈를 UN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至心歸命禮大慈大悲觀世音菩薩大喜大捨大勢至菩薩摩訶薩(一拜)

앞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아미타불의 덕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부처님 노릇을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은 중생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하는 일면을 나타내 보여준다.

관세음보살의 관(觀)은 부처님 구세주(救世主)이라는 말이다. 세음(世音)이란 우리들 죄악의 많은 중생이 괴롭다, 괴로워 못살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하고 허덕이는 이 세상의 뭇소리라는 뜻이다. 바로 이 자리는 구세주로서 건지는 사람과 우리 중생이 한데 합일된 경지이므로 부처의 심정도 헤아리고 우리들 중생의 심정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격자를 표현하여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번역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이라는 스님이 한 것인데 그 뒤 당(唐)나라 때 현장법사(玄?法師)라는 이는, 이를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라고 바꾸어 보았다. 자재(自在)한 것을 살펴 본다 하는 뜻으로 새겼던 것이다. 그러나 관자재 보살은 인도말에는 더 가깝지만 우리에게는 관세음보살이 훨씬 정답게 들린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괴롭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다 우리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주었으면 하는데서 갖가지 청이며 온갖 소원을 들어서 우리를 곧 건져주시는 어른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관자재

> **'관세음보살' 은**
> **부처님 심정 헤아리고**
> **중생 심정 알 수 있는**
> **합일된 경지를 의미**
>
> **괴롭고 죄 많은 중생**
> **구제하고 건져주는 어른**

보살이라고는 보통하지 않는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아무데서도 관자재보살이란 말은 잘 안 한다.

관세음보살은 대승(大乘)의 정신(正信)을 일으킨다. 이 분은 곧 크나큰 대도(大道)의 바른 신앙을 일으키도록 하는 사람이다.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은 바른 생각을 일으키도록 해야한다. 대승이란 무엇인가? 기신론(起身論)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무엇인지 하나를 설명해야 할 것이 있고 무엇인지 크게 문제 삼을 것이 하나있고 무엇인지 그것을 진리라고 할까, 전 세계를 두루 표현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유일심(唯一心)이라거나, 또는 대승이라거나 아니면 진여(眞如)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대승을 다시 우리 현대어로 말한다면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고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회성 그것은 항상 공도(公道)라야 되고 정당한, 공정한 실체라야 한다. 사회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항상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신앙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환언하면 부처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 증거다. 부처의 씨가 종자가 끊어지지 않은 때인지라, 우리가 나는 부처님 제자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공정성을 띠고, 공정성을 실천하고 규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말 제자며, 씨가 되는 도리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희대사(大喜大捨)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하는 것은, 앞의 관세음보살의 경우와는 달리 중생을 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는 크게 기껍고, 용단을 내어 크게 버려야 하고 또 크나큰 위세를 가지고 있는 보살이란 것이다. 위로 부처의 도(道)를 넓힌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위로 부처의 도를 넓히는 데에는 원효대사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이변(二邊)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취하라는 것이다. 두 가지의 극단을 제거하고 공정한 중도를 택하는데는 확고부동한 신앙이 선행조건으로 요청된다. 또 이 신앙을 세우는데는 앞에서 말한 바대로 이 세상의 본체(本體)에 대한 뚜렷한 인식(認識)과 악과 사회관(社會觀)이 밝게 이루어져야 하며, 즉 진여(眞如), 법계(法界), 대승(大乘)이라고 하는 그것은 실체를 정확히 알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주관(宇宙觀)을 바르게 가진 다음에 이것은 다 이루어진다.

보통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심(一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글자그대로 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주와 사회의 실체인식, 그리하여 공정성(公正性)으로 풀이되고 또 내가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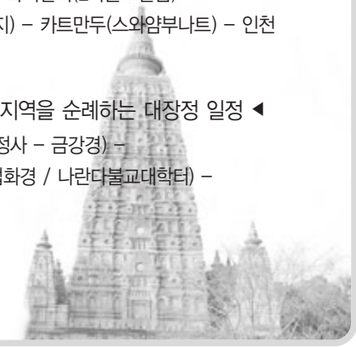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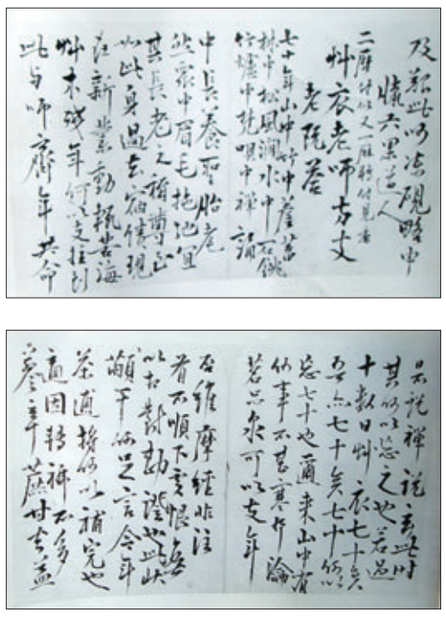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해를 같이하는 묘리 즐겁지 않은가

추사의 말년 편지는 담담한 소회로 가득하다. 자신의 나이가 이미 칠십이 되었다고 하니 이 편지는 1854년 12월 말경에 보낸 듯하다. 칠십이 된 자신의 삶을 회고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의 노사방장에게 노완이 답합니다.

칠십 년을 사는 동안 산중(山中)과 대나무 사이, 차나무 숲 사이, 솔바람 산골 물 사이, 차를 끓이는 동안에, 범패 소리 사이, 수행 중에 성태(聖胎)를 잘 길러 늙었지만 그러나 무리 중에 눈썹이 땅에 끌리니 장로라 존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나는 이처럼 칠십이 되었는데도 과거의 묵은 빚으로, 현재 새로운 일에도 움직이면 문득 고해가 됩니다. 초목 같은 나머지 삶을 무엇으로 지탱하겠습니까. 나와 그대가 함께 해를 같이하고 명을 함께함에 이른다면 날로 참선에 기뻐하고 현묘한 묘리에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그 어찌 잊겠습니까. 불과 열흘이 지나면 초의도 칠십이고, 나도 칠십이 됩니다. 칠십(이 된 내가)어찌 칠십(이 된 그대를)잊겠습니까. 근래에 산중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무 춥지는 않습니까. 차를 끓이고 물을 감별하는 것은 (나이 든)삶을 지행할 만합니다. 아닌가요. 유마경은 주가 아니면 순조롭게 읽어 내려가질 못하겠습니다. (그대와 함께)서로 헤아리고 증험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나는 사리에 밝지 못하니 어찌 족히 말 하리오, 올해 차포는 장차 어떻게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시겠습니까. 마침 다음에 보낼 인편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쓴 것을 먹지만 달게 느낄 뿐입니다. 지난 것도 더 보내시길…(艸衣老師 方丈 老阮答, 七十年山中 竹中 林中 松風澗水中 石磵竹爐中 梵唄中 禪誦中 長養聖胎 欵然衆中眉毛拖地地 宜其長老之稱尊 至如此身 過去宿債 現在新業 動輒苦海



추사가 칠십세를 앞두고 초의에게 보낸 편지

艸木殘年 何以支柱 到此與師齊年共命 日不說禪說玄 此時其何以忘之也 若過十數日 艸衣七十矣 吾亦七十矣 七十何以忘七十也 邇來山中有何事不甚寒耶 瀹茗品泉 可以支年否 維摩經非注有不順下處 恨無以相對勘證也 此狀顧干 何足言 今年茶逋 將何以補完也 適因轉(=遞)不多只餐辛蔗甘 去益)

이 편지에서 자신의 벗 초의는 칠십년을 사는 동안 속진이 없는 세상인 산중에 살면서 자연과 차를 벗하여 수행했기에 신성한 몸을 잘 길렀다. 그래서 늙었지만 '눈썹이 땅에 끌리' 는 선승의 풍모를 갖추었으니 '장로라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초의와 동년배인 추사 자신은 칠십이 다 되도록 전생에 지은 묵은 빚도 청산하지 못한 채, 현재에도 '움직이면 문득 고해가' 되는 어려움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 그의 삶을 지탱케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그대가 함께 해를 같이하고 명을 함께함' 이다. 그렇게 하면 '날로 참선에 기뻐하고 현묘한 묘리에 즐겁지 않겠느냐' 고 하였다. 이는 진정 추사의 속내였으리라. 불과 10일이 지나면 칠십이 된다니 이 편지는 대략 1854년 12월 20일 경에 쓴 것이다. 칠십의 나이란 공자도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 不踰矩)' 라 하지 않았던가. 마음이 가는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세월을 살았던 추사의 소회는 무엇일까. 아마 진실한 소통의 의미를 나눈 벗, 초의와 추사는 실로 서로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가 보다. 그가 '칠십(이 된 내가)어찌 칠십(이 된 그대를)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이를 나타낸다. 특히 거사선(居士禪)에 큰 관심을 보였던 추사였기에 그가 〈〈유마경〉〉을 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석의 실마리를 열어주는 주(注)가 없다면 읽을 수 없었던 그였기에 초의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단다. 조선 후기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가 〈〈유마경〉〉을 읽을 수 없어 서이겠는가. 이는 벗을 그리워하는 정회를 이리 표현한 것이리라. 한편 추사의 말년, 초의가 보낸 차는 그를 즐겁게 동반자였다. 아마도 추사는 초의가 보낸 차에서 초의를 만나고, 차의 향기에서 벗의 지극한 마음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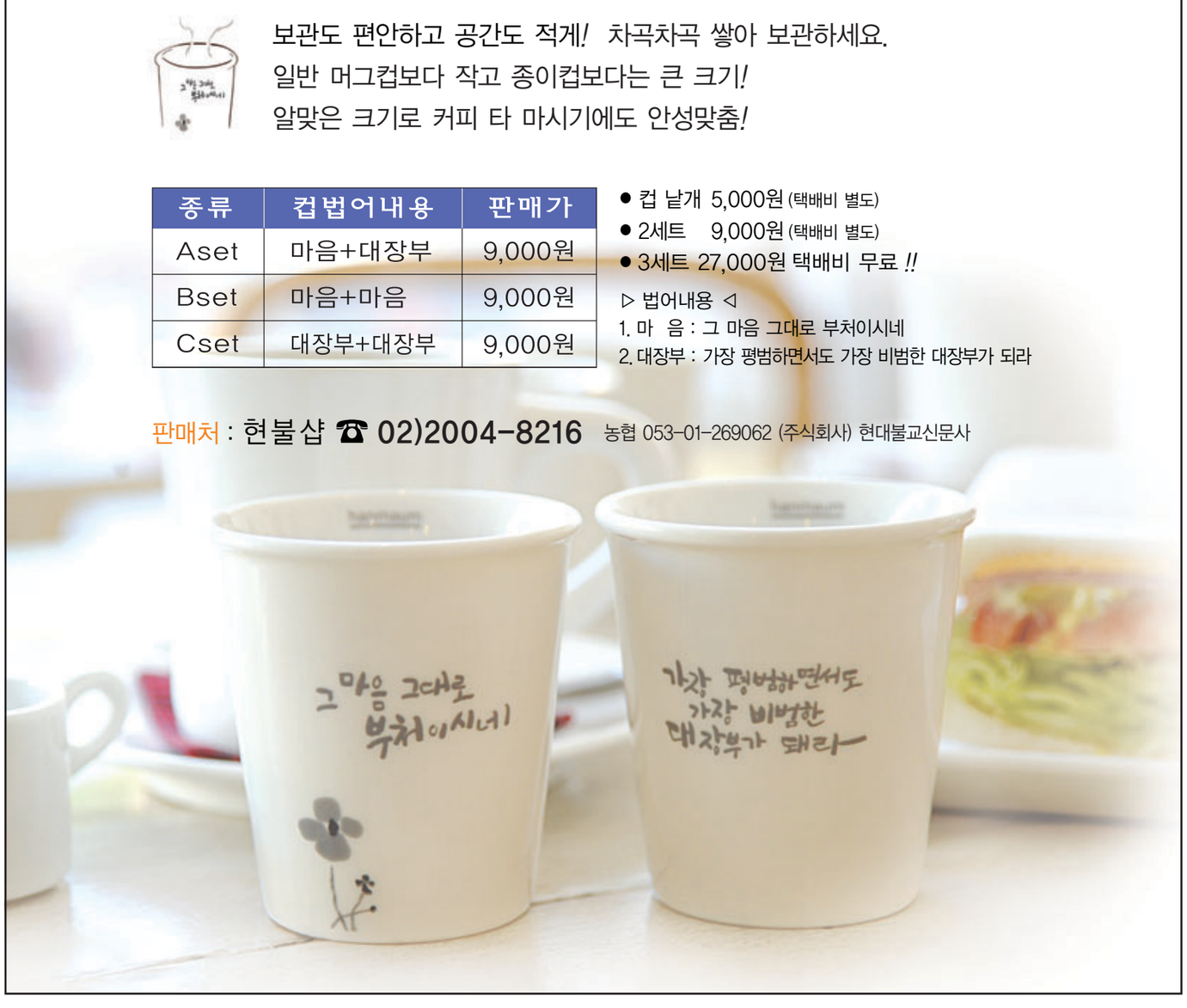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법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낱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법어내용 ◁
1. 마 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학문·수행·전법 모두 '정토가꾸기'의 한 길

보광 스님 (동국대 교수·성남 정토사 주지)

2000년 6월 6일, 서울 청계산 자락에서는 불교를 새롭게 하자는 뜻 깊은 운동이 일어났다. 바로 만일염불결사다. 예부터 국난기나 교단의 부패가 심할 때 결성돼 새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 염불결사, 이날 모인 1000여 출재가 대중들은 2027년 10월 22일까지 27년5개월 동안의 긴 수행을 시작했다.

만일염불결사를 이끌고 있는 보광 스님을 만난 2월 11일은 결사 5000일을 맞는 날이었다. 한국불교학계 최초의 정토학 박사인 보광 스님은 1982년 성남 정토사를 창건해 포교와 재가자 교육에 매진해왔다. 만일염불결사를 비롯해 한글대장경 전산화, 정토학회 창립, 국가인권위원 활동 등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남산의 한 자락에 자리한 동국대 스님의 연구실에서는 논문을 윤독하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연구원 문을 두드리니 책들로 가득한 소박한 방안에서 스님이 편안한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불교 혼탁할 때 새 불교운동으로 일어나

보광 스님은 종교의 신앙에는 구심점이 뚜렷해야 함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행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앙결사는 바로 자신이 일생동안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대발원이며 불교가 혼탁했을 때 전개된 새 불교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신앙결사인 정혜결사는 참선을 주로 해 민초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반면 원묘 요세 스님의 염불결사는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불교 내에는 참선 외에도 염불과 같은 여러 근기에 맞는 수행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근래에 이런 수행법들이 맥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비구·대처 간 정화에서 참선 위주로 나가며 염불을 비롯해 여러 불교의식 등의 전승이 단절됐어요. 2000년도부터 '한국 불교의 신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염불결사 운동을 펼쳐야 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토사의 염불만일결사의 핵심은 스님의 지론처럼 신행활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중국 여산 스님의 〈반주삼매경〉과 원효 스님의 〈아미타경소〉에 사상적 근원을 둔 염불만일결사는 △매일 108배를 하자. △매일 1000번 이상 칭명염불하자. △매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처님 전에 100원 이상 보시하자는 지침으로 진행된다.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는 철야정진이, 1년에 한 번씩은 계를 다시 받으며 참회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불교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신앙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행만을 강조했지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약속인 신심과 발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염불을 많이 했어요. 상근기를 위한 참선수행법이 있다면 나머지 하근기 대중을 위한 염불수행법을 보급해야 합니다."

스님은 "일본의 경우에는 임제종이나 조동종의 선불교도 있지만 정토·법화종 같은 종파들이 서민들의 신앙적 갈증을 다 해결해 주니 개종할 필요가 없어 기독교 비율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타력 염불+자력 선=불퇴전의 염불선

스님은 한국불교 저변에 자리한 타력신앙에 대한 낮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보통 타력이라면 무조건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불교의 연기법 자체가 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숨 쉬고 하루 생명을 유지하는데 타력이 아니면 단 5분도 못살아가요. 타력이기에 연기인 겁니다. 저는 불교야 말로 적극적인 타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유일신적 타력이 아닌 연기론적 타력이라는 거지요."

스님은 "염불수행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 그 경계를 관하는 관상염불, 그 다음에 염불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염불하는 이 주인이 누구냐는 의심을 화두로 삼을 수도 있으니 염불과 참선이 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염불이라는 타력과 선의 자력이 합쳐지는 것이 염불선입니다. 그렇게 해야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지요. 수행을 할 때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금생에는 부처님을 확인하고 내세에는 왕생극락하는 것이 염불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수행해 살아서 부처님 못 뵈면 죽을 때라도 친견해야지요."

어려서부터 정토사상과 인연 깊어

이러한 정토사상과 스님과의 인연은 어려서부터 이어졌다. 스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모친의 병환으로 인근 사찰을 찾은 보광 스님에게 당시 사찰 주지 스님은 "너희 어머니가 회복하려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밤잠도 자지 말고 다른 생각도 말며, 오직 관세음보살만 찾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님은 어린 마음에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님을 살려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당에서 하룻밤, 이틀 밤을 새우면서 일심으로 불렸을 뿐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7일이 지나 회향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 병명도 몰랐던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겨울 법당에서 추웠다는 생각보다는 한 밤중에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 같아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은 그 이후 불교학생회 활동을 할 때 스님이 돼 불교를 중흥시키자며 인사할 때도 '성불합시다' '불교중흥합시다' 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원효 스님이 활동하신 경주 분황사에서 행자생활과 학업을 계속하다 이듬해 출가했는데 은사인 도문 스님이 분황사 약사전 현판인 보광전(普光殿) 이름을 따 보광이라 법명을 지어주셨다.

염불만일결사는 새 불교 신행운동
2월 12일 5000일 회향…1759명 동참
1982년 정토사 창건, 사찰재정공개
일본서 정토 전공, 한국 정토학 이끌어
논문 150여편, 한국불교 정토사상 정리
대각사상연구원 설립, 정토학회 결성
불교는 유일신적 아닌 연기론적 타력신앙
인권위·호스피스·후진양성 등 활동 다양
"자비와 지혜의 조화…정토구현 나서자"

출가 이후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진학했다. 여기서 스님은 '정토학' 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3학년 때 〈정토삼부경〉 과제를 했는데 평소 염불기도를 해서인지 마음에 계합이 되었어요. 이후 일본에 정토학으로는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스보이준에이 교수님 지도를 받으며 정토를 깊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 교수로 정토사상을 신라시대부터 최근까지 총정리 했다. 일본에서 학위 논문으로 원효 스님의 정토사상을 비롯해 신라 정토사상을 연구했으며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 특히 서산사명 스님 제자들의 정토사상에 대한 논문을 펴냈다. 스님이 펴낸 논문은 150여편으로 책도 20권에 달한다.

스님은 "초의, 영담유일, 백용성 스님까지 하면 한국 정토사상을 총정리하는 셈"이라며 "향후 한국 정토사상을 총 망라한 책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현재 25년째 일본 도원 스님의 '정법안장' 을 번역해 주석을 달고 있는데 20년을 더해 95권 전체를



성남 정토사 염불만일회 법회의 한 장면. 염불만일회 법회는 함께 염불하며 정토를 발원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보광 스님은 … 1951년 태어난 보광 스님은 경주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각원장, 100주년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원장 등의 소임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각사상연구원 원장,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국제전자불전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토사 주지를 맡고 있다.

강의서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용성 스님의 전서 30종도 새로 번역하고 있다.

스님의 정토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자불전연구소와 대각사상연구원 등을 세운 것. 스님은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를 완료하기도 했다.

스님은 "요즘시대에 부처님 말씀을 전산화해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 이 이상 복 짓는 일이 없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성남 정토사는 불국정토 구현 터전

스님은 학문적 성과 외에도 주석사찰인 성남 정토사를 정토구현의 터전으로 만들고 있다. 정토사의 만일염불법회에는 모두가 목탁과 악기를 치는 신명이 넘치는 법회가 진행된다.

"염불이 대중화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대중이 함께 하는데서 비롯됩니다. 목탁뿐만 아니라 북, 징 등을 치며 모두 함께 염불하는 순간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모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정토사도 사부대중의 평등구조에서 운영된다. 스님은 1982년 사찰 재정을 모두 공개해 신도회가 관리하도록 했다. 신도들의 신뢰 확보는 정토사가 초창기 100평 규모에서 7000평 규모로 도량을 키우는데 원동력이 됐다. 스님은 여기에 2차, 3차 염불결사 등의 진행을 위해 대각회에 사찰을 헌납하기도 했다. 정토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은 최근 700평 규모의 염불만일결사 회관을 짓기로 결의하는 등 중창불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관에서는 호스피스 교육을 비롯한 정토사상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호스피스 · 장례문화 운동 적극 전개

스님은 정토사상을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997년 동국대에 장례문화학과를 만들기도 한 스님은 호스피스 운동, 인권위원회 위원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왜 정토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지에 대해 "잘 죽자는 것은 잘 살자는 것"이라며 "염불 또한 생사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노령화 시대에 필요한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갈수록 정토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임종 수계를 다니며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돌아가실 때 80%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죽어서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임종수계를 받은 사람은 숨이 끊어져도 얼굴이 편안해요. 극락에 간다는 임종염불은 인간이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마지막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가 이 운동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스님은 이어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했다. 스님은 "적어도 불교를 믿는다면 불보살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며 "그 확신이 없으니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부처님의 본원력이 아무리 커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안되요.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부처님의 본원력을 간절히 믿을 때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는 겁니다. 돈 한 푼 없었는데 경전을 전산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힘을 믿으니 이뤄진 겁니다."

스님은 그런 면에서 불교계가 불자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가 내세관을 뚜렷이 제공해야 한다"며 "호스피스 문제, 내세 문제 등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사회에서 종교는 타력의 자비와 자력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펼치는데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토행자로 정토세상을 구현하는데 함께 정진해 나갑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982년 보광 스님이 창건한 성남 정토사 전경



스님이 세운 전자불전연구원에서 전산화한 한국불교전서

전법일기

군인이 되는 과정과 출가의 과정

어느 날 신병교육대대 법회에서 병사들과 재미있는 대화로 인해 한바탕 웃은 일이 있었다. 이날 유독 머리가 돋보이는 훈련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고 스님들처럼 완전히 삭발한 상태였다. 보통 훈련병들이 머리가 짧은 것은 당연하지만 워낙 삭발을 한 탓에 유독 튀어 보였다. 법회 후 간식 시간에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내가 머리에 대해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했다.

"법사님, 수계법회 때 이 친구는 법명을 '민모'로 지어 주셔야합니다."

"무슨 말이니?"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이 없지 않습니까? 털이 없으니 민모 아닙니까. 게다가 이름도 민모입니다."

"아 그렇구나. 본명도 민모구나. 하하하!"

이름도 '민모'이고, 또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법명도 우스게 소리로 '민모'로 해달라는 것이다. 군대에 들어오기 전 젊은 장정들은 나름 숫사자의 갈기 머리처럼 멋지게 하고 다닌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 전날 친구들과 함께 아쉬움을 달래며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또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다. 모두들 군대라는 곳으로 마치 출가라도 하듯 맨머리가 되면 시원섭섭함과 아쉬움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한다. 머리카락을 깎인 심정이야 오죽하랴!

오늘도 군대 입대하는 젊은 장정들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훈련소로 향한다.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첫 걸음으로 머리를 깎는다. 법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빡빡 깎은 머리의 그 병사를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다.



그림 · 박구원

'깎인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적인 상태 변화만을 보여 주는 것일까? 부모 슬하를 떠나고, 친한 친구와도 이별을 하며, 집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발길을 내딛어야 하는 그들에게 머리를 깎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징표는 아닐까? 어쩌면 소년으로 살다가, 이젠 청년으로 살기 위해, 소년의 힘이 아니라 청년의 힘으로 성장하기 위해, 치열한 통과의례를 치르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통과의례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그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련이 아닌 자신의 소중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이러한 통과의례는 진정한 자기 성숙을 위한 과정이 아닐까?'

군인이 되는 과정 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인->장정->훈련병->이등병으로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젊은 청년의 진정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에 필요한 참다운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군인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시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부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고타마 부처님께서도 시련이 있었다. 과정없이 한 순간에 깨달은 분이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고행을 몸소 체험하시었고 나아가 그 고행마저 벗어나서 바른 수행을 통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발견하시었다. 이 체험은 사문 고타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정각을 이룬 부처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의욕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법사님!"

소위 고문관이라 불리는 문제 병사, 부적응 병사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보면 그들의 눈과 행동 속에서 새로 태어나게 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훈련병 시절은 약 40일 가량 된다. 짧게 머리를 깎은 40일간 진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행군도 하고, 땅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포복도 하며 각개전투를 벌인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나는 머리를 깎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꾼다.



힘든 하루하루지만, 삶의 과정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와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 탁 - 혜 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마음 챙김은 개인과 사회전체의 선물

〈타임〉지 명상 커버 사진 논란

〈타임(Time)〉지의 최근호 커버 사진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Huff Post)〉지는 "2월 3일자 〈타임〉지가 'Mindful Revolution'이라는 커버 스토리에 '금발의 백인 미소녀가 명상하는 모습'을 표지 사진으로 게재한 것에 대해 '마음챙김(Mindfulness)이 백인의 전유물인양 비추어질 여지를 담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비판은 사실 〈타임〉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미 '마음 챙김'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금발 백인 여성의 아름다움과 명상을 동일시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것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허핑턴 포스트〉 지는 "이번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는 마음 챙김 커뮤니티의 내재된 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며 "〈타임〉 지는 과거 '명상과 과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금발 백인 여성'의 모습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해 비판을 불러일으킨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허핑턴 포스트〉지는 〈트라이씨클(Tricycle)〉의 조안나 피아센자 사이트 매니저의 말을 인용, "단순히 명상의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타임〉지가 대중이 주목하는 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반발을 사는 것은 스스로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핑턴 포스트〉지는 러셀 시먼스 데이비드 린치 재단(David Lynch Foundation) 이사의 말을 인용,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주제이자 미국 실리콘 벨리의 기업 문화로도 각광 받고 있는 명상은 '몸과 마음의 조화와 이상'을 실현하는 방편"이라며 "동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 챙김'의 혜택을 입고 있다. 따라서 성별, 인종, 사회 · 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개인과 사회에 확대된 '마음 챙김'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Time)〉 지 2월 3일자 표지. 마음 챙김 관련 커뮤니티는 〈타임〉 지의 타이틀 기사 '마음 챙김' 표지 사진으로 '금발 백인 여성'을 내세운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 명상이 백인 여성의 전유물?
> 〈허핑턴 포스트〉지 강하게 문제 제기
> 인종, 지위 등 관계없이 모든사람 공유


데이비드 린치 재단은 불우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명상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참전 군인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재활센터에서 '초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청소년의 심성을 닦고,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낮추며, 참전 군인들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등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패터슨 고등학교(Patterson High School · 볼티모어) 벤스 벤톤 교장은 "지난 4년간 하루 15분의 명상 요가를 진행할 결과 학생들의 자부심과 자기 인식이 개선되었고, 보다 나은 의사 결정 방법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PTSD 재활센터 밥 로스 박사도 "데이비드 린치 재단의 후원으로 10,000명의 참전 군인들에게 '초월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전 군인 대부분이 우울증과 PTSD 증상이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허핑턴 포스트〉 지는 "'마음 챙김'은 노인 복지 분야, 호스피스 분야, 약물 중독 치료 분야 등 사회적 웰빙을 추구하는 데에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코신 페리 엘리슨 스님과 로버트 쵸도 캠벨 스님의 '편안한 임종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대부분 "'마음 챙김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평온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의 클리브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의 '코드 라벤더(Code Lavender)'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음 챙김과 연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코드 라벤더'를 진행을 맡고 있는 에이미 그린 박사는 "의사와 간호사도 역시 사람"이라며 "'코드 라벤더'는 환자를 위한 완화 치료로 시작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참여하고 있어, 그 효과의 임상학적 결과에 관련 연구자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17c 머리카락 불화, 대중 첫 공개

日, 극락왕생 발원 수만 명 머리카락 보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300년 전 불화가 일반에 공개된다. 불화에는 극락세계 발원의 염원이 담겼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월 8일부터 일본 교토 히가시마야구(東山?)에 위치한 정토종 교토교구교무소에서 '발수(髮繡) 열반도'가 첫 전시에 나섰다.

석가모니의 열반당시를 묘사한 불화는 2007년 교토에 위치한 조간지사(成願寺)에서 발견됐으며 높이 1미터 70센티, 넓이 84센티로 모두 인모(人毛)로 제작됐다.

작품은 일본에서 불화로 유명한 쿠넨(空念, 생몰 미상) 스님에 의해 1678년 만들어졌다. 쿠넨 스님은 72점의 자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8점에 불과하다. 열반도는 이번에 발견된 작품이 유일하다.

스님은 당시 일본 만행에 오른 중 만난 사람들로부터 얻은 머리카락으로 한 땀씩 정성들여 작품을 완성했다. 사후 극락 천도를 기원하며 머리카락 보시를 한 사람들 덕분이다. 역사적으로 머리카락은 자신의 생명과 동격으로 여겨 신에게 바치는 등 종교적 신앙을 표현하는 데 종종 쓰인바 있다.

검은색 머리칼은 그대로 작품 중앙에 누워있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되었고, 나이든 사람들이 보시한 흰머리는 사라수(沙羅樹)를 표현하는 데 쓰였다. 사라수는 석가모니가 구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속에서 열반에 들자 죽어버렸다는 나무다.

고베가쿠인대(神??院大) 일본 문화역사학 아츠코 히오키 교수에 따르면 작품 완성에는 수 만명의 머리카락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아츠코 교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불화 등에 부분적으로 쓰인 경우는 있었지만 이 작품처럼 불화 전체에 쓰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작품의 희소성에 대해 강조했다.



300년 전 발수 열반도가 일본에서 대중에 첫 공개됐다.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섬세하게 부처님 열반당시를 묘사한 작품에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노보루 토무라〉

머리카락은 자연적 색감과 질감이 뛰어나 작품의 생동감을 살리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머리카락이 가지는 탄력성 덕분에 오랫동안 변색되지 않고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머리카락 자수인 파시우(髮繡) 공예가 당나라 때부터 성행한 이유다. 파시우 공예는 불심있는 신자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관세음보살을 수놓는 불공에서 유래했다.

정토종 측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화에 담긴 사람들의 염원을 섬세히 느껴보았으면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관람은 10시부터 3시까지 무료다.

배현진 기자

스노우보드, 불교 수행과 '비슷'

크리스핀 립스콤 선수, "도전하고 공포 극복하는 과정"


스노우보드 선수 크리스핀 립스콘은 불교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불교의 긍정적인 관계는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 스노우보드 선수의 각별한 '불교 사랑'은 동계올림픽 시즌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9일 "캐나다 스노우보드 대표로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크리스핀 립스콤(Crispin Lipscomb · 34) 선수가 불교의 지혜에서 경기력 향상의 실타래를 풀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핀 립스콤 선수는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처음 만든 이들이 추구했던 세계와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상통한다"고 말하고, "5~6년 전 한국의 천년고찰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불교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불교와 스노우보드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스노우보드를 탄다는 행위 자체는 매 순간 육체적, 정신적 도전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포를 극복해야 하는데, 불교의 수행 역시 그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호주 심장부에 불교센터 세워진다

캔버라 불교공동체, 나라분다 지역에 5월중 개원

호주의 수도 캔버라(Canberra)가 호주불교의 중추 도시로 우뚝 설 전망이다.

〈캔버라 타임즈(Canberra Times)〉지는 11일 "캔버라 시의 불교 인구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캔버라 불교공동체는 교세 성장에 맞추어 도심에서 포교의 주요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불교센터를 세울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3년 전 캔버라 나라분다(Narrabundah) 지역에 조성된 '불교정원(Buddist Garden)' 옆 부지에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높이 8.5미터의 단층 규모 불교센터가 건립된다. 이와 함께 불교정원에 조성된 7미터 안팎의 금동입상 부처님을 센터 중앙 홀에 이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전한 캔버라 불교공동체의 엠마 켈리(Emma Kelly) 대변인은 "센터 건립에는 414,600호주달러(약 4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캔버라 불교공동체는 지난 2008년부터 불교센터 건립을 준비해 왔으며, 3년 전 나라분다 지역에 농장 부지를 매입, 불교정원을 조성한 것이 그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엠마 켈리 대변인은 "새롭게 들어설 불교센터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출 뿐만 아니라 불자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라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분별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캔버라 불자들의 서원이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불자들은 오는 3월 초순 불교센터의 착공식을 진행해 4개월 이내에 개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캔버라 지역의 불교 인구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2.6% 증가했고, 대부분 상좌부 전통의 불교도로 나타났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 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생전예수재 특강
◇원서교부 : 2014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4년 3월 7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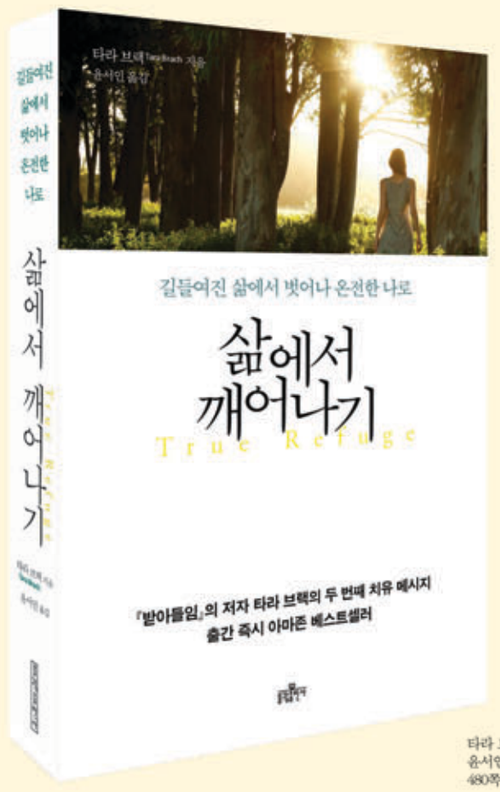
■ 강주스님 : 성 우
◆ 개강일시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종무원과 경북종무원이 통합하기에
2014년부터 한곳에서 수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 북 교 구 종 무 원

나를 믿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타라 브랙 지음, 윤서인 옮김, 480쪽, 20000원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삶에서 깨어나기
True Refuge

2013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받아들임』의 저자 타라 브랙의 두 번째 치유 메시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흔들리는 인간관계,
위중한 질병,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외로움과 좌절 앞에 휘청거리는 당신에게 전하는 치유 메시지.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 있으며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치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타라 브랙 미국의 저명한 명상가이자 임상심리학자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영성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녀가 설립한 워싱턴 D.C. 통찰명상회에서 모임이 열리면 베데스다의 유니테리언 교회 앞은 몰려드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며, 그녀의 강연 동영상은 매월 2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고 있다. 그녀는 서양의 심리치료법과 동양의 불교명상을 결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있으며, 다양한 불교 평화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내공에 대하여



어른의 공식

장연 지음
320쪽
15000원

'번쩍이는 깨달음이 있는 인생 이야기
그 속에 삶을 대하는 선사들의 빛나는
통찰력이 있다'

『어른의 공식』은 인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선사들의 이야기 77편을 담았다. 우리의 선입견을 단박에 깨부수는 기막힌 반전을 통해 선사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정된 틀을 깨부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준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ϕ×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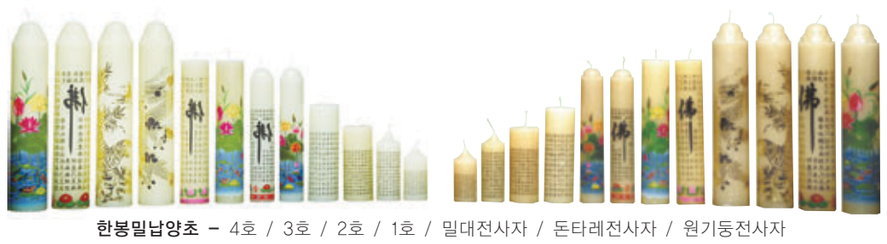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천년의 탑 사진 '화엄'의 꽃을 피우다

허경순 사진전 '법계' …2월 18일~23일 대구문화예술회관서



"해발 천 미터의 깎아지른 절벽을 딛고 삼층석탑이 솟아 있다. 아니, 하늘을 받치고 있다. 법화경의 '견보탑품(見寶塔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와 달이 보탑을 가로지르고, 밤낮없이 별들이 무수히 맴돌아 간다. 등대! 삼층석탑은 은해(銀海)의 등대다. 별들은 대견사 삼층석탑에 의지하여 은빛 바다를 찬란히 항해한다. 보탑 등대는 그렇게 천 년을 서 있었고, 또 그렇게 억 겁을 서 있을 것이다. 법계(法界), 그 천 년의 흔적! 우주 전체가 화엄(華嚴)의 꽃 한 송이요 부처의 자리이니, 윤회 중생의 아름다운 법계(法界)이어라."

– 허경순 작가 노트 中에서

자연을 머금은 대구 달성군 비슬산 대견사지 3층 석탑의 찰나 찰나가 25점의 흑백 사진에 담겼다. 허경순 작가〈사진〉의 사진전 '법계(法界)–그 천 년의 흔적' 이 2월 2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제5전시실)에서 열린다.

허 작가는 법화경 기도중에 만난 대견사지 3층 석탑을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바로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보았던 그 탑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해발 1000m 위 대견사지를 찾았을 때 거친 비바람과 천년의 세월을 이겨낸 석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탑은 우주를 한 몸에 안고 있었죠. 4년째 하안거 때마다 법화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탑을 보는 순간 법화경의 '견보탑품' 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작가는 탑과 그 주변의 자연에서 우주를 발견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담겨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탑 위로 달과 별의 섬광이 지나가기도 하고, 아침 일출의 장엄함이 표현되기도 한다. 여름 한낮 무성한 잡초 속 탑은 법화경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한다.

"이 장면은 과거불 다보여래가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 나타난 모습을 연상케 해요. 다보여래는 설법을 증명하기 위해 탑을 공중으로 띄우니 중생들도 탑을 보고 싶다 하여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 올려주죠. 탑 앞의 풀들은 중생들을 의미합니다."

허 씨는 작업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70여 차례 대견사지 3층 석탑을 찾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비 오고 눈 오는 기후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었다. 힘들지 않았다. 별이 쏟아지는 밤에는 환희심마저 일었다. 그에게 탑은 그냥 탑이 아니었다. 해와 달, 별, 구름, 운무를 천년 동안 바라보고 세월을 견뎌온 하나의 우주였고 찰나 속 생멸을 이야기하는 진리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 촬영이 가능할 수 있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행하는 다라니 기도와 하안거 법화경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법화경 기도하며 만난
비슬산 대견사지 3층 석탑
25점 흑백 사진에 담아



허경순 작가는 견보탑품에 나오는 다보여래 설화를 연상하며 대견사지 3층 석탑 사진을 촬영했다. 탑 아래 풀들은 중생을 의미한다.

"하루에 한 컷 밖에 못 찍을 때도 많았어요. 자연의 변화에 따라 그 각도를 달리해 사물을 포착하려고 하니 쉬운 일은 아니었죠. 길도 험해서 오르내리기 쉽지 않았는데 70번은 올라 간 거 같아요. 탑 앞에서 기도를 자주 했어요. 어떤 날은 기도를 하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 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해칠 마음이 없으니 뱀도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 모두가 기도의 힘이었죠."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너무 행복했다. 그저 탑이 좋아서 찾아 갔는데 그 맞은편이 절터였다는 사실도 또 이곳이 중창 불사로 복원이 된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저는 운이 너무 좋아요. 촬영 내내 작업을 도와주는 좋은 분들을 만났죠. 대견사 중창 불사가 이루어지니 제 작품과 관련한 전시 문의도 들어오고 있어요.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죠. "

그녀의 행보는 바쁘다. 3월 1일 대견사 중창 개산대재 이후 달성군청 전시와 초파일 동화사 전시 등이 계획 되어 있다. "중창 개산대재가 끝나면 절에서 머물고 기도하며 3층 석탑의 모습들을 더 많이 찍어내고 싶어요. 탑은 천년의 세월 동안 주변 노을과 별과 바람을 보며 살아 왔는데 제가 본 것은 찰나잖아요. 좀 더 오랫동안 머물며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 제 2 제 3의 법계를 만들어 내고 싶어요."(053)606–613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허경순 작가의 사진전 '법계(法界)' 가 2월 2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탑과 그 자연의 변화를 흑백 사진 26점에 담았다. 사진은 달과 별의 섬광이 탑 위로 지나는 밤 촬영 장면.

부산박물관 리모델링 동래관 개관

불교유물 등 900여 점 상설 전시

부산 박물관은 대표 유물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을 2월 28일까지 전시한다. 부산박물관은 6개월간의 전시관 리모델링을 공사를 끝내고 2014년 제1전시관은 동래관, 제2전시관은 부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상설 전시관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부산박물관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을 이달 말까지만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부산박물관은 "부산 박물관의 대표 유물이지만 30년 넘게 전시돼 많이 마모된 상태라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관 기념으로 한 달 정도만 전시를 하고 수장고에 보관한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상설관에서는 석탑, 소조불두, 사리호 등 불교 유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국보 233호 석남사지 납석재 사리 호는 766년 제작된 유물로 다라니경을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운대에서 출토된 석탑 또한 주목할 만하다. 나말여초 무렵의 석탑으로 해운대 호텔 정원에 있던 것을 경주 박물관으로 옮겼다가 이번 동래관으로 옮겨 왔다. 마모가 극심하지만 목탑형식으로 만든 석탑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남구 용당동 소조불두는 이 자리가 사찰이었음을 짐작케한다. 부산박물관은 "용당동은 신라시대부터 남해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며 고려시대 형변 부곡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흙으로 만든 불두와 각종 기와, 고급 상감청자 등이 출토되어 사찰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국보 200호 금동보살 입상
28일까지 전시…수장고로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

동래관의 전시 유물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래 주변 유적에서 출토한 것이다. 부산박물관은 "동래라고 하는 명칭이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사용 돼 조선시대까지 부산의 중심이 됐기에 동래관이라 정했다. 이번 동래관 개관으로 지난 10년간 부산지역에서 축적 발굴 조사된 유물 총 900여 점이 선보이며, 이 중 약 80%는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다. 30여점의 불교 유물도 전시된다"고 설명한다. (051)610–7111

정혜숙 기자

명상 만다라 만나 '힐링'으로

한국만다라연구협회 만다라 전시
22일까지 부산시청 제2전시실서

그림을 통해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만다라 전시회가 개최된다.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2월 22일까지 부산시청 제2전시실에서 '치유와 휴식, 성찰전' 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동아대 평생교육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 과정을 마친 10명의 만다라연구협회 회원들이 참여한다.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완성해낸 '법륜' '만월밤의 물고기' '연꽃' '선을 담다' 등 만다라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김유진 동아대 평생교육원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과정 지도교수는 "만다라 미술 작업은 휴식과 내면의 치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가져다준다. 자기를 찾고 깨달음의 본질에 이르는 길이 곧 만다라에 있다"고 설명한다.



김유진의 '법륜'

김 교수는 회원 모두가 수행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만다라는 일종의 명상과 같다. 위빠사나 등 체험적 수행도 공부하고 이론으로 만다라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1년 교육 과정을 작품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앞으로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명상이 만나 자기 치유에 이르는 길을 만다라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한다.

정혜숙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강우방 교수 초청강연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2월 22일 오후 2시~4시 박물관 강당에서 강우방 원장(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을 초청 '국립경주박물관 특강' 을 연다.

'한 · 중 · 일 기와의 상징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의는 한국 · 중국 · 일본 기와의 양식을 살펴보고 그 상징을 비교 분석해본다.

이번 강의는 세 나라가 기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형식과 양식, 상징을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우방 원장은 1941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이화여자대학 대학원의 초빙교수로도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불교의 사리장엄〉 〈한국불교 조각의 흐름〉 〈수월관음의 탄생〉과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불교의식(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인재양성을 위해 '제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과정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시련~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다루는 법

• 교육기간 : 1년과정 • 대상 : 초심자, 전법사, 포교사
• 개강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강의시간 : 매주(수/목), 오후4시~5시30분
• 문의 : 031)907–1062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503호 (풍동 중앙프라자B동) 청유사

한국불교 태고종 청유사 (사)고양 범패문화 예술원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인재양성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C.A.C 분석서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 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문화

불심이 음악을 만나면 포교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찬불가 보급하는 LMB싱어즈


LMB싱어즈 단원들이 2월 11일 관악구 인헌동 연습실에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1999년 설립 15년 음성포교
찬불가 창작 및 보급에 매진
월 2회 군법당 포교도

2월 11일 저녁 서울 관악구 인헌동에 위치한 LMB싱어즈 연습실을 찾았다. 저녁 연습이 한창인 LMB싱어즈 단원들 표정은 모두가 밝았다. 음성 포교의 선두주자로 찬불가 보급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기에 모두의 얼굴은 환희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면 많이 어렵죠. 불교가 좋고 음악이 좋아 시작한 일이지만, 예술 활동이다 보니 단체를 유지하고 이끄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15년 동안 고비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만 생각합니다. 찬불가를 통한 포교죠. 그래서 노래로 포교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15년전 LMB싱어즈를 창립한 황영선 대표의 말이다. 1999년 창단한 LMB싱어즈(Lovers of Music, Beacons of light Singers)는 '음악을 사랑하고 빛이 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을 가졌다. 전문 성악인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혼성 4부 중창단으로 찬불가를 보급하고, 불교음악을 발전시켜 한국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지난 연말에는 4집 앨범 '마음의 빛깔'을 발매하고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LMB싱어즈는 꾸준히 찬불가를 창작하고 공연을 이어왔다. 선을 주제로 한 새 앨범에는 마음의 소리, 그리움, 현진광 등 17곡의 창작곡이 실려 있다.

황 대표는 "1집부터 마음을 주제로 늘 꾸준히 음반을 내왔다. 지극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꾸준히 음악을 하면서 수행으로 이르는 길을 음악에 담아냈다"고 설명한다.

LMB싱어즈는 그동안 찬불포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음악회와 산사음악회는 물론 군법당, 교도소, 법원, 고아원 등을 돌며 650여회의 공연을 펼쳐왔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교계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LMB싱어즈는 2009년 행원문화상, 2011 통영 국제음악제 프린지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2004년, 2007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폴 공연을 시작으로 해외 포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창립 초창기부터 이어오고 있는 군법당 공연은 LMB싱어즈가 가장 자부심을 갖는 활동 중 하나다. 현재 단원들이 주최하는 군법당 공연은 물론, LMB싱어즈의 비전공자 혼성합창단 우빼까합창단(2003년 창단)의 공연까지 월 2회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군법당 공연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불교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강조한다. "저희들은 찬불가 공연과 교육은 물론 사찰 예절이나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설명할 수 있는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스님들보다는 저희들이 더 친근하니 군인들이 불교에 대해 궁금한 것을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이렇게 인연이 된 군인 중 한명은 저희가 보내준 불서를 읽고 출가를 한 분도 있어요."

음악법회 역시 LMB싱어즈가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법회 중 하나다. 찬불가 위주의 의식곡으로 법회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간단한 공연이 곁들여지며 지도법사인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의 법문까지 더해져 음악법회의 꽃을 피운다.

앞으로 LMB싱어즈는 찬불가의 새로운 시도로 대중들을 찾아가고자 한다. 회심곡을 성악으로 시도하는 작업, 찬불 뮤지컬 제작 등은 물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찬불가를 정리하는 작업도 해보고 싶다고. "같은 찬불가인데도 단체마다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해 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불심과 음악을 바탕으로 찬불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LMB싱어즈는 오늘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불심의 향연을 꽃피우고 있었다. (02)882-172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13년 12월 양재 매헌 기념관에서 펼쳐진 4집음반 출시 기념음악회.


LMB싱어즈의 비전문가 합창단 우빼까 합창단 연습 장면.

좋은 절&스님과 시인의 문화공간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⑧ 삼당(三唐)시인과 봉은사 (上)




봉은사 종소리는 조선중기에 한양십경의 하나로 꼽혔다. 사진은 봉은사 범종각

천만편의 시를 낳은 절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전통사찰 봉은사는 고려 때의 견성사(見性寺)에서 그 연혁을 시작하지만, 조선 중기부터 면모가 새로워졌다. 1498년(연산군4) 정현왕후가 성종(成宗)의 능인 선릉의 원찰로 견성사를 중창하고 이름도 봉은사로 고친 것이다. 1551년(명종 6)에 선교양종의 승과제도가 부활될 때 봉은사는 선종수사찰로 선종 승과고시를 시행하는 절이 되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바로 봉은사 선과 출신이다. 봉은사는 유정, 각성, 경림, 상헌, 한영 스님 등으로 대를 이어오면서 쇠락과 중창을 거듭해 왔다. 강 건너에 위치한 봉은사는 시인묵객들에게 좋은 답사코스였다. 특히 조선 중기 풍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동호(東湖) 너머에서 들려오는 봉은사의 종소리[奉恩聞鐘]는 '한양십경(漢陽十景)' 중의 하나로 꼽혔다.

시를 통해 봉은사의 정취를 한껏 드높인 선비들은 많다. 그 중에서도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리는 최경창(崔慶昌 1539~1583) 이달(李達 1539~1612) 백광훈(白光勳 1537~1583) 이 두르러진다. 엇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학문과 문학에 매진하며 조선의 새로운 시풍[唐詩風, 서정적이고 묘사적인 시풍]을 열었던 삼당시인은 한강과 봉은사의 풍경을 읊었으며 스님들과 교유도 빈번했다. 1578년경에는 세 사람이 봉은사에 모여 함께 시를 지으며 즐기기도 했다.

선화경림(禪華敬林) 스님이 1637년(인조 15)에 봉은사를 중수했을 때 처능(處能 1617~1680) 스님이 '봉은사중수기' 를 썼다. 처능 스님은 기문에서 "신인묵객들이 이곳에서 음영한 것이 천만 편을 능가한다"고 했으며 그 중에서도 빼어난 삼당시인들의 시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들을 밝히고 있다.

삼월광릉화만산(三月廣陵花滿山)
청강귀로백운간(晴江歸路白雲間)
주중배지봉은사(舟中背指奉恩寺)
촉백수성승엄관(蜀魄數聲僧掩關)

춘삼월 광릉에는 꽃이 산에 가득한데
맑은 강 따라가는 길은 구름 사이에 있네.
배에서 등을 돌려 봉은사를 가리키니
소쩍새 소리에 스님은 빗장을 내리네.
-최경창 '봉은사승축' 〈고죽유고〉

최경창은 전라도 영광출신으로 고려시대 최충(崔沖)의 18대손이다. 학문과 문장이 탁월했는데 이이(李珥) 송익필(宋翼弼) 최립(崔) 등과 무이동(武夷洞)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았고 정철(鄭澈) 서익(徐益) 등과도 삼청동에서 교류했다. 성격이 소박하고 청렴해 청백리로도 이름났다.

삼당시인들은 봉은사의 스님들과도 매우 깊이 교유했는데, 그들이 봉은사를 드나들며 명편(名篇)을 남길 수 있었던 데는 그러한 긴밀한 교유가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좋은 절과 스님 그리고 격조 높은 시인이 만나 멋스러운 문화 공간을 형성해 냈다고나 할까?

아무튼 위에 보인 칠언절구 역시 제목이 '봉은사승축(奉恩寺僧軸)' 인데 봉은사 스님에게 써 준 것이다. 내용은 꽃이 화려한 봄날 봉은사를 찾아 갔다가 돌아가며 쓴 것으로 읽힌다. 좋은 시는 읽는 순간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진다. 최경창의 이 칠언절구 역시 꽃이 가득한 춘삼월 봉은사를 찾아가 종일 놀던 선비가 배를 타고 구름 사이로 돌아가는 길에 등을 돌려 절을 보니 자기를 전송한 스님이 말없이 절문을 닫고 있다. 때마침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리니, 저무는 봉은사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온다. 광릉이라는 지명은 당시 봉은사가 경기도 광주에 속했고 선릉이 있어 그렇게 불린 것이다. 오늘날 봉선사가 있는 남양주 광릉과는 다른 의미다.

시로 완성되는 봉은사의 추억

이렇게 멋들어진 풍경화 한 폭을 그려낸 최경창은 이어서 세 편을 더 읊어 봉은사에서의 깊은 추억을 시로 완성했다.

又(또)
불탈가사하전계(不脫袈裟下殿階)
일성추경발운애(一聲秋磬發雲崖)
유인거후문환엄(遊人去後門還掩)
적적장랑도석재(寂寂長廊到夕齋)

가사를 벗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며
구름 낀 언덕에서 가을소리 들려온다.
놀이꾼들 떠난 후에 문이 다시 닫히고
적적한 긴 회랑에 저녁 불공 올리네.

又(또)
삼일강담체원주(三日江潭滯遠舟)
이릉풍우독귀수(二陵風雨獨歸愁)
금래상억불상견(今來相憶不相見)
추창미종하석루(秋窓微鍾下石樓)

삼일동안 강 언덕에 머물며 배 저어가지
양 언덕에 비바람치고 혼자 근심스레 돌아온다.
요즘 서로 생각하며 만나지 못하여
슬퍼하며 들려오는 종소리에 석루를 내려온다.

又(또)
한아고목석양간(寒鴉古木夕陽間)
일경요요엄수관(一逕寥寥掩水關)
욕향매화중기신(欲向梅花重寄信)
경주이과광릉산(輕舟已過廣陵山)

석양 사이로 겨울 까마귀 고목에 앉아 있고
한 줄기 작은 길 적요하여라.
매화를 향하여 소식 전하려니
빠른 배는 이미 광릉산을 지난다.

최경창의 시를 '청한(淸寒)' 과 '한경(悍勁)' 을 키워드로 해석한다. 청한은 맑고 차가움이고 한경은 굳세고 강하다는 뜻이니, 매우 이성적인 시인의 성품이 시로 드러나고 있음을 주시하는 것이다. 평생 벼슬을 탐하지 않았고 청백리로 공인된 최경창이고 보면 그의 단아한 삶과 시는 둘이 아니었다. '봉은사시축' 의 4수도 넘치지도 않고 잠기지도 않는 풍류를 고르고 있다. 경물(景物)의 객관성과 자신의 느낌을 혼돈하지 않고, 불교도 성리학도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봉은사 풍경을 통해 인생을 관조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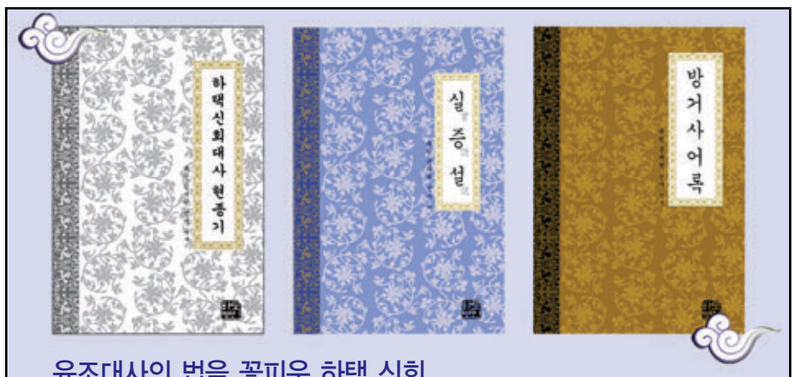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육조대사의 법을 꽃피운 하택 신회 대사의 깨달음의 경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실증설(實證說)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방거사 어록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현재 32종 64권의 저서 출간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5 ~ 2/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6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7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8	어느 불교무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배철러	궁리
9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10	기도 도량을 찾아서	황찬익	클리어마인드



괴로움 너머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길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지음
윤서인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2만원


타라 브랙은 매주 수요일 워싱턴 D · C에 있는 '통찰명상회' 에서 명상지도를 하고 있다. 매회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강연 동영상은 매월 150개 나라에서 20만회 다운로드 된다.

'삶은 고통스럽다' 는 명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가족 간의 갈등, 흔들리는 인간관계, 뿌리 깊은 트라우마, 강박적 사고, 위중한 질병, 임박한 죽음, 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 등 삶의 고난과 역경에 처해서 휘청거릴 때가 누구나 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분노하거나, 자기비난에 빠지거나, 술이나 음식에 의존하며 괴로움에서 도망친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잠깐의 위안이 될 뿐, 결국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온다.

베스트셀러 〈받아들임(Radical Acceptance)〉의 저자 타라 브랙이 10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치유 메시지다. 워싱턴 D.C에 있는 〈통찰 명상회〉의 설립자이자 지도교사이기도 한 저자는 임상심리학자로서 30년 이 넘는 세월 동안 위빠사나 명상가이자 임상심리학자로서 자기 탐구 작업과 수많은 상담 경험을 모아 〈받아들임〉을 썼고, 심리학자와 일반인들에게 명상을 통해 정서적 치유에 이르는 법을 가르쳤다. 유전적 불치병을 진단받은 그는 그로 인해 불안정한 실존에 내적 세계가 뒤흔들렸고 그로 인해 언제나 자신을 이끌었던 영적 가르침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작 〈받아들임〉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가치감' 의 미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과 방법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 후 10년 만에 출간된 이번 책은 타라 브랙 자신의 실존적 고뇌와 20여 년 동안 싸워온 불치의 유전병, 지인들이 겪은 삶의 역경 속에서 탄생했다.

책은 한두 가지의 심리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괴로움의 정체를 근원적으로 파헤치며 그 괴로움 너머 깨어있는 마음이 주는 평화와 자유에 도달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전작 〈받아들임〉에서 뿌리 깊은 수치심의 괴로움, "난 뭔가 잘못됐어."라는 믿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책에서는 '괴로움' 을 더욱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괴로움' 의 정체 근원 밝히고
극복하는 길 '참된 귀의처' 제시
귀의처 이르는 세 개의 문 다뤄

"붓다는 이런 불안과 고립감, 결여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가르쳤다. 우리 인간은 분리감을 느끼게 조건화되고 수시로 변하며 통제 불가능한 삶과 맞서 싸운다고 붓다는 말한다. 바로 그 분리감이 파괴적인 감정–두려움, 분노, 수치심, 슬픔, 질투–과 끝없는 편협한 자기 대화와 충동적인 대응 행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붓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알려준다. 불교를 비롯한 지혜로운 수많은 영적 전통이 공유하는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귀의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의 삶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귀의처를 찾을 수 있다. 연이은 수많은 활동과 쉼 없는 악전고투의 배경에 놓인 고요한 자각의 공간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귀의처에 이른다."

책은 참된 귀의처로 통하는 세 개의 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불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문은 바로 '진리' 와 '사랑' 과 '자각' 이다. 이 세 개의 문은 우리를 치유와 영적 자유로 안내할 거라고 저자는 말한다. 진리와 사랑과 자각은 강박적 사고, 편협한 믿음, 트라우마와 관련된 불안 같은 일상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열쇠이자 자기연민과 친밀한 인간관계에 들어서는 열쇠, 또한 평화와 행복을 얻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열쇠라는 것이다.

〈삶에서 깨어나기〉는 우리 주변의 누구나가 겪는 그런 삶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 타라 브랙은 말한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고. 고통만 바라보고 고통에 빠져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내면의 참된 자신을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삶 그 자체에 깨어있으라고 말한다.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책은 저자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실제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그대로 알아차리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릇된 귀의처' 로 도피하려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여러 가지 명상법과 성찰법을 소개하고 있다. 매 장의 말미에 소개되는 다양한 명상법과 성찰법에는 전통적인 수행법도 있지만 현대 신경학의 연구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명상법도 포함되어 있다.

책은 우리의 선하고 지혜로운 본성을 상기시키며 우리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항상 신뢰할 수 있게 하며, 우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준다. 또한 크나큰 고통을 견뎌내고 일어선 사람들의 감동적인 치유 이야기와 구체적인 명상법을 통해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내면에 이미 있으며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치유와 자유' 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부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

어느 불교무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배철러 지음 | 김옥진 옮김 | 궁리 펴냄
1만8천원



"붓다는 과연 누구였나? 그는 어떤 세상에서 살았나? 나는, 다른 이들이 옳다고 믿고 내게 '불교' 로 제시했던 것의 상당 부분이 붓다 사후 수세기가 흐른 뒤, 그가 살았던 때와는 아주 다른 상황에서 발전된 교리와 관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때 승려였고 이제는 재가불자이자 수행자로서 불교와 부처님에 대해 늘 탁월하고 대담한 발언을 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는 역사적 붓다의 초상을 새롭게 그려냈다. 저자는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이 편찬한 팔리 경전을 근거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바라본 인간 붓다를 보여준다. 책은 불자로서의 자서전이면서 자신의 인생여정을 통해 재구성한 역사적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그린 이야기다.

1953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런던 근교에서 자랐으며, 열아홉의 나이에 대학진학 대신 영국을 떠나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주변의 공동체에 들어가 달라이 라마 주변의 핵심 승려그룹의 승려가 된 저자는 그 후 집중적인 선불교 수련을 위해 한국의 송광사 구산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가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행하는 방식이 붓다의 실제 가르침과는 어긋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비록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결국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 재가불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책에서 그 동안의 과정에서 경험한 일상적인 도전과 의심들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적고 있다.

책은 저자가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불교 교리 중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놓고 고민했던 모습이나 역사적 붓다를 찾아나서고 그만의 고유한 생각을 찾아내려는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출세간을 오가며 자신의 여정을 기록해 가는 한편,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부처님의 삶을 재구성하고. 부처님이 살았던 세계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의 위치를 찾아내고 있다. 붓다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인 고대 팔리 경전을 살펴보면서 저자는 부처님이 당시로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의 삶을 보았으며, 업과 내세 개념보다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의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상당 부분을 규정짓게 된 독실함과 지나친 종교성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역사적 개념의 부처님을 탐구하면서 그를 둘러싼 신화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려 했다.

"'불교' 부처님 당시와 다르게 전개"
'자아' 는 실현되어야 할 과제

책은 붓다가 자아를 허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숨 쉬고 행동하는 기능적이고 도덕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자아를 물을 주면 식물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밭에 비유했다. 또한 부처님은 연기(緣起)의 원리, 알아차림(念), 사성제와 팔정도, 자립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고 정리한다.

저자는 자신이 나열한 네 가지가 지금의 여기 우리의 상황에 와 닿는 다르마의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저자가 열아홉 살의 나이에 인도에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마주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 시골에서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은 쉰여섯 살 재가불자로 살며 사색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저자가 불교에 매료된 것은 물론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와 비평과 혁신에 저항하는 권위적인 종교 조직을 받아들이려고 애쓴 저자의 몸부림이 담겨 있다. 책 〈어느 불교무신론자의 고백〉은 불교적 가치를 세속주의와 현대성의 맥락 안에 구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헌신적인 불자의 시각이다. 저자는 "나에게 불교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불교가, 스스로 울타리를 친 신자들의 구역 밖에서 융성하려면 그것이 발달해 온 환경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불교 알려면 '부처님' 알아야

부처님의 생애

송강 지음 | 도반 펴냄 | 1만8천원



"재가자나 출가수행자나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실천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생애' 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태자 시절의 고뇌도 공유해 봐야 하고, 출가후의 고행도 따라가 봐야하며, 깊은 삼매도 체험해 봐야하고, 절대자유인 해탈의 경지도 맛봐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는 45년의 긴 세월동안 뙤약볕 속에 흙먼지 뒤집어쓰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 봐야만 비로소 불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엮은 '부처님의 생애' 이다. 책은 신비화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땀 흘리시며 다니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저자 송강 스님은 출간의 취지가 '부처님을 위한 것' 이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대할 때 우리는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취지에 집중했다. 부처님의 언행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을 경전속의 말씀들은 물론 동화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독자들이 어느 위치에 서있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실제 마음공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재완 기자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율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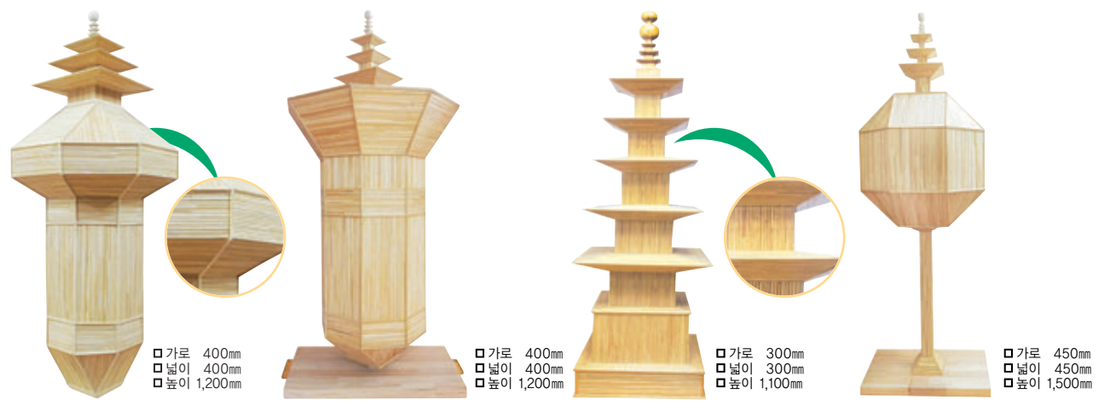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수행으로 탄생한 竹林法燈
세계유일의 신제품!! 특허출원중

죽림정사는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때 자주 머무르시면서 설법하신 곳이며 기원정사와 함께 불교 최초의 2대가람(二大伽藍)으로 불리웠습니다. 죽림정사에서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법을 생각하고, 참선 및 기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등이 竹林法燈입니다.
慧梵 海龍 합장



제품 특징
❶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세상 유일의 수공예 대나무 法燈(법등)입니다.
❷ 12가지색의 파노라마 LED전구가 내장되어 있어 법당 장엄용으로 최고입니다. (LED전구 내장으로 전기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❸ 특히 윤장대 법등은 업장소멸에 많은 기도를 드릴수 있어 포교원에 적합한 法燈(법등)입니다.
❹ 법등이므로 불안심리, 가위 등이 눌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 소멸에 많은 도움을 주며, 취침燈(등) 대용으로도 최상입니다.
❺ 천연(자연) 그대로의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보존기간이 길며, 인테리어燈(등)으로써도 최상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수공예 작품이므로 크기는 주문 사양에 맞추어 드리며, 제작 기간은 1달 소요 됩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大韓佛敎曹溪宗 참선.약사기도 도량
舞鶴山 藥師禪院
敎法師 慧梵 海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77(회원2동)
TEL : 010-6561-3277 / 055-244-3277
FAX : (055)244-3277

참가치 찾으면 자신만의 길 걸을 수 있어



어른의 공식

장옌 지음
정이립 옮김
불광 펴냄
1만5천원

이 책에는 인생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 선사들 이야기 77편이 담겨 있다. 상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생과 정면 승부해 자기만의 색깔로 지워지지 않는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다.

그러다 보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말과 행동들도 때론 등장한다. 하지만 선입견을 단박에 부수는 반전을 통해 선사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 지고, 진정 자유롭게 산다는 것'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늘 그렇듯 인생의 해법은 우연한 곳에서 운명처럼 마주친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도 어떤 독자에게 '인생을 바꾼 만남' 이 될지도 모른다. 상식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을 마주하는 순간, 번쩍하는 깨달음이 분명 당신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당나라때의 단하 선사가 낙양 혜림사에 묵을 때 이야기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단하 선사는 전각에 있던 나무 불상을 가져다 쪼갠 뒤 불을 지폈다. 이 사실을 안 주지 스님이 단하 선사에게 화를 냈다. "이런 불경스런 짓을 저질렀으니 자네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걸세."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단하 선사는 오히려 태연했다. "저는 사리를 얻기 위해 부처님을 불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더 큰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인가? 나무 불상에 어떻게 사리가 들어 있단 말인가?" 단하 선사는 웃으며 답했다. "기왕 그렇다면 제가 나무 불상 두 개를 더 가져다 불을 지펴도 될까요?"라고.

남과 다르게 자기의 길을 열고 싶다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혼돈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파고들어야 한다.

단하 선사의 일화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남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을 치워 버리고 '진짜 가치' 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찾아낸 것을 과감히 실천하는 결단력과 행동력,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뿐일지도 모른다.

당나라때 인물인 육긍 대부와 남천 선사의 일화도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 준다. 어느 날 육긍 대부가 남천 선사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눕곤 하던 돌로 불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남천 선사가 답했다. "가능합니다." 그러자 육긍 대부는 마음을 놓지 못

예술적 경지 이끈 선사시야기 77편
눈치보지말고 당당히 사는법 소개
지나친 집착은 인생의 큰 방해요소

하고 다시 물었다. "정말 괜찮습니까?" 곧바로 남천 선사가 다시 답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남천 선사는 왜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불상을 만들고 못 만들고를 결정하는 건 돌보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설사 육긍 대부가 가장 좋은 재질의 돌을 가졌더라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돌로 불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육긍 대부' 의 자리에 아무나의 이름을 넣어도 무방하다. 과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가 의지를 다잡지 않고서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까. 외부의 조건들이 우리 손발을 꽁꽁 묶었다고 판단될 때, 정말로 손발을 묶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

중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일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 사람들, 사사로운 감정서 빠져나올 방법을 못 찾는 사람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등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전체적으로는 '나 자신으로 사는 법' 에 대한 이야기지만, 각 장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마음이 가는 부분을 먼저 펼쳐 보는 것도 이 책을 공략하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자신감이 없어 자기 의견을 입속으로만 되뇐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1장을 읽고 줏대 있는 삶을 살아갈 의지를 다지자. 마지막으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끝장인 제 8장을 읽고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법을 익혀보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체험으로 쓴 간화선 수행의 실제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청원 무이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간화선 즉, 화두를 참구해 참다운 성품을 깨닫고 마음의 해탈을 얻는 참선수행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는 법을 기술했다. '수행의 실제와 깨달음의 연금술' 이란 부제가 말하듯, 마음공부를 통해 '참나' 를 깨닫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안심(安心)을 얻고 대자유인으로서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친절히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인 청원 무이법사(지불회 지도법사)의 30여 년에 달하는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구도기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제 1장 평상심의 일상, 제 2장 불조(佛祖)의 가르침과 수행(修行)의 실제, 제 3장 깨달음의 연금술, 제4장 선(禪)의 뒤안길 그리고 부록인 무이십관(無二十關)으로 구성된 이 책은 파란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해 줄 '밑바닥 없는 배' 가 될 것이다.

저자는 이 배에 오르는 모든 인연들이 불조의 호념(護念) 속에서 '구멍 없는 피리소리' 를 듣고 '줄 없는 거문고' 를 탄주하며 한 송이 우담바라로 활짝 피어나길 간절히 서원하고 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한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마음 치유해 주는 선시 한데 묶어

그래도 그냥

지개야 지음 | 묵언마을 펴냄 | 9800원



시인이자 수필가로 활동하는 지개야 스님이 두 번째 시집을 펴냈다. 제목은 〈그래도 그냥〉이다. 부제도 재미있다. '또하는 허튼 소리' 이다. 지난 2009년 첫 시집 〈지개야 백팔번뇌 잠언시〉를 펴낸 이후 5년 만이다.

스님은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자살' 에서 그 반대인 '살자' 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 칠장리에 있는 묵언마을에서 활동중이다. 스님의 출가 동기도 자살자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 위기에서 희망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낸 이가 족히 2백명은 넘는다. 그러니 스님은 출가해서 성공한 셈이다.

이 책은 시심을 옮긴 시집이라가 보다 인생에 대한 통찰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일종의 잠언 형식이다. 가령 "그냥 행복에 미소만 짓지 말고 행여나 찾아올 고뇌를 맞이해 이길 수 있는 인욕을 준비해라" "온 힘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행운은 결코 나를 찾지 않는단다"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덕을 베풀면서 살아라" 등등이다. 마음이 힘들때마다 곁에 두고 펼쳐 읽으면 위안이 되는 선법문들이 가득하다. 한편 지개야 스님은 이 책의 판매 대금을 자살예방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위빠사나, 실재 알아차리는 수행

좋은 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묘원 지음 | 행복한 숲 펴냄 | 1만원



'좋은 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는 위빠사나 문고 옹달샘 5편으로 한국 명상원 게시판 옹달샘 글을 모은 책이다. 옹달샘은 2004년 9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연재되고 있으며, 매일 한국 명상원 회원에게 인터넷으로 배달되고 있다. 이 책은 2013년도에 실린 옹달샘의 글을 모두 모은 것이다.

옹달샘의 글은 위빠사나 수행의 잠언이다. 저자는 매일 같이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을 옹달샘의 글로 기록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은 일상의 삶을 모두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일상의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위빠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닌 실재를 알아차리는 수행이므로 저자의 관점도 관념이 아닌 실재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통찰하고 있다. 그래서 옹달샘 글은 일반적 시각이 아닌 출세간의 범주에서 본 시각이다.

이 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서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므로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육체는 가둘 수 있어도 영혼까지 속박할 수 없다

가둘 수 없는 영혼

팔덴 갸초 지음 | 정희재 옮김 | 르네상스 펴냄
1만8천원



팔덴 갸초는 티베트 최장기수 정치범이었고, 고통받는 티베트의 현실을 UN서 증언한 최초의 티베트인이다. 그는 열 살 때 출가해 한창 수행에 정진해야 할 스물여덟 살의 나이에 중국 정부에 체포돼 예순이 돼서야 풀려났다. 그는 31년 동안 끝없는 고문, 굶주림, 강제노역, 사상 교육을 겪어야 했지만 생에 대한 의지와 자유에 대한 희망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티베트인을 잡아들이고, 티베트 고유의 문화를 파괴했다. 팔덴 갸초에게는 인도인 스승을 스파이로 고발하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스승과 영혼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대가는 무자비했다. 움직일 때마다 살을 파고드는 족쇄를 몇 년 동안 발목과 손목에 차고 있어서 나중에 수갑을 풀고도 한참 동안 팔과 다리가 마비돼 움직이지 못했다. 전기봉 고문으로 이가 몽땅 빠지기도 했다. 간수들의 혹독한 구타는 일상이었다. 폭행을 당하고 나면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무수한 상처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팔덴을 비롯한 티베트인 양심수들은 중국 당국의 잔인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폭력 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을 이렇게 말한다. "잔인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희생자가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모욕적인 게 없다. 인간의 몸은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도 회복할 수 있다. 육체에 난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된다. 그러나 영혼은 한번 파괴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낙담 속에 방치할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신념과 티베트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믿음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진보와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한 체제가 저지른 만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후 티베트인 3분의 1이 죽었고, 6천여 개의 사원이 파괴당했다. 15만 명 이상의 승려들이 강제로 환속당하거나 감옥이나 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 한때 숨어 있는 이상향으로 불리던 티베트는 그렇게 파괴되었다. 유서 깊은 불교문화와 전통은 모두 무너졌고, 대부분 유목민이던 티베트 사람들을 동원해 지질에 맞지 않는 농사를 강요한 결과 굶주림과 가난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점령하고 난 뒤 티베트의 모습이다. 지금까지의 티베트 관련서는 달라이 라마나 신비한 이상향, 혹은 명상과 깨달음에 관한 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국내에 처음으로 티베트인의 목소리로 티베트의 아픔과 현실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의 격랑에 휘말린 한 승려의 기구한 자서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티베트 망명자들이 하나씩 전하던 티베트의 현실이 집대성된 역사적인 자료집을 겸하고 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권유로 탄생하게 되었다. 조국을 떠나온 티베트 사람들이 다 그렇듯 팔덴 갸초도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망명한 뒤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그의 삶을 글로 남겨 티베트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라고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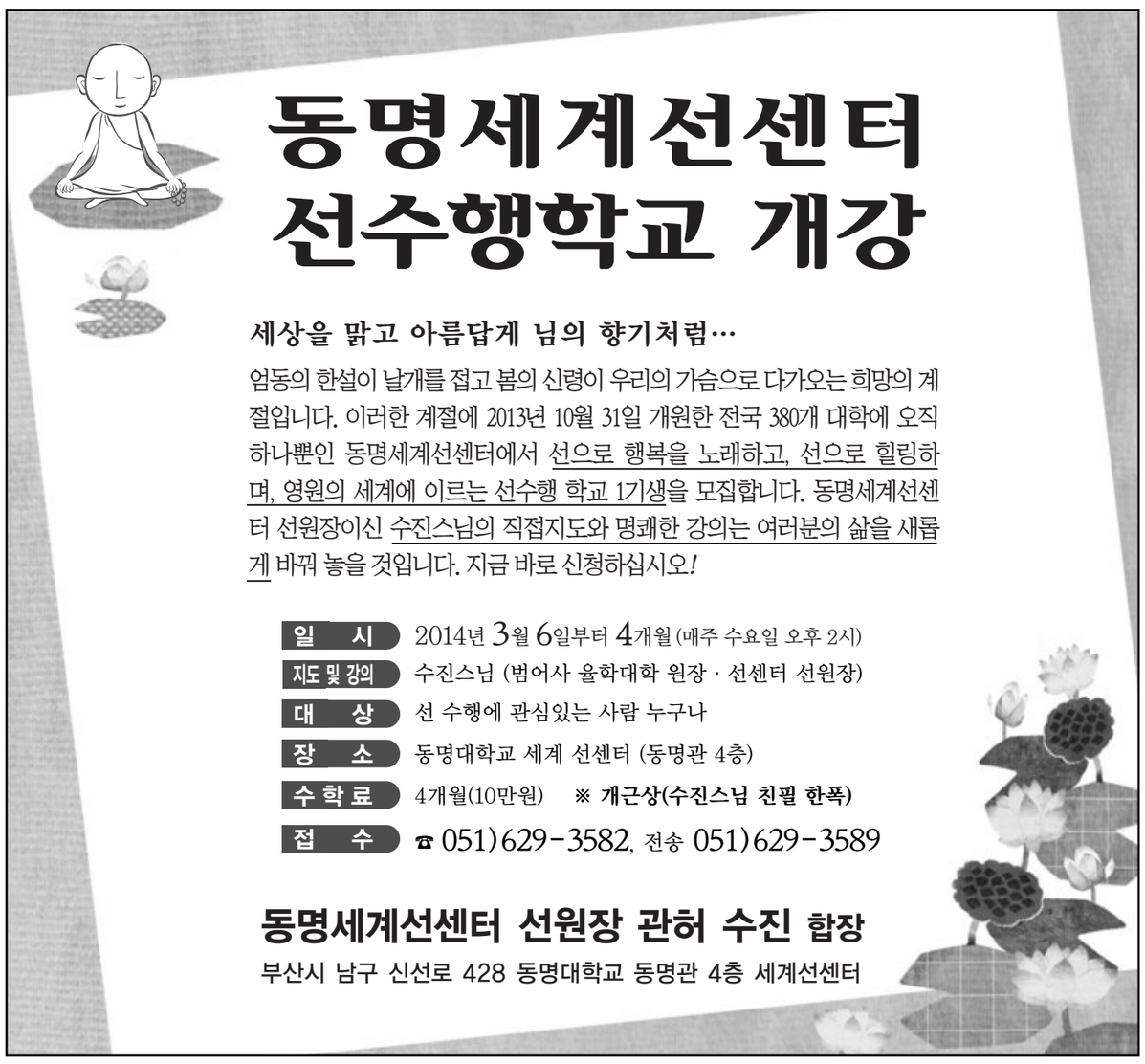
무엇보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심과 자비를 잃지 않고 사실을 증언한다는 것이다. 그 동정과 자비는 고통받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티베트 정치범으로 31년 복역
고문과 폭력 등에 끝까지 항거
달라이라마 권유로 집필 결심

아니다. 고통을 주는 자도 용서해야 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는 사실. 단지 특별한 상황이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의식중에 깨닫게 한다. 그래서 중국인 대 티베트인이라는 대립구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폭력과 증오의 유혹에 휩싸이기 쉬운 인간성 자체를 성찰하게 만든다. 어떤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팔덴 갸초처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한다. "팔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코 무력하지만은 않으며, 개개인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옥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의 영혼은 오히려 더 자유로웠다.

김주일 기자

저자 팔덴 갸초는?
팔덴은 1933년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2백 킬로미터 떨어진 빠남이라는 마을서 태어났다. 열 살 때 출가해 승려가 됐고, 20대에 중국 침략을 목격하며 역사의 격랑에 휘말린다.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체포와 고문, 굶주림, 강제노역, 사상교육과 같은 고난에도 스승과 영혼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을 지켜왔다. 팔덴은 중국의 티베트 침략에 맞서 저항하다가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1992년 감옥서 풀려나자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탈출한다. 그곳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티베트의 실상을 전한다. 달라이 라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권한다. 이 책은 이렇게 해서 탄생됐다. 팔덴 갸초는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산다.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요.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일하며 깨달음을 얻어라”… 왕양명이 던지는 화두

불교로 읽는 古典

왕양명의 ‘전습록’ ㊦



송 재 운
동국대 명예교수



중국 녕파 여요에 있는 왕양명의 고향집. 양명학의 완성은 ‘치양지’, 즉 양지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왕양명은 성찰극치(省察克治), 절사(絶四), 집의(集義) 등을 절목으로 내세웠다.

朱王에서 理의 성격

우리는 전호에서 양명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명제 ‘심즉리(心卽理)’가 무엇이며 그 연원은 어디에 있는 가를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연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명의 ‘심즉리’는 주자의 ‘성즉리’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심즉리’ ‘성즉리’는 다 같이 화엄학의 이사법계설(理事法界說)에 근원하고 있음도 파악 할 수 있었다.

주자의 ‘성즉리’는 마음을 심(心) 성(性) 정(情)으로 삼분하여, ‘성’을 ‘이’라고 규정하고 심에 대한 우월성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은 도덕적으로 볼 때 인 · 의 · 예 · 지(仁義禮智)로서 순선(純善)이다. 심과 정은 성과는 달리 이기(理氣)의 합이므로 이것은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는 태극으로서 순선이지만 기는 유선유악(有善有惡)이기 때문에 이기의 합(合)일 때, 당연히 선악이 혼재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가 화엄 이법계를 딴 것이라면, 이기론에서 만물의 질료라 할 수 있는 기(氣)는 사법계를 모방한 것이다. 기는 이와는 달리 청탁(淸濁)이 있어, 이로하여 선악이 있게 마련이다. 청기는 선할 수 있지만 탁기는 그 정도에 따라 현우(賢愚), 선악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선악, 현우를 갖는 존재이다.

불교에서 일체 중생은 모두가 부처님 성품(佛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본래 청정한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우매하며, 선악이 심신에 혼재하는 것은 무시이래로 쌓여 온 습(習), 즉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서다. 기독교에서는 원죄(原罪)가 인간을 만들고, 불교에서는 무명이 중생을 만들며, 유교에서는 기가 인간을 만든다.

아담과 이브라는 최초의 인간이 원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벌거벗고 천사로 살고 있을 것이고, 근본무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욕락을 모르는 채 부처로 살아 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만드는 기(氣)에 맑(淸)고 탁(濁)하고 조악(粗惡)한 것이 없었다면 인류는 모두가 70세 이후의 공자처럼 성인(聖人)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무명, 원죄, 기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닌가!

주자학의 이기론에서 이는 형상이 없고, 운동도 없으며, 아무런 조작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나 기 가운데 있으면서 사물의 본성(物理 또는 事理)을 이루고 사람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품수(稟受)한 천리(태극), 곧 성(性)으로 설명된다.

또한 이는 주자학에서 ‘존재의 이’, ‘도덕의 이’로 개념화 된다. 존재의 이란 이른바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로서 마땅히 그렇게 되는 바의 까닭, 곧 모든 것의 원인, 특히 현상세계를 존재케 하는 제일 원인자와 유사한 것이다. 태극이 동(動)하면 양(陽)이 생하고 또 태극이 정(靜)하면 음(陰)이 생한다(주렴계 태극도설)고 할 때, 여기서 동과 정을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理)이다. 효제충신도 마찬 가지다. 우리는 왜 효제충신 해야 하는가? 거기엔 그만한 이(理)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덕이란 ‘소당연지칙(所當然之則)’이다. ‘소당연지칙’이란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법칙, 또는 규칙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도덕적 의무가 이것이다. 칸트의 용어를 빈다면 ‘정연명법(定言命法)’과 같은 것이다. 유교에서 강상의 윤리가 되었던 삼강(三綱), 오륜(五倫)이 이에 해당하고 종교의 계율도 이러한 범주에 들 것이다.

‘이(理)’의 ‘고(故)’와 ‘칙(則)’은 성리학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그리고 주자학에서 사리 물리와 더불어 고와 칙은 마음 안의 존재이기 보다는 ‘외재물(外在物)’이다. 이것이 성즉리의 구조다.

그러나 왕양명의 성즉리(心卽理)는 이상 주자학에서 갖는 이의 의를 그대로 가지면서 마음 안의 존재가 된다. 천리, 사리, 물리, 소이연지고, 소당연지칙과 같은 이의 모든 것이 마음과 일여(一如)하다. 그래서 왕양명은 “마음 밖에 이가 없고 마음 밖에 사가 없다(心外無理 心外無事)”〈전습록〉고 하는 것이다.

마음 – 萬事出

양명학에서는 성리학에서와는 달리 태극(太極)이 없이도 만물의 존재가 가능 하다.

왕양명에서 ‘物(事)’이란 마음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전습록〉에서 이러한 도리를 가장 간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들라면 다음의 말일 것이다.

“텅 비어 영명하고 어둡지 않아 모든 이가 갖추어져 있음으로 만가지 일이 이로부터 나온 다. 마음 밖에 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밖에 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虛靈不昧 衆理具而萬事出 心外無理 心外無事.
-전습록 서애록)

왕양명의 이 말은 원래 〈대학〉의 명덕(明德)을 해의한 주자의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바다. 텅비어 영명하고 어둡지 않아 모든 이를 갖추었음으로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 而應萬事者也)”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자는 맹자 ‘진심장구 상’에서도 “마음은 사람의 신명으로 모든 이를 갖추었음으로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心者 人之神明 所以具衆理 而應萬事者也)”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학〉의 ‘명덕’ 해의에서 ‘허령불매’는 심덕을 지칭 하는 말임이 분명하다. 즉 ‘명덕’은 곧 ‘심덕’이다.

왕양명은 주자의 ‘허령불매’는 그대로 쓰고 그것에 대한 작용적 측면을 풀이한 후구 ‘구중리 응만사’에서 ‘구(具)’ 한 자를 도치 시키고, ‘응(應)’ 한 자를 ‘출(出)’로 바꾸어 ‘만사(萬事)’의 뒤에 놓음으로써 주자의 ‘심’과는 상이한 개념을 도출 하고 있다.

즉 ‘구중리(具衆理)’를 ‘중리구(衆理具)’로, ‘응만사(應萬事)’를 ‘만사출(萬事出)’로 만들어 ‘심’에 대한 왕양명 자신의 신설을 내놓고 있다. 주자의 ‘구중리’와 ‘응만사’는 마음에 모든 이를 갖추고 있어 나 밖의 사물들과 감응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마음에 갖춘 이와 나 밖의 사물의 이가 서로 합일하여 감응한다는 뜻이다. 마음은 주관이고 사물은 객관, 대상물로서 ‘심’과 ‘물’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마음과 사물은 둘이 아닌 하나
주자와 다르고 불교와는 ‘同軌’

양명학의 완성은 良知 다스리기
성찰극치, 절사 등이 주요 절목
생활 속 자기완성을 중요시 해

이에 반하여 왕양명의 ‘중리구’ ‘만사출’은 주자와 달리 이일(理一)이나 분수(分殊)의 입장이 아닌, 오직 이일의 입장으로서 이는 심인 까닭에 인간에게 본구하는 것으로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왕양명의 ‘심즉리’는 ‘심리합일’이기도 하며 ‘심물합일’이기도 하다.

‘만사출’은 일체의 사사물물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과 사물은 상호 대립되는 이원적 존재가 아니라 일원적으로 확립되는 존재다. ‘심’과 ‘물’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주자와 다르고 불교와 동궤(同軌)이다.

육조 혜능은 “세상 사람들이 본래 성품이 청정해서 모든 것이 자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미혹과 망령을 없애고 안팎을 밝게 사무치면 자성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니 견성한 사람도 이와 같다”(육조단경)고 말하고, 황벽선사는 “이 법이 곧 마음이니, 마음 밖에 법이 따로 없다”고 하고, “일체 모든 것은 오직 한 마음 뿐이다”, “일체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지는 것이다”(전심법요)라고 하였다.

왕양명의 ‘허령불매 만사출’의 심은 혜능의 ‘자성청정심’, 황벽의 ‘일체 유일심’과 그 의미나 개념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불학의 마음이나 왕양명의 심은 이처럼 인간과 우주의 근원이란 점에서 전호에서 언급한 대로 형이상학적 실재(reality)라 말 할 수 있다.

良知와 致良知

왕양명의 ‘심학’은 ‘치양지(致良知)’로 완성된다. 이로써 ‘양명학’은 불학의 틀에서 벗어나 공맹, 특히 맹자학(孟子學)으로 돌아 간다. 양명학의 완성과정을 대체로 ‘교(敎)의 삼변(三變)’이라 한다. 용장 오도(悟道)의 심즉리(37세), 귀양서원의 지행합일(38세), 치양지의 제창(49세)이 그것이다. 심즉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다. 그리고 그의 지행합일은 주자학의 선지후행론에 대한 반격이다.

당시 명대 사회는 주자학이 관학화되어 과거학으로 전락하여 이른바, 성학(聖學)이라고 하는 유학을 출세학으로 만들어 버렸다. 공자가 비판한 위인지학(爲人之學)이 되고 만 것이다. 자신을 완성하고 성인(聖人)이 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 공맹의 가르침인데 왕양명에 비친 당시 명나라의 학문은 관직에 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였다. 특히 선비, 즉 독서층의 젊은이 들은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다”는 선지후행론 만을 맹신 하여 알기 위해 배운다는 명목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할 생각을 가지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지행합일(知行合一)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다. 효를 말 할 때, 효행에 대한 절목만을 알고 직접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이것은 효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다. 앎(知)과 실천(行)은 둘이 아니다. 진정으로 실천해야 아는 것이다. 이래서 양명학은 실천주의 철학, 행동주의 철학으로 평을 받는다.

전술한 대로 양명학의 학문종지는 ‘치양지(致良知)’에 있다. 즉 ‘양지’를 이루는데 있다. 그렇다면 양지란 무엇인가? 양지란 말은 ‘양심’이란 용어와 함께 맹자가 최초로 쓴 말이다.

맹자는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을 그 양능이라 하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을 그 양지라 한다(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人之所不慮知者 其良知也 – 孟子 盡心 上)”고 말하였다. 맹자의 이 말에서 본 다면 양지는 양능으로 인간이 타고나는 선천지(先天知)이다. ‘생각하지 않고도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직관적이고 직각적인 선천적 인식능력을 말한다. 왕양명은 이 “양지‘를 마음의 체로 하여 그 개념을 생성의 원리, 도덕성의 근거, 실천의 주체로 한층 고양시키고 양지의 완성을 곧 인간의 완성으로 보았다.

왕양명은 ‘양지’를 말함에 유교 · 불교 · 도교의 핵심 개념들을 다 포섭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천리, 시비지심, 진성측달(眞誠惻怛), 실리. 성(誠), 미발지중(이상 유), 昭明靈覺處, 明師, 明鏡, 本來面目, 恒照者, 照心(이상 불), 太虛無形, 流行氣(이상 도)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리고 맹자에서 ‘양지’는 단순한 선천적 인식 능력이었는데, 왕양명에 와서 ‘양지’는 유 불 도 ‘三敎合一’의 정점에 서게 된다. 왕영명은 삼교합일을 강력히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전습록 곳곳에서 자신의 ‘양지 심학’이 이들 삼교를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양지는 심체로서 활동하는 능동자다. 곧 만물을 생출(生出)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물(物)이란 의지소재(意之所在)로서의 물이다. 양지에서 발하는 의가 어버이를 섬기는 효에 가 있다면 효가 물이고, 백성의 다스림에 가 있다면 그 다스림이 물이다. 그런데 의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러므로 의가 성스럽지 못하면 물 또한 성스럽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치양지의 필요성이 있다.

원래 양지는 불교의 진여심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인욕의 가리움이 있어서 그 본래면목을 제대로 발양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치이양지는 이 인욕의 가리움을 벗겨 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성찰극치(省察克治), 절사(絶四), 집의(集義)는 왕양명 치양지의 중요한 절목들이다.

자신을 반성하여 극기하는 것은 성찰극치요, 무의(毋意) 무필(毋必) 무고(毋固) 무아(毋我)는 공자가 강조한 절사(絶四)로서 ‘毋’는 ‘無’와 같다.

사의가 없는 것이 무의고, 꼭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집착이 없는 것이 무필이며, 집체된 고집이 없는 것이 무고이고, 사기가 없는 것이 무아다. 의, 필, 고, 아의 네 가지 착에서 벗어나 는 것이 곧 공자의 절사다.

그리고 집의는 맹자의 수양론으로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것이다. 주자는 이것을 선을 쌓는 적선이라고도 해석했다. 모두가 치양지의 중요한 방법들이다. 왕양명은 이러한 방법 외에도 ‘사상마련(事上磨鍊)’을 제창했다.

일하는 분상에서 심신을 연마하라는 것이다. 수양이 꼭 정좌나 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사람이 활동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그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양명의 이 사상마련은 아주 획기적인 것으로 농 공 상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선비(士)가 아닌 농, 공, 상인들이 많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사상 마련이야 말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철학의 표본이다. 이것이 지행합일이며, 바로 치양지다. 일 속에서 양지를 이루어라. 이 말은 자기의 주체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왕양명이 던지는 또 하나의 화두이다.

공 고
법 장 문 도 총 회

법장문도회 문종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문중형제 스님들께서는 다함께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안건 –
제 1안 : 감사보고 및 경과보고의 건
제 2안 : 정관선포 및 문도회 총정비 의건
제 3안 : 기타의 건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3월 10일(월) 오후 3시
■ 장 소 : 護國聖地 금강사 대웅전(가사, 장삼 수호지참)
■ 문의처 : 055)334-1122 (김해시 동상동 42-3번지)

多寶문중 법장문도회 法脈계보
顧問 大師父 會主 法長守旺
문도 門長 도산 (010-9966-5015) 문도 會長 도오 (010-5687-9627)
문도 總務 도월 (010-8519-5657) 합장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 사불,
현대사경, 작품사경
(법화경, 금강경, 탑다라니
범어 외... 등 경전)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10-3677-3845
보성 합장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3기)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환영
수련기간 2014년 3월 6일(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5시) 2개월.
회비 30만원. 수료증 수여.
인원제한 있음.
수련학습 내용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수련
브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행복감) 수련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회전생과 카르마 (자기동일성)의 영속성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걷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등
「레이키(氣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일 그대가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지금 그대가 나를 욕하였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은 그대의 것이다. 그것은 메아리가 따르고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그대는 스스로 범한 죄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삼가하여 악한 일을 멈추도록 하라."

– 42장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최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역학(정통명리) 개인지도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내)
010-8782-32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688-6625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10-3677-3845 보성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행자 인연 찾습니다

(남녀불문, 서울지역)
010-4586-4525

월세 구합니다 산속에 있는 암자나 토굴 구함

(경상남북도 소백산지역)
051)632-5539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감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기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7139-17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한라산)
010-3696-85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 (참관가능)
* 일시: 2014년 2월 22일(토) ~ 23일(일)
* 조상, 부모, 자녀, 부부의 치유
2 원네스 깨어남코스 (무료체험 매달 14일)
*삶의 비밀을 경험하고 풍요,건강,관계치유,
영적성장의 바른길로 안내합니다.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참 소식을 전합니다

부처님 정법을 바로 실천하고 바로 알고 전하고저 **대한불교정법종 불교문화유산재산법인을 창종**하였습니다. 여러 종단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며 불자 여러분께서는 큰 자비심으로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말씀과 창종식 대법회는 다음 지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정법종 불교문화유산재단법인 대표 원각 만허 합장
총무원 본사 : 경북 안동 정법선원 ☎전화 054)854-3856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탈 종 공 고

• 법 명 : 법운 봉산 (조현래)
• 승려증 번호 : 1209-560
• 주 소 :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산38-2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병원진단시 우울증 환자를 포함하여 환청,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증명된 프로그램으로서 우울증 환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프로그램 참가 가능》

프로그램 내용

내 용	일 정
법화경 일일 독성	매일
묘법연화경 정근	매일
108배 수행	매일
일주일 점검	전문 상담을 통한 마음치유

모 집 기 간
2014년 2월 28일까지 (선착순 마감)
교 육 기 간
2014년 3월 9일 – 5월 25일 (12주)
장 소
기청사 : 양산 통도사에서 5분거리
참 가 비 12주 코스 15만원
참가인원 20명 제한
(인원 미달시 다음 프로그램으로 연기)
상 담 자 혜공 스님
(진행상담사 문의처 010-4616-5438)
대한불교영산종 기청사 (법화도량)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선업은 마치 부모와 같아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악업은
마치 큰 원수와 같아 지옥이나 아귀, 축생 등의 세계로 끌고 간다.

– 정법념처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 8m접
- 건물 : 42평, 남향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금액 : 평당 20만원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바다전망 좋은 사찰
- 대지 2700평 • 건물 : 4동 (법당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 기와법당39㎡ 산신각
- 요사채57㎡, 토지122㎡
- 뒷편은산, 조용한사찰
- 교통편리 지하철부근임
- 가액 : 5억5천만원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조절 불가)

010-5173-335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지하철 5분거리에 산속 암자
- 대지 : 300평
- 법당,요사체,산신각,기타 등등
- 가액: 12억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주차장 100평
- 산세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8천
- 위치 : 한강이남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20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하실때는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암자.토굴.포교원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3분거리
- 보증금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3천9백만원

010-3869-67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 교 원 전 세
- 위치 : 부산 송정바닷가입구
- 평수75평 2층단독
- 삼존불 후불탱화,소불 영가단 법당
- 방1개,공양간,화장실2개,드럼세탁기 비데 정수기 에어컨 주차가능. 유동인구많음
- 가액 : 천만원에 달세40만원 시설비2300만원 (절충가능)
- 신설한지 3개월 몸만오시면됩니다
- 보시고 결정하세요.소원이루는신비의돌

010-5795-80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대전역 도보 8분)
- 3층 건물의 3층., 4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주방, 보일러 냉온풍기, 세탁기, 냉장고
- 햇살이 좋은 양택, 살림도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50만원

010-7450-9763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8억 8천만원

010-3858-8335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건물
- 문화재급 보유
- 요사체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총양도가액 4억7천만원
- 즉시법회가능,집기일체

017-725-590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900만원(청동불상)

010-2251-3378

포교원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재벌을 길러낸터 포교최적지
- 재벌을 길러낸터 포교최적지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최다.
- 바로옆50m전방 재개발확정, APT2천세대
- 법당30평 부처님5분,천불전불사중 현재소불약300분진행중
- 1층-차고, 창고, 일주문.
- 2층-법당, 방 3개, 공양간, 화장실 2개.
- 3층-방 3개, 산신당, 빈공간 3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양도가 12억(융자4억포함) 시세이하가
- 학업관계로 부득이 양도(절충가능) 부동산사절 꼭하실분만

스님직통.010-8634-7851

토굴암자 임대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담리
- 평수 : 약 150평
- 법당 : 삼존불 집기일체
- 방3칸, 창고 2칸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없음 월세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7179-37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목조단청 법당
- 삼성각, 종각, 요사채, 공양간
- 전망최고
- 990㎡
- 가액: 15억

(주 금호부동산종합회사부동산중개법인)
051)861-2233 (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기장 시장
- 평수 20평
- 법당, 방, 거실, 화장실
- 주차시설
- 보증금 1천,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0-4870-8359

암 자 안 내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 청학동
- 슬라브 건물, 옥상에서 바다가 넓게 보임
- 텃밭 2곳, 국유지 토지세 1년 약 8만5천원 내야됨
- 방3, 거실1, 화장실, 500만원 들여 리모델링 하여 깨끗함
- 칠성 고탱화, 약사소불,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탱화
- 가액 : 2천 9백만원

017-875-2509

사찰 기도 터(급)안내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 있고,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소쿠리터임
- 논3,000평내 60평가옥1동 화장실 2칸짜리 1동
- 집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대지조성 완료
- 가액: 6억(상방 협의가 잘되면 5억까지도 가능)

011-9583-3107(철호스님)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소재 임야
- 낮은 구릉 3만평
- 3천여평 절터흔적 산재
- 약초재배 최적지
- 진입로 구비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345-9666

도심속의 암자(급)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행운의 땅 양도
저는 인연이 다해 복 받을 분에게돌려드립니다
- 위치: 경기도 가평군
- 2,000평
- 가액 : 6억
- 본인직접

010-5414-2643
010-5234-32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법당15평, 한옥기와, 대지 196평
- 주차장+텃밭 175평,
- 방6, 심야보일러, 전월세 가능
- 가액 : 1억8천5백만원(조정가능)

010-3769-7029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양도가액: 2억 7천만원 (융자1억포함)
- 인수금 부족시 5년간 분할납부가능

010-9647-0723

사찰(급)안내
-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7억 5천(조정가능)
- 평수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별장식 토굴 안내
- 위치 : 마산 도시 근교
- 시내에서 15분거리
- 관음보살님, 대지 134평
- 건평39평, 주차시설 구비
- 공기 식수 1등급, KTX역에서 10분거리
- 모든 비품 일체 제공
- 가액 9천만원

011-578-1413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 2층 건물,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9058-535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및 요사채
- 옆산 넓은 공간
- 텃밭 및 유실수, 정원수
- 휴양, 공부, 일반 신도도 가능
- 총 3천 5백 평 (평당 8만)
- 양도 및 임대
- 보증금 500만원 1년 3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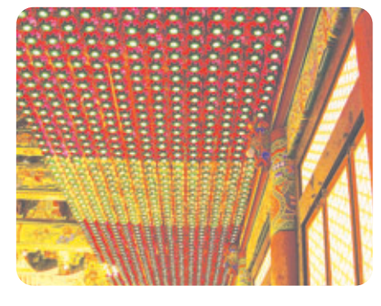
010-8826-8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한옥 법당 30평, 조립식건물 2동, 산신각, 요사채
- 산세수려, 기도도량
- 가액 : 현장답사 후 절충

010-2271-5811

연등시공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전문가 직접 연등시공





H·P 010-9446-1862
전 화 031)526-2201
031)526-220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5,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유어면 내부곡리길 46-19번지 우포늪 부근
- 평수: 전 면적 약 200평
- 법당 삼존불 , 약사여래기도도량 완벽한 법당 시설, 즉시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텃밭, 주차장 시설완비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 가능)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부산인접지역)
- 부지 : 890평, 건물 100평
- 가액: 9억 5천
- 부산 동래 명품 사찰터
- 1,100평 • 가액 : 65억

051)861-2233
가-13-1645 이찬수 (주)금호부동산중개법인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남향 사찰
- 대웅전,산신각,노천지장보살
- 요사채, 방4개
- 대지 7,243㎡ , 건물 147㎡
- 가액 : 3억2천만원

051)861-2233
가-13-1645 이찬수 (주)금호부동산중개법인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2개, 20평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암자터안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칠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주인직접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가액 : 8억 • 전세 : 6천
- 집기일체 드림,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130-0606

사 찰 안 내
- 경남 김해시 상동면(상동IC 5분 거리) 사찰창건 25년
- 종교용지 591평, 주차장 334평, 임야 2,868평 / 계 3,793평 대웅전 : 목조 22평(단청완벽)
- 요사채2동, 종각,산신각,용왕각 등 97평
※노인요양복지, 연수원, 선원 등 기타 개발 최적지
- 가액 : 15억

010-3847-470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40평, 창고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완비
- 주차시설용이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1억4천만원

010-2542-5858
010-3123-3113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4천만원(조절 가능)

010-7466-7701

암 자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 법당 7평, 산신각, 요사채 15평(오래된 암자)
- 경관일품 뒤는 바위산
- 교통편리함 합 174평
- 양도가 : 7,500만

010-3288-1317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동대구역 부근
- 한옥 36평
- 법당: 아미타사존불, 지장보살, 신중, 산신, 용신, 소옥불77불
- 방2개,공양간1칸 (현재법회중)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3381-0800

행운의 땅 양도
저는 인연이 다해 복 받을 분에게돌려드립니다
- 위치: 경기도 가평군
- 2,000평
- 가액 : 6억
- 본인직접

010-5414-2643
010-5234-3288

현존수업

마이클 브라운 (저널리스트 · 남아프리카공화국)

〈2〉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에 집중 15분 씩 호흡

일깨우기

이제 당신은 1주차에 들어가 현존 수업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다. 1주일간, 날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일어날 때마다 얼른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이 페이지에 표시를 해두라. 현존 수업의 시작은 간단하다.

① 주어진 의식적 응답을 기억한다.

② 이번 주의 읽기 자료를 미리 훑어보고 읽어야 할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한다. 그런 다음 한 번에 모두 읽거나, 아니면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 한 부분씩 읽도록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7일 동안 조금씩 읽기 자료를 읽어야 한다.

③ 그런 다음 최소 15분간 연결호흡을 한다. 이 최초의 호흡 연습은 현존 수업 과정을 개시하는 경험적 순간이 될 것이다.

유지하기

다음 주의 새로운 연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7일 동안 다음 일들을 해야 한다.

① 15분간의 호흡 연습을 하루 두 차례로 한다. 가능한 한 아침잠에서 깬 직후와 잠자기 직전에 하도록 한다. 잠자기 직전에 호흡 연습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잠잘 시간에 기운을 지나치게 각성시켜놓거나, 아니면 단지 그 시간에는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 저녁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매일 하루 두 차례씩 꼭 호흡 연습을 해야만 효과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②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금주의 의식적 응답을 되풀이해서 읊는다. 다음 주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식적 응답을 받았으면 이전 주의 의식적 응답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③ 할당된 매주 자료를 읽거나 다시 읽고, 안내된 대로 인식의 도구를 적용한다.

현존 수업에서 제시되는 지침들은 모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행에 나서면서 ‘언젠가는 따로 시간을 내어 현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여행에 임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훼방하는 짓이다. 현존 수업의 힘은 ‘초지일관’ 하는 태도에 의해 더욱 커진다. 꾸준히 하는 것이 제멋대로 가끔식 격렬하게 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다.

바라는 만큼 꾸준히 연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기게 마련이다. 이럴 때 당신은 ‘내맡김(surrender)’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깨닫는다. 당신은 그저 그러한 상황에 자신을 내맡기고 계속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내맡김’을 ‘저항하거나 변명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내 맡김과 저항을 구별하는 황금률은 이것이다. 즉, 현존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됐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당신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당신은 자신의 진보를 방해하는 환경을 무의식적으로 지어내고 있다. 당신이 현존 수업에 전념할 수 없어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존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나중에 돌아보면 자기가 어떠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과정을 끝까지 마치겠다는 각오를 매일 새롭게 다짐으로써 당신은 의지를 강화하고 자기규율의 태도를 확립할 수 있다.

의식적인 연결호흡 연습

현존 수업 전반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호흡 연습을 한다.

① 자리에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편안하고 곧게 편 채 눈을 감는다. 방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거나 보통 앉는 방식으로 의자에 앉아도 좋다. 다만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쉽게 잠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은 몸을 잊어버리게 하고 의식이 깨어있게 해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② 몸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

③ 자연스럽게 호흡을 연결시킨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멈춤 없이 내쉰다. 의식이 바싹 쌔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 내어’ 숨 쉬어 숨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게 한다. 들숨에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날숨은 내려놓듯이 자연스럽게 쉬도록 한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물을 위로 끌어 올리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들숨에는 깨어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날숨은 자연스럽게 쉬되, 들숨과 날숨의 길이는 동일해지게 하라. 들숨과 날숨이 리드미컬한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서 이어지도록 호흡한다.

④ 코로 숨 쉬는 것이 좋다. 코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입으로 호흡하라. 그러나 코와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코와 입을 함께 사용하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비율에 불균형이 생긴다.

⑤ 현존 수업을 하는 동안 호흡에 맞추어 다음의 의식적 응답을 마음 속에 떠올리라. “나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다(I am here now in this).” 호흡과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맞추라. 들이 쉬며 ‘I’, 내쉬며 ‘am’, 들이쉬며 ‘here’, 내쉬며 ‘now’, 들이쉬며 ‘in’, 내쉬며 ‘this’.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 이 의식적 응답은 연결호흡 연습만을 위한 것이다.

⑥ 이렇게 호흡을 연결시킴으로써 당신은 현 순간의 자각에 다가간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관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⑦ 호흡 연습을 마친 뒤에는 호흡에서 주의를 거두어 조용히 앉은 상태에서 무엇이든 일어나는 느낌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하기를 권한다. 모든 경험이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습을 해나가는 중에 나날의 이 연습을 15분 이상 더 오래 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은 좋다. 하지만 한 번에 15분보다 짧게 하지는 말기를 강력히 권한다. 정신체는 이 짧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할애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댄다. 그 교활한 술수를 그저 무시해 사그라지게 하라.



현존수업은 초지일관 할 수록 효과 커
꾸준히 못해도 자신을 내 맡기고 계속해야
호흡 연습은 15분 정도가 적당
외부 방해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개인적 의지력 모으는 지름길

호흡 속으로

하루 두 번, 15분 동안 앉아 호흡을 연결시키는 것이 처음에 쉽지 않은 이유는 이 호흡 연습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호흡 연습의 지침을 따라서 하면 당신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호흡하게 된다. 당신은 ‘정상적으로’ 숨을 쉰다. 지나친 노력이나 특별한 자세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신은 이때 ‘원상복구하여(undo)’ 행위하지 않음, 곧 ‘무위(not doing)’ dml 경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루 두 번 의식적으로 호흡을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육체적 노력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의도해야할 첫 번째 결실은 개인적 의지력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통찰을 따라 행동하는 의지 말이다. 이 능력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두 번씩 최소한 15분 동안 호흡을 연결시키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점차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될 열매 중의 하나다. ‘다른 누구’ 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호흡하면, 매 연습이 당신의 개인적 의지력의 근육을 꾸준히 키워줄 것이다.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개인적 의지력을 모으는 비방이다.

현존체험

모든 경험이 끊임없는 변화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것은 유익한 통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의 질을 음미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현존 수업의 핵심을 말해준다. 이 모험은 당신의 이미 그런 모습, 언제나 그래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할 모습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의 질’에 변화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호흡 연습과 의식적 응답, 인식의 도구를 통해 현존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갈수록 당신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현존 수업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참모습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제약과 분리와 단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현존수업은 당신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 삶의 환경 등 개인의 외면적인 표현들만을 자신과 동일시할 경우, 스스로를 제약하고 현존으로부터 단절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현존 수업의 단순한 호흡 연습은 현 순간의 자각을 일깨워서 현존에 대한 경험적 자각을 촉진한다. 그러나 당신의 정신체는 현존 체험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냥 내 버려두면 정신체는 당신의 진척을 방해할 것이다. 호흡 연습을 할 때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면 정신체의 방해공작을 비껴갈 수 있다.

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호흡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하게 되는 현존에 대한 개인적 체험은 당신이 멈추지 않고 호흡하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해 쌓인다. 그러므로 호흡 수련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호흡이 리드미컬하게 연결돼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호흡을 멈추어 호흡이 단절되는 순간, 지금까지 커가던 현존에 대한 자각은 사그라지고 만다.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당신은 어떤 일이 잇어도 멈추지 않고 호흡하고자 하는 의도를 품어야 한다.

②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몸을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은 몸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무시하고 대신 의식적 응답(‘나는 지금 여기에 이 안에 있다’)과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몸을 긁거나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흔들거나 하지 말라. 갑자기 요가 자세를 취하거나 콧노래를 부르거나 말하고 싶은 충동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가 드라마이다. 드라마를 연출하는 순간, 당신은 즉각 현 순간의 자각에서 멀어진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들숨과 날숨 외에 다른 어떤 신체활동도 현존과의 경험적 만남을 갖게 해주지는 못한다.

앞으로, 안으로, 위로

매일 아침 호흡 수련을 마치고 나서 현 순간의 자각의 느낌을 하루종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내는 것도 좋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기법이 유용하다. 하루 중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게 될 때마다 그 주의 의식적 응답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의 의식적 응답을 마음속으로 되뇔 때마다 잠시 동안 호흡을 의식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현존 수업에 전념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여전히 경험될 수도 잇다. 이런 방황과 혼란은 누적된 감정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표시다. 누적된 감정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당신이 그것을 통합할 준비가 됐기 때문이다. 누적된 감정을 어던 식으로든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하면’ 그것은 통합된다. 이 불편한 느낌의 순간을 현존 수업 과정이 제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라. 현존 수업은 현존에 의해 촉진되므로 당신이 소화 할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주어지는 일은 없다. 또 당신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마이클 브라운이 쓴 〈현존수업〉(정신세계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업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제 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 **개 강 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 운 / 교육부장 상 일 합장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 (총무원) 052) 262-6857
010-9707-8850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 산 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 화 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갤러리 색즉시공



조향숙 판화 〈연하장〉

정월덕담

불일증휘(佛日增輝) 법륜상전(法輪常轉)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태양과 같이 더욱 빛나며
정법은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굴러가기를 바라나이다.

천하태평(天下泰平) 사민안락(四民安樂)
하늘아래 모든 나라는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사농공상에 종사하는 백성들은 모두 안락하기를 바라나이다.

만사여의(萬事如意) 무장무애(無障無)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뜻대로 이루어지며
어떤 방해나 애로가 없이 성취되기를 바라나이다.

법체청정(法體淸淨) 복혜쌍족(福慧雙足)
도를 닦는 몸은 날마다 청정해서 아픈 일이 없으며
내내 복덕과 지혜가 짝을 이뤄 구족하기를 바라나이다.

조향숙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학과 판화전공 졸업(미술박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과 졸업, 서울 수도여자 사범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회화과(서양화 전공)졸업,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수학했다.
2013 최정아 갤러리 초대전,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박사학위 청구전 – 인사아트 센터, 2010 판화전 북경 스콜라 갤러리 초대전, 1986 조향숙전 – 동방플라자 미술관 개인전, 10회 단체전 등 220여 회 전시회를 가졌다.



그림 조향숙

저승도 이승도 인간의 업이 넘쳐나니…

Buddha in Comic & Ani

④ 주호민의 '신과 함께'



주호민의 〈신과 함께〉 저승편 전권



이승편 내용 중 일부. 저승의 왕들이 다스리는 지옥도, 자본의 탐욕에 저당잡힌 세상도 모두 우리가 만들어 낸 소산들이다.

죽음은 인간이 가지는 최초이자 최후의 두려움이다. 죽음 뒤의 세계를 두려워 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극락(혹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도 탄생시켰다. 극락과 지옥의 탄생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곳으로 간다' 는 명제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어줬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신과 함께' 는 한국 문화가 만들어 낸 저승과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신과 함께' 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총 3부작이며, 모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연재됐다. 이 작품을 통해 주호민은 한국 만화 작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발돋움했다,

'신과 함께' 의 매력은 이야기에 있다. 전작인 '무한 동력' 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현실 풍자와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텔링은



저승, 이승, 신화 3편으로 구성
누구도 죄인 될 수 있는 현실과
'징악' 의 저승세계 절묘히 엮어

'신과 함께' 에서도 여전하다. 여기에 재치있는 캐릭터 설정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실제 작가는 일반적인 검은 도포의 저승차사를 시대에 맞춰 말끔한 양복을 입은 차사로 변화시키고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은 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중생을 돕는다. 죽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도 지하철이라는 설정을 가미했다.

무한 경쟁시대, 어떻게 살까

'신과 함께' 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무한 경쟁시대, 누구나 죄인이 돼야 하는 시대를 주호민은 저승차사들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주인공 김자홍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저승편' 은 이승과 저승 두 시간과 공간축을 오가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김자홍은 하청업체의 고혈을 짜냈다는 혐의를 받지만 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진기한은 회사의 압력과 영업 실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항변한다.

사실 소개되는 지옥들의 형벌 기준에서 보면 이승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다. '신과 함께– 저승편' 는 지옥이 꽉 찰만큼 죄를 짓는 게 당연해진 한국 사회를 보여주고 이후 사후 세계의 모습을 통해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준다.

이곳도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도

'이승편' 은 가난이라는 지옥에 던져진 서민들을 보여준다. 재개발 구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철거 대상자들에게 구청은 보상금을 줄테니 주고 임대 아파트로 이주할 것을 권유한다.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상금 몇 푼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이 어려운 대학생은 무한정 오르는 등록금을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철거 용역 알바를 시작한다. 가난이 지옥인 이 세상에서 죄는 자연스럽게 확대 재생산된다. 나의 업보는 누군가는 불행한 죽음으로 다가오고 업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내 몸 하나 뉘일 공간이 없는 것은 우리네 집을 지키는 민속의 신들도 마찬가지이다. 성주신 · 조왕신 · 터주신들도 재개발로 무너지는 집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도와 동분서주하지만 세파와 자본의 탐욕을 이겨낼 재간은 없다.

'신과 함께– 이승편' 에서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각인이다. 작가는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죽음을 기억해야 한고 말한다. 그리고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죄인이 된다는 명제 역시 인정하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 '신화 편' 은 일종의 '프리퀄' 이다. 지금까지 이 만화에 등장한 주요 신화의 주인공들의 과거로 돌아가 어떻게 신과 차사가 됐는지를 풀어낸다.

이 세상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다. 도리어 누구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내 등록금을 위해서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나 아귀도 수라도 될 수 있고, 되도록 강요받는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모여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신과 함께' 는 우리 모두의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대판 민담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인천 직항 & 부산 출발】 부처님오신날 특가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요금문의
양곤/바간/헤호 5일 요금문의
* 백두산 5일, 6일 요금문의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요금문의
(지장도량, 관음도량) 요금문의
* 구화산 (지장도량) / 황산 5일 요금문의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대행 스님

정말 멋있는 이 마음도리를 진짜로 알아보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그 어디 화엄경에 보니까 뭐가 써있느냐 하면요, '이외에 공심(共心)인 부처님 세계에 작은 티끌 수와 같은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광대무변이라. 광대무변하니라.'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보배장엄이라.' 이 이름을 똑같이 써놓고 똑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이 전체 부처님 이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게.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형체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속에, 마음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다 들어있고,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 종소리를 들었으면 귀에다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듣기는 했거든. 그러니까 듣는 사이 없이 들었다, 이게 묘한 묘법이에요. 듣는 사이 없이 들었기 때문에 광대한 거지, 듣는 사이가 있고 들은 거를 가지고 아주 잡아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광대한 법입니까? 그러고 이렇게 발전도 될 수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대천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여튼 내가 오늘 얘기해드린 건요,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화목재를 한 달에 두 번을 지내든지 한 번을 지내든지 지내라. 그건 왜냐하면 예전에 고사라고 하고 모두 지냈는데 그게 고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화목재라는 건 보이지 않는 '자'와 '신'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기계의 마음들이나 보이지 않은 마음들이나 보이는 마음들이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떡이라도 썰어놓고 음료수라도 사다놓고 먹을 과일이라도 더 사다놓고 그렇게 해서 같이 화목하게 얘기를 주고 받는 겁니다. 또 일하는 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아주 꺼끌꺼끌했던 것도 다 녹아지고 모두 일을 내 일처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산 사람의 화목재지 뭐냐 이런 소립니다. 이게 하나의 마음이 튕글어지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재(齋) 지낸다 하는 것도 그것이 결국은 화목재입니다. 그러고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의 생일이든가 자식의 생일이든가, 생일날도 구태여 요새는 케익을 사다가 놓고 모두 초를 꽂아놓고 하는데 난 그거 반대예요. 요새 기주떡 참 맛 좋습디다. 기주떡 아, 세 켜만 해다가 탁 똥그랗게 해놓고 거기다 초 꽂아놓고 불을 밝힐 때 자기 생일이라고 뭐,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던가? 그게 생일 축하가 아니에요. 불을 켜놓고 '나를 일년 내내 배고 또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백분지 일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밝게 되소서.' 하고 그냥 간절하게 그 태어난 놈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축하합니다지 어째서 자기가 축하를 받습니까? 세상에 생각해보면 변소에 가나 나오나 들어가나 걱정하던 부모의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렇게 지내시던 생각을 하면 속을 안 썩여도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저는요,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굶어죽었는지 얼어죽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했으니 그 속을 얼마나 썩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열 달 내 배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낳으면서도 고생하고, 기르면서도 고생하고 또 길러놓으니까 또 고생을 해, 마음 고생을. 그러니 얼마나 불효입니까, 응? 그런데도 생일날 닥쳐왔다고 자기가 좋다고 술을 먹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좋다고 자기 생일날 뭐 안 해준다고 야단.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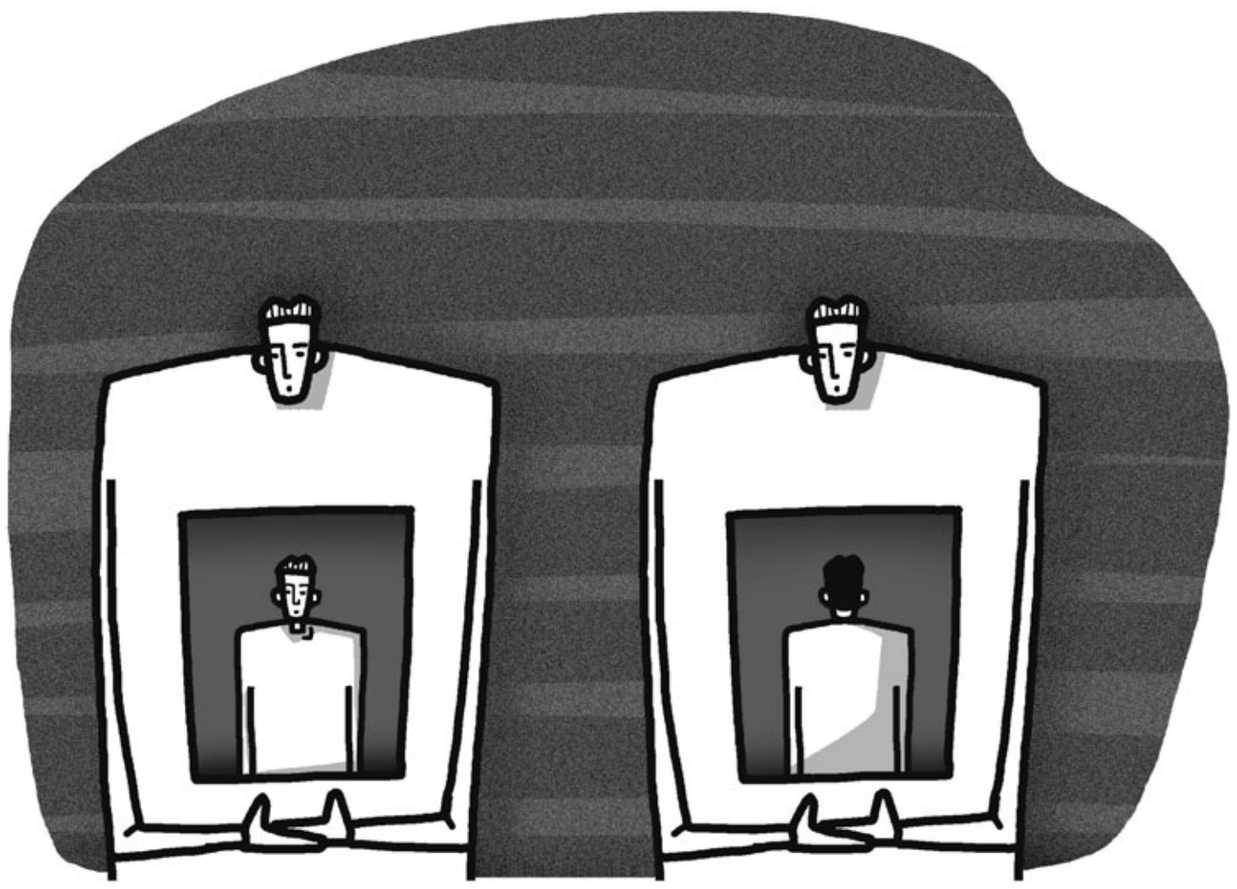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진리가 있는 것인데 인간이 뭐 때문에 인간이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이 모두가 99%가 다 부처입니다. 다, 생물들도 다 불성이 있고요. 불성은 그대로 태어나면서 불성이 주어지는 거고요, 생명의 근본이니까. 우리가 차원이 낮아서 짐승으로 된다, 벌레로 된다 이러더라도 살아가면서 터득이 되는 거거든. 터득이 되면은 다리가 짧다 하면 조금 길게 요다음에 탄생을 하고 또 요게 내가 살기가 참 거북하다 그러면 다른 걸로 화(化)해서 또 태어나고….

아, 저 광명사 앞 밭에 모두 깨를 심어놨더랍니다. 그랬는데 깨를 그냥 진딧물이 모조리 앉아서 그냥 다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심어놓은 분이 마음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이 진딧물을 어떡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면서 없는 사람이, 이 깨를 어떻게 추릴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 사흘 되던 날 가보니깐요 고 빨간 풍뎅이 같은 그 무당벌레 있잖습니까? 날아다니는 그것이 그냥 아주 빈틈없이 들어와서 앉더니만 그냥 그 진딧물을 다 먹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 마음과 마음은 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해신(海神)이나 주림신(主林神)이나 또는 산신(山神)이나, 그 '주(主)' 자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중심이 있으니까. 소임을 맡은 그 소임자니까. 그래서 모두가 같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가령 주산신에 관한 건이면 주산신에다가 한 찰나에 마음이 들어가면은 벌써 생각이 나면 마음이 벌써 통하니까 그래서 건지게 되기 때문에 그저 주산신(主山神)도 자기 주인공입니다. 해신도 자기 주인공이요, 그 해신은 용신(龍神)이라고들 모두 그러죠? 주해신(主海神)도 바로 자기의 주인공이요,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니깐요. 그리고 가다듬으면 또 두드러지지도 않고 펼쳐도 줄지도 않아요, 여기는.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영원히 그대로 줄고 느는 법도 없고 움죽거리는 법도 없고 아주 광대하고 무변한 거죠. 즉 도리천에 자활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름해서 그것도 평등공법(平等空法)이다 이런 소리죠.

하여튼, 그래서 촛불재 하는 것도 그렇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은 쉼터에서 몸은 암자로

이곳은 조그만 시골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위에 세워진 아담하고 조용한 암자입니다. 수행과 포교에 여념이 없으신 불자님들과 비구니스님들께 조금이나마 아무 거리낌없이 자유로이 마음을 푹 쉬여 가실 수 있게 하여드리고자 마련한 휴식처를 알리고자 합니다. 또 주위에는 일본정신 문화에 있어서 그 발상지라고 순례하는 〔이세진구〕가 가까이 있어 이국의 정풍을 느껴보실 수도 있습니다. 냉방과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8월)과 추운겨울(11월~3월 13일까지)에는 휴암입니다.

하룻밤 묵으시는데는 깔개 이불카바 세탁비 1,900엔과 유까다〈잠옷〉 세탁비 600엔으로 합계 2,500엔입니다. 물론, 지참하시면 무료입니다.

식사는 무료이며 아침은 커피와 빵, 저녁은 시판 도시락입니다. 실내에서는 종일 금주 금연이며, 객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하실분은 꼭 15일 전까지 전화예약이 필요합니다.

3인 이상 함께 오실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입국과 출국 안내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비나 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주지 고 조 선

전화 0599-26-6999
080-8349-4076
메일 sinlaam@zeus.eonet.ne.jp
鳥羽市安樂島町 1075-10 新羅庵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2014년 홍익범패 강의 안내

본 대학에서는 스님들을 위주로 전통범패를 강의하고 소질이 있는 분을 발굴하여 범패단원으로 인정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스님을 꿈꾸고 계신분도 기초부터 공부하여 훌륭하신 큰스님을 인연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의내용

◆ 2014년 3월 3일 오후 3시 개강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바라춤, 나비춤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목탁, 요령, 태징, 북, 기초, 조석예불, 사시예불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49재, 천도재, 방생, 시다림, 구병시식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일반인 기초예절법, 난 누구인가,
▷붓다를 찾아서, 천수경 해석,
▷불자님 같이하는 예불법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873-83 효성빌딩 4층 (연수로 190 효성빌딩 4층 법지사)

전화 : ☎051)852-0108 법지사 / 010-4466-3575 (강주 지효스님)

영남범음범패 제3기 학인모집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14년 2월 24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 의 처 :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 교 대 학 범 패 원

한 생 살면서 값진 내 보배를 활용하면서 살아가세요

☞ 29면에서 계속

우리가 여기서 반야심경을 하죠?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울 때 여기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감지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천수경을 읽는데도요, 경(經)을 읽는데도 내가 모르면서,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읽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책을 보게 되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모두, 보게 하는 놈도 그놈이요, 응? 내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놈이 책을 보게 나를 형성시켰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보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앉는 것도 전부가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러고선 거기에서 보게 해서 보는 거다 하고서 보면은 그것이 납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간다면, 이 가슴에 와서 닿을 때 비로소 그 말은 그대로 못해도 그 뜻은 다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이 없이 했고 책을 보는 사이 없이 봤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또 보는 사이가 없이 봤으니 바로 실천을 하는데 함이 없이 했다. 이 뜻을 감지했으니까 말을 해도 뜻과 말이 첨보돼서 돌아가면서 이게 나가니까 에너지가, 즉 말하자면 그 원력이, 그냥 빛이, 거기도 광명이 가지만, 말로 알지도 못하고 경을 읽어서 얘기하는 거는 뭐가 갈 게 있어야지. 자기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가느냐고. 내 집이 전깃불을 못 켰는데 남의 집의 전기 가설이나 또는 불을 켜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두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걸망 짊어지고 한 철 나와서 모두 모여서 놀다가 해가 지면 제가끔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러한 데에 따라서 금방 찰나에 벌써 한 생을 지나고 무대가 내리면은 벌써 요다음의 모습은 자기가 사는 데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러니까 요 한동안 우리가 혼자 와서 모두 같이 놀다가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꿈도 생시도 둘이 아니란 얘기죠. 둘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이 꿈을 잘못 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어허! 이거는 주인공의 뜻이니까 그것도 잘되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은 구정물을 그냥 삽시간에 맑은 물로 바꾸어놓는 거죠. 체는 바꾸어놓을 수 없어도 바로 그 뜻은 바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체로 나오는 게 말갛게 나온단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아, 한 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아주 값진 내 보배를 내 보배로 활용해서 살아가시면서 발전하고 또는 체험하시고, 장래의 이세들한테도 그 모든 묘법이 미치게끔 하고 부모에게도 손색이 없이 밝아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것이 귀중하다는 거를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 얘기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내가 지금 뭔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거기서 조금 조금 챙겨서 자기가 잘 생각해보면 알 바가 있습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몇 분….

질문자1(남): 큰스님의 법문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관(觀)하고 그리고 삼라만상이 무량무변이요, 뜻하는 바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자형께서 지금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간암 3기인데요, 말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대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도 마음에 관하고 신심을 돈독히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공덕이 되어서 쾌유가 될 수가 있는지 큰스님께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다섯 가지가 있죠. 밥 먹어줄 수 없고, 자줄 수 없고, 죽어줄 수 없고 또는 아파줄 수 없고, 똥눠줄 수 없고 이 다섯 가지요. 그 반면에 말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설이 돼야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법(觀法)을 꼭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바대로 다 응신이 돼서 해주셨지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면 부처님한테 한 됫박 한 됫박 얻어먹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체험하면서 그 도리를 자기 스스로서 깨달아야 하니깐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그것도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나가는 것도 전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깐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생겼고 상대가 생겼음으로써 아픔도 오고 부닥침도 오고 모두가 생기는 거죠, 죽음도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분들에게 광주에서 나온 책자 조그만 거 그런 거라도 갖다가 드리면서 그거를 보고 체득하라고 하고 관법을 가르쳐드리세요. 그러면 이 불과 (천정의 전등을 가리키시며) 같이 가설이 돼 있으면은 그저 이게 올리기만 하면, 마음만 내면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이 관법이라는 것이 누가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서 주어진 거고, 갖고 있는 거고 또 스스로서 해야 하는 거고….

질문자1(남): 그런데 지금 의식이 불명입니다. 그러고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몇 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스님: 그럼 제삼자가 해주세요.

질문자1(남): 예.

큰스님: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탄생하는 것도 어렵지만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프지 않고 가는 사이 없이 가는 것도 큰 홍복입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야 되는지, 그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길 수도 없고
맡기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니까 일이 잘 안되고 이런 거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질문자2(남):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선원에 나와서 마음공부한 지 한 2년이 이제 막 넘어서는데요, 오늘은 질문에 앞서서 제 공부한 얘기를 잠깐 하고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매일 이렇게 살피다보면 큰스님 말씀마따나 팥죽 솥에 팥죽 방울이 일듯이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가라앉고 합니다. 물론 큰스님이 가르쳐주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되돌려놔야 그게 녹는다고 말씀하신 거를 하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첫째, 애욕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중에서도 애욕이라는 거는 가장 질기고 또 자주 때때로 떠올라가지고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림, 영화, 어떤 거는 생각에서부터 또는 바깥으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서, 예를 들기는 좀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전에 절에 와서 비구니 스님을 뵐 때는 '아, 이렇게 청정하신 스님들도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때는 '아, 이렇게 청순한 여자도 있구나. 이런 사람과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 이거 주인공! 이거 이거 배가 넘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다.' 는 관도 하고 또 이거 내가 너무 공부가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닌가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애욕이 왜 나오고 어떻게 녹여야 되느냐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 내면에는 반드시 숨은 도리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일러주기를 마음공부할 적에 자칫 잘못하면 공든 탑이 찰나에 무너질 수도 있어 다시 쌓아야 되는 일도 있는 거니까 그걸 항상 경계하라고 일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가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애욕이 들끓는다면 그 내면에는 반드시 이것을 좋은 쪽으로다가 인도할 수도 있는 무슨 숨은 도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있다면 큰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석가세존(釋迦世尊)께서도 이르시기를 애욕보다 더 광대한 건 없다고 이르셨고요, 다시 이르시기를 애욕이 이 세상에 하나만 더 있어도 성불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욕의 숨은 도리를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만약에 애욕이 있는 당신이 없는데 어떻게 애욕이 있겠소? 당신 자체가 없는데, 응? 당신이 지금 앉았는 게 당신이 앉아 있는 거야? 더불어 같이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있어? 자기가 없잖아.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애욕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어난 꽃들의 움죽거림에 연관을 시키면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함이 없이 했고 가고 옴이 없고.

그래서 가고 옴이 없이 여기도 올라오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발자취도 짊어진 게 없고 또 몸속에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댁이 껍데기가 어디서 생겨서 올라왔어요? 알고 본다면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지 자기 혼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자기 혼자만이 보는 게 없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자기가 심부름을 해서 더불어 같이 돈을 번 거지 내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게 더불어 한 거지, 왜 자기 혼자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돈 나갈 때 안 나갈 때 다 나가버리고 말지.

하여튼요, 천주교 자리든 만주교 자리든, 하하하, 불교 도량 자리든 한 도량이고, 한 지구의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근본을 우리가 보고 마음을, 지혜를 내야지 소소한 거, 이 다섯 손가락이 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를 보고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대로 여러분이 그게 무슨 희한한 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다 자동 컴퓨터와 자동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자기가 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바람도 그렇게 비도 그렇게 모두 마음으로 쓰는 건 그렇게 쉬운데, 그러게, 내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 모두 직결이 돼 있고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 수레바퀴하고도 더불어 같이 가설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은 즉시 빛보다 더 빨리 전달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모든 걸 묘법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대로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 구정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이 물체로는 (법상 위의 물컵을 가리키시며)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바꾸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이라 하면은 물하고도 통하니까 마음으로는 얼른 그게 바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깐 제대로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길 수도 없고, 맡기지 못하니깐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니깐 일이 잘 안되고 이런 거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하하하.

야, 그래도 잘하고 나가는데요? 하하하. 그래서 그 마음낸 게 함이 없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남이 해준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자부처, 자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다 한 부처니깐요. 멋지죠? 아주 멋져요! 멋있어요, 정말! 이 정말 멋있는 이 도리를 정말 진짜로 여러분이 아신다면 진짜 하늘을 보고 한탄을 하고 땅을 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죠. 정말입니다.

※위 법문은 1995년 2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故 목정배 교수를 추모하며

보살의 삶을 산 당신, 그립습니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저는 당신의 학위논문지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했던 당신의 명강의에 참석하여 당신과 눈빛을 맞추며 경청했던 수강생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제가 특별한 사람일 리 없지만 저의 불교 인생에서 당신은 각별한 분이셨습니다.

1960, 70년대에 세계적으로 불교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진원지는 서구였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자거리에 포교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를 보내고 해방 후 서구화의 격랑 속에서 주춤거리던 산중의 불교가 대중의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친견한 것은 우리나라 포교당의 효시격인 대원불교교양대학에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경기도 오산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저녁 시간에 불교를 공부하려고 대원불교교양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1982년 말로 기억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TV에서만 뵙던 당신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파이프를 물고 계셨습니다. 저녁 강의 직전이었나 봅니다. 요기를 위해 빵을 드시려다가, 머뭇거리던 저를 보시더니 "이리 와봐! 이거 하나 먹어!"하며 불쑥 빵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이것, 저것 물으시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업과 관련한 다른 일이 생겨서 수강료만 내고 결국 다니지는 못했지만, 불교를 공부하겠다는 초면의 젊은이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던 당신의 모습은, 불교학자의 롤 모델로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거침없는 분이셨습니다. 비판에 거침이 없고, 강의에 거침이 없으며, 학문과 예술에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계율학을 전공하셨지만, 계율의 정점인 무상계(無相戒), 즉 '티 나지 않는 계율'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승이든 속이든 가리지 않고 돌직구 같은 비판을 던지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하여 비구니 스님들을 모시고 문답을 나누는 TV프로였습니다. 당신께서 해설자로 출연하셨는데, 스님에 대한 청중의 질문들이 도에서 벗어나자, 마이크를 잡고서 "부처님의 생신 날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준엄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사회자는 쩔쩔매면서 사과하였고 분위기가 반전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의 위용을 실감케 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전체가 보인다."고 하시며 몸소 강단 바닥에 드러누우셨다는 일화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됩니다. 새해가 밝으면 연구실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손수 연하장을 그려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을 들고 찾아뵈었을 때, 어서 오라고 반기시며 저에게 건네주신 '무(無)' 자 연하장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은 교성곡 '용성'의 가사를 단 한 자의 수정도 없이 일필휘지로 쓰셨다는 얘기는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당신께서 한국불교학회장을 맡고 계실 때 국제적인 불교학술대회를 기획하면서 즉석에서 그 이름을 '불교학결집대회'라고 지으셨던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작명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큰 업적은 '부처님 오신 날' 일 겁니다.

언젠가 앰배서더호텔 커피숍에서 당신을 모시고 차를 마시다가, 김잉석 교수님의 기념비적인 논문 〈고구려 승랑과 삼론학〉의 작성에 당신께서 일조하셨다는 점을 알고서, 중관학을 전공한 제가 당신을 뵈옵게 된 일이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잉석 교수님께서 송광사에서 승랑 스님에 대해 연구하면서, "얘, 철우야 이것 좀 찾아봐라."고 명령하시면, 대장경이 있는 서고로 '냅다' 달려가 온갖 자료를 찾아 전해드렸다지요. 당신께서는 종이를 찾다가 테이블 위의 냅킨을 집어 펼치시더니 그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국불교학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적히고 거침없는 당신의 체취가 묻은 그 냅킨은 비닐로 코팅하여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야의 '무주상(無住相)'이 계율의 '청정함'에 녹아 든 '무상계'를 실천하면서 거침없이 살아오신 보살의 삶. 생년월일시의 사주가 당신과 똑같다는 원효 스님보다는 세상에 오래 계셨지만 아쉽기만 합니다.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후학들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원력으로 다시 오소서.

불자 세상보기

국회 '특권 내려놓기' 공염불로 끝나서야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권한이 많아지면 이른바 '특권'으로 불리는 영역을 향유하게 되는 것 같다. 그 가운데서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그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연봉이 1억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 외에도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200여 가지가 더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이니 달리 무슨 말을 더하랴.

그들은 임명직인 국무총리나 장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진 특수한 신분의 공직자들로서 고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합법적 권리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론이 악화되거나 선거철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空約)을 정기적으로 남발해 왔다.

얼마 전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은 그의 말을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구두선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당 대표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인들이 천명한 공약가운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약속만 해도 10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예컨대, 면책 ·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세비 30% 삭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국민에게 공천권 환원 △공천 금품수수 형사처벌 강화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가 재?보선 비용부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 △국회예결특위 상설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공약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는 국민들을 기억상실증환자 쯤으로 밖에 보지 않는, 안하무인격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와중에 그들은 스스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릴 적 읽은 동화책에서 우리는 양치기 소년의 최후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장난스럽게 내뱉은 조그만 거짓말의 과보가 그럴진대 유권자들인 국민을 상대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수도 없이 반복한 그들의 업보는 실로 막중할 것이 틀림없다. 차마 그들에게 육도윤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만은 꼭 명심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되돌아보면 국회의원들의 특권 운운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함께 지은 공업(共業)의 과보인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을 욕하면서도 바로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가? 여기에는 시민운동가, 교수, 기업가, 판검사, 약사, 종교인 등 어떤 분야의 유명인사도 예외가 아니다. 십 수 년 전에는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가 대통령 선거에 직접 나선적도 있지 않던가?

자신의 분야에서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면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결과가 결국 정치인들에게 흔히 말하는 '특권'을 허용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더 이상 정치인 되기를 동경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래도 기어이 나랏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의 공복(公僕)이 되기를 굳게 맹세하면 될 일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치인들은 모든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부감을 떨칠 수 없다.

社說

법인법 갈등, 원만 해결 의지 보여라

법인법 갈등은 조계종의 현안 중 하나다. 조계종 내 대표 법인인 선학원과 대각회가 가장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이 2월 12일 신년간담회에서 법인법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무적인 사안이다. 이날 스님은 "법인법 논란은 총무원이 선학원, 대각회 등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15대 종회에서도 잘 협의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종정 진제 스님의 적극적인 중재도 요청했다.

실제 법인법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는 적지 않다. 선학원과 대각회의 주장이외에도 정관 변경을 총무원에 통보하고 사찰 등록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선 법인들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법인 등록을 했을 경우 이익보다는 재신권 침해가 심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에 대해서도 조계종단은 답을 내놔야 한다.

법인법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정혜사를 놓고 벌어진 선학원과 수덕사와의 갈등이다.

선학원은 동안거 해제일인 2월 14일 정혜사의 사찰운영권을 인수인계 받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수덕사에 발송했고 수덕사는 반발해 인수인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혜사를 둘러싼 갈등은 표면상은 중첩등록으로 인한 재산문제이지만 법인법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조계종 총무원이 제시한 법인 등록 기간은 6월까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조계종은 이제라도 법인법의 문제와 일선 법인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경청하고 고칠 법조항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선학원과 대각회도 감정적 대응과 반발보다는 이성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결사' 통한 신행은 삶의 질 바꾼다

결사(結社)는 불교에서 혁신운동을 말한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결탁해 세속의 명예를 얻는 승려가 많이 나타났다. 자기 수행을 통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잊고 선종과 교종의 명분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러다보니 세속적인 이익만 구하려는 이들이 많아져 몇몇 뜻있는 승려들이 모여 혁신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요세(了世)의 천태종 백련결사(白蓮結社)가 유명하다. 지눌 국사는 지금의 순천 송광사인 수선사(修禪社)에서 〈정혜결사문〉을 쓰고 세속화된 호국 · 기복 · 미신불교를 타파하고, 타락한 형식불교를 척결하며 정법불교와 수행불교를 주창했다.

현재 각 사찰에서는 이런 결사의 정신을 계승받아 도반들이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수행 하면서 수행담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결사에 동참중인 사찰과 재가단체들은 일반적으로 100일, 1000일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진한다.

정토회의 '정토회 만일결사'를 비롯해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 '안거수행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홍법사, 미황사, 봉은사 등 10여 개 사찰이 대중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거에 동참한 인원만 6000명이 넘는다. 결사에 참여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을 하니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또한 혼자 수행 하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결심이 흔들려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결사를 통해서 도반들과 일정기간 한 가지 수행을 함께 하고 공유하면 지속하기 쉬운 점도 동참인원이 느는 원인이다. 결사가 새로운 신행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 스님의 50년 수행의 결정체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이 책의 공리空理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색즉시공色卽是空을 파지把持하였던 대학 시절부터였습니다. 그러하니 이 책자는 50여 년 동안 만들어져 온 셈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묵은 책입니다. (중략) 27개의 공리를 음미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서 타-ㄱ 트인 해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초기에는 공리를 관행할 때만 걸림 없는 해탈감을 느끼겠지만 그 관행의 횟수가 늘어나다보면 삶 전반이 해탈감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머리말 중에서



지고한 행복으로 이끄는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

용타 스님이 창시한 동사섭은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삶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수련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로서 독자들에게 공空을 깨닫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 용타 지음 | 120쪽 | 10,000원 | 변형4·6판 양장, 작은 책 부록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여래장사상의 완결서인 『대승기신론』
여래장사상에 천착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대승기신론 강설』!

大乘起信論 講說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이 책의 특징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意譯하였다.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를 도왔다.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열어놓았다.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여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5. 중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를 대입해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했다.
6. 법신설은 여래장사상의 정수, 법신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강설했다.
7. 마음이 곧 '여래장如來藏' · '불성佛性', 중생이 곧 여래임을 일깨워준다.

『대승기신론』의 '대승'이란, 소승에 대한 대승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음의 본성이 진여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헤매고 있다. 탐貪 · 진瞋 · 치癡 3독三毒의 번뇌에 더럽혀져 추한 존재로 있는 것이다. 대승의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추한 마음이 깨닫는다. 오뉴월 푸른 땡감이 잘 익어서 동지선달의 빨간 홍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음 밖에 깨달음의 주체가 없다는 말이다. 중생심에는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추고 있다.

–머리말 중에서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민족사 Tel. 02)732-2403~4